

# T&I REVIEW

2022 Vol.12(2)



# T&I REVIEW

2022 Vol.12(2)

## **Publisher**

Jisun Shin (Director, ERITS)

## **Editor-in-Chief**

Moonsun Choi (GSTI, Ewha Womans University)

## **Co-Editor**

Aili Chang (GSTI, Ewha Womans University)

## **Editorial Board**

Christina Schäffner (Aston University, UK), Eva Ng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SAR of China)  
Ludmila Ster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Mary Snell-Hornby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Christine Ji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Australia), Hyerim Kim (GSTI, Ewha Womans University)  
Juriae Lee (GSTI, Ewha Womans University), Jieun Lee (GSTI, Ewha Womans University)  
Jiun Huh (GSTI, Ewha Womans University), Eunsim Kwak (Kyonggi University)  
Soon-young Kim (Dongguk University), Dohun Kim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ung-Hye Mah (Dongguk University), Raean Lee (GSTI, Jeju National University)  
Junho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imin Lee (Keimyung University)  
Na-Young Jeo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Joon-Hyung Ch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kook Joo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ilhee Jin (GSIS, Chung-Ang University)  
Kyunghee Choi (Pyeongtaek University), Jungmin Hong (Dongguk University)

## **발행인**

신지선 통역번역연구소장

## **편집장**

최분선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 **부편집장**

장애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 **편집위원**

### **해외:**

Christina Schäffner (Aston University, UK)  
Eva Ng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SAR of China)  
Ludmila Stern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Mary Snell-Hornby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Christine Ji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Australia)

### **국내:**

김혜림(이화여대) 이주리에(이화여대) 이지은(이화여대) 허지운(이화여대)  
곽은삼(경기대) 김도훈(부산외대) 김순영(동국대) 마승혜(동국대)  
이예안(제주대) 이준호(한국외대) 이지민(계명대) 정나영(국립공주대)  
조준형(경상국립대) 주진국(충남대) 진실희(중앙대) 최경희(평택대) 홍정민(동국대)

# Contents (차례)

<b>1. 무자영 · 조설혜</b> .....	<b>7</b>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 관한 요구 분석 연구 - 중국 한·중 MTI 과정 중국인 KFL 학습자를 중심으로 -	
<b>2. 이상모 · 김근우</b> .....	<b>35</b>
저작권과 번역	
<b>3. 이상빈</b> .....	<b>55</b>
시의 형태적 특성과 번역 - 김혜순 시집 『한 잔의 붉은 거울』의 번역을 기반으로 -	
<b>4. 이지영</b> .....	<b>79</b>
문화적 귀속으로서의 번역 - 위화 소설 『제7일』 한역본 및 영역본 서평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b>5. 이지은 · 최효은</b> .....	<b>105</b>
인공신경망 특허 기계번역 성능에 관한 연구 - Patent Translate와 WIPO Translate 한영 번역 결과물의 누락과 통사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	
<b>6. Sukyoung An · Hyemin Roh · Seolim Chung</b> .....	<b>131</b>
Applying Pym's Typology of Translation Solutions to Korean-English Text Analysis : A Preliminary Study to Use the Typology in an Undergraduate Translation Class	

**PhD Thesis Abstract**

**박세리(Seri Park) ..... 155**

K-POP 가창 가사의 한일·일한 번역 전략 연구  
- 음절수, 압운, 의미를 중심으로 -

**이선화(Seonhwa Lee) ..... 161**

한일/일한 동시통역에 나타난 비유창성 요소에 관한 연구

**Book Review**

**Saeed Ameri ..... 169**

*Reception Studies and Audiovisual Translation* (2018, by Elena Di Giovanni)

**통역번역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윤리위원회 내규 ..... 179**

**Principles for Research Ethics and Bylaws of the Academic Integrity Committee  
of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 185**

**논문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내규 ..... 193**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nd for Publication Review ..... 198**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 204**

**Guidelines for Contributors ..... 207**

**Referencing Style ..... 209**



##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 관한 요구 분석 연구 - 중국 한·중 MTI 과정 중국인 KFL 학습자를 중심으로 -

무자영\* · 조설혜\*\*

**Ziyang Wu and Xuehui Cao (2022). A study of needs analysis for the “Korean Language Enhancement for the Purpose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course: Focusing on Chinese KFL learners in the Korean-Chinese MTI program in China.** *This paper analyzes the perceptions and needs towards the course of Korean language enhancement for Chinese KFL learners in the Korean-Chinese MTI program in China.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language elements for Language B in th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process, and then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Korean-Chines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curriculum. Based on the outcome of analyzing the needs of learners, the demand for pragmatic knowledge of Korean was found to be the most salient, and in terms of text types, the categories of “speeches and lectures” and “articles and columns” were found to be the most prominent, along with the subjects of “politics and diplomacy” and “economy and trade”. The results of the learner needs analysis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ducational contents of Korean language enhancement course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Korean-Chinese, needs analysis, educational contents, MTI course**

**주제어:**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 한·중, 요구 분석, 교육내용, MTI 과정

---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박사수료생, 제1저자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전공, 박사수료생, 교신저자

#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 한·중 ‘통번역 석사 전공학위’(MTI: 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이하 ‘MTI’로 약칭) 과정의 중국인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학습자들이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한·중 MTI 과정에서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 관련 교과목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의 해이고 30년 동안 한·중 양국은 교육,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이루어 왔으며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의 한중 깊은 교류와 협력이 예상되며 통번역 인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번역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은 모두 통번역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79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비롯하여 최초로 통번역대학원에서 한·중 통번역 석사과정을 설립하여 통번역 인재를 양성해왔다(유양 2020: 107). 중국에서는 2009년부터 한·중 MTI 과정을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수년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양국은 통번역 전문가를 수없이 배출하였다.

하지만 통번역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외중에 문제점도 존재한다. 그중에서 중국 한·중 MTI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구성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임형재·송은정 2015: 315). 특히 통번역 언어인 한국어 능력 향상 과목이 아직 세밀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언어 숙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Gile(1995)에 따르면 언어숙달의 교과목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한·중 MTI 과정의 교육과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통번역 능력을 배양하는 목적으로 <한국어 숙달> 교과목을 개설하고 개선할 필요가 절실하다. 고효정(2016)에 따르면 통번역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 한·중 MTI 과정 중국인 KFL 학습자에 초점을 맞춰서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을 개선하기 위한 세밀한 학습자 요구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한·중 MTI과정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중국 한·중 MTI 과정과 한국 통번역 대학원에서 B언어로서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 현황을 알아본 다음 중국 여러 대학교의 한·중 MTI 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중국 한·중 MTI 과정과 한국 통번역대학원에서 B언어인 한국어 능력 향상에 관한 교육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중국 한·중 MTI 과정 KFL 학습자들은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중국 한·중 MTI 과정 KFL 학습자들은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 대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

## 2.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2.1.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 관련 선행 연구

대학원 단계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을 다루는 연구로 고암(2009), 성초림(2014), 심지영(2021), 윤창숙(2022) 등이 있다. 고암(2009)에서 한국 통번역대학원 한·중과에 추가개설을 희망하는 한국어 관련 수업과 현재 한국어 수업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추가 개설 희망하는 한국어 관련 교과목이 한국사회, 말하기, 발음,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 한국문화, 읽기와 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초림(2014)은 교과목 개요, 교수자, 강의 내용의 측면으로 한국 네 곳의 통번역대학원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알아본 다음에 한국어 능력 평가 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모국어로서의 한국어와 별도의 B언어로서의 한국어 수업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영(2021)은 보다 넓은 차원에서 한국 국내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전공’의 설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규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과목을 보면 실무역량 배양 및 훈련을 위한 한국어 수업으로 <번역한국어1, 2, 3, 4>와 <번역한국어5, 6, 7, 8>이 개설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번역을 위한 한국어 어휘 문법, 한국어 텍스트의 이해, 고급한국어 읽기 쓰기 연습, 고급한국어 듣기 말하기 연습, 번역을 위한 주제 토론, 한국어 발음의 이해, 고급한국어 발음 연습, 한국어 번역을 위한 문장 작성법, 한국어 번역을 위한 작문 연습 등이 있다. 윤창숙(2022)은 <한국어 숙달>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 과정의 설계 및 운영 원리, 교수요목, 교육 자료, 수업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날씨 뉴스 텍스트’를 활용한 교과 운영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대학원 단계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을 다루는 연구들은 통번역이론과 맞물려서 <한국어 숙달>이나 <번역한국어>와 같은 교과목의 교육 원리, 교수요목 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하지만 중국 한·중 MTI 과정 학습자의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기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수(2019)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행된 통역학 교과목의 설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해외 통번역 대학원이나 학부의 교과과정 소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역시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중국 한·중 MTI 과정에서 통번역을 위한 B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지만 학습자의 요구 분석 관련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는 학습자 요구분석을 통해서 학습자 중심의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 설계와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통번역 과정에 B언어가 어떤 숙달 수준에 도달해야 할지 그리고 B언어의 어떤 측면을 향상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언어지식 가용성 이론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한국어가 B언어일 경우 현재 국내외 통번역 교육과정에서 관련 교과목의 진행 현황을 알아보고 참고할 수 있는 점과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려고 한다. 이를 기본 틀로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중국 한·중 MTI 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숙달> 교과목 개설에 대한 인식과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2.2. 통번역 교육과정에 교과목 개설 관련 이론적 배경

교육과정은 각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절차로 개발되어 있지만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 즉, Tyler(1950: 83)에 의하면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것은 ‘선정된 학습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이고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 조직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교육내용을 학습자가 학습 현장에서 학습 활동이 구체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알맞게 배열해 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명광 2019: 277). 그리고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의 내용을 영역별로 나뉘서 어떤 교수 계획대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획의 실현 방식은 바로 교과목이다.

구체적으로 통번역 교육과정에 도입하면 <한국어 숙달> 교과목을 개설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PACTE(2003)의 번역 역량에 따라 번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잠재적 지식과 기능 시스템에서 이중 언어 능력, 언어 외적 능력, 도구적 능력, 번역 지식 능력과 심리 생리적 요소가 포함된다. 고효정(2016)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통번역 교육에서 한국어 능력은 필수조건이자 선결 조건이므로 통번역 초기 단계의 경우 한국어 능력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민우(2012)는 외국인인을 위한 통번역 교육과정의 교과목 구성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한국학 영역과 한국어 영역의 개별적인 과목들은 모두 통번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통번역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에 기여해야 한다(이민우, 2012:246)고 제시하였다. 한-중 언어쌍 통번역 학습자의 경우는 KFL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완전히 능통하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통번역 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추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제 이미 체계가 갖춰진 한국 통번역대학원의 교과목 구성을 살펴보면 역시 언어숙달 과목은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KFL 통번역 교육과정에 <한국어 숙달> 교과목은 통번역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한 과목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통번역 교육 분야의 교수설계에 대해서 Kelly(2005)는 사회, 시장, 교육기관, 학문적 요구를 고려한 교수설계 모델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Kelly(2005)의 모델이 교육기관 차원부터 한 교과목 차원까지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라 학습자의 역량과 요구를 파악하는 단계가 한 교과목을 설계하는 과정에 필수한 일환이다. 본고에서 교과목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분석은 Kelly(2005)의 모델 중에서 3)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요구 분석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왕철(2021), 유양(2022)은 중국 한·중 MTI과정의 입학생들이 B언어로서의 한국어 실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학습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의 개설에 앞서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할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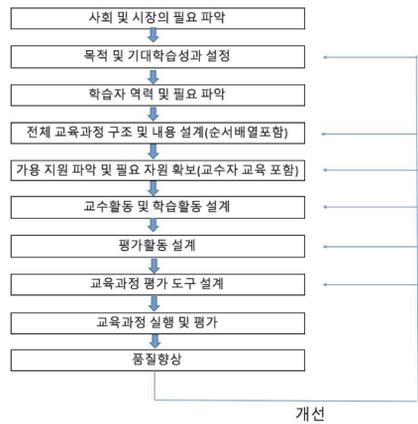


그림 1. Kelly(2005) 번역교육과정 개발 모델 (왕철, 2021: 72 참조)

요가 보인다. Clark(1998)에 따르면 요구 분석은 목표대상, 과제 또는 내용, 맥락 또는 교육 환경에 대한 분석인데, 다시 말해서 ‘누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언제, 어디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김명광 2019: 208-209). Nunan(1988)에서는 요구 분석의 목적은 강좌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한 선택을 유도하는 것, 교육과정과 방법론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기대차를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 서로 간에 교수 기대와 학습 기대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KFL 통번역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요구분석은 <한국어 숙달> 교과목의 개설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 2.3.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의 이론적 배경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가 규정한 언어분류표준에 따르면 통역사의 언어에는 A, B, C의 3개 언어가 있는데 A언어는 통역사의 제1언어로서 실제로 통역사의 모어이고 B언어는 통역사가 완전한 지식을 갖고는 있지만 모어가 아닌 언어이며 C언어는 통역사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는 언어다. A, B언어는 통역사의 능동 언어로서 통역 언어라고도 한다. C언어는 수동적인 언어라서 통역언어로서는 부적합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KFL 학습자의 경우는 중국어가 A언어에 해당하고 한국어가 B언어에 해당한다.

B언어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한없이 ‘near-native’에 가까운 능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길영숙, 2006:22). 김보애(2022)에 따르면 원어민에 가까운 외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정확하고도 유창한 언어 구사능력이 요구된다고 제시하였다. 한국어가 B언어일 경우도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 제시된 바가 없지만 일본어가 B언어일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논의한 길영숙(2006)을 참고하여 몇 가지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음성 측면에 한국어의 발음과 억양을 이해하고 구사 가능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둘째, 어휘 측면에 전문용어나 많이 쓰는 표현, 언어 등을 많이 알아야 한다. 김대진(2002)에 따르면 예비통역사들은 수많은 어휘를 언제나 출력 가능한(retrievable) 형태로 저장해 놓아야 한다. 셋째, 문법 측면은 중국어와 한국어가 문장구조가 매우 다르므로 한국어의 문법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

넷째, 화용적인 측면에 문장 안에 나타나는 낱말을 하나하나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담화 맥락에서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음성, 어휘, 문법과 화용의 측면으로 통번역의 B언어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 기준은 또한 통번역 B언어 숙달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고효정(2016)에서 통번역을 위한 언어적 지식 영역에서 발음, 형태, 통사, 의미, 담화 상황 및 맥락 이해, 통역의 경우 의사소통 상황, 맥락 이해, 번역의 경우에는 텍스트 유형, 장르, 구조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임형재·송은정(2015)에서는 ‘분석(이해)-전이(언어 전환)-재구성(표현)’이라는 번역 과정 모형을 토대로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1)

이외에 Gile(1995)은 통번역에서 요구되는 ‘언어 지식’의 핵심은 언어 지식의 가용성이라고 한다. 언어 가용성은 숙어와 전문용어를 포함하는 어휘를 비롯하여 문법, 문체, 화용 그리고 기타 언어 규칙에 관한 지식을 적시적소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언어 가용성은 발화를 위한 언어 가용성과 이해를 위한 언어 가용성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전문 통번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화를 위한 언어 가용성과 이해를 위한 언어 가용성을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통번역 과정에 정보처리 역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통번역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중력 모델을 사용하여 언어 가용성과 통번역 간에 관계를 아래 [그림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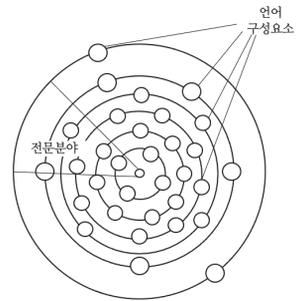


그림 2. 언어지식 가용성에 대한 중력 모델(Gile, 2021: 395 참조)

언어지식 가용성에 대한 중력 모델은 한 개인이 특정 시점에 특정 상황과 관련

1) 임형재, 송은정(2015)에서 제시한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 내용

한국어 통번역능력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한국어 분석 능력	다양한 담화/텍스트 듣기 및 읽기 연습 통번역 분야와 한국 문화적 배경 지식 학습
한국어 전이 능력	언어 전환에 대한 통번역 기초 이론 지식 학습 실제 언어 전환 훈련 대조언어학적 한국어 문법 체계 학습
한국어 재구성 능력	다양한 담화/텍스트 말하기 및 쓰기 연습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의 한국어 규정 학습 정확한 발음, 억양, 언어예절 통번역 분야별 전문 어휘 및 내용 학습

하여 보유한 언어 지식을 도식화한 모델이다. 모델에서 작은 원은 ‘언어 구성요소’라고 하는데 또는 LC(Language Constituents)라고도 부른다. LC는 어휘를 비롯한 많은 언어의 규칙 등 언어지식을 총체적으로 하는 개념이다. 여러 개의 LC가 분야별로 핵을 중심으로 궤도를 돌고 있는데 각 궤도에서 핵까지의 거리는 언어지식의 가용성을 상징한다. 즉, 궤도가 핵에 근접할수록 신속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중력 모델은 다음과 같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자극이 없는 경우에는 LC는 바깥쪽으로 밀려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자주 자극할수록 중심 쪽으로 이동하고 빈번하게 사용할수록 구심력 효과는 더 강하게 작용한다. 능동적으로 자극했을 때는 수동적으로 자극했을 때보다 구심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며 특정 LC에 대해 구심력이 작용하면 연관 LC에 대해서도 구심력이 동반적으로 작용한다.

중력 모델의 역동성에 따라 통번역을 수행하기 위한 언어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LC를 능동적으로 자주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통번역 교육에 적용할 때 중력 모델은 학습자 동기 부여, 언어능력과 통번역 능력의 관계 이해,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도입 부분에 중력 모델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이 통번역 능력과 언어가용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앞으로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번역 교육용 텍스트를 선정할 때 무엇보다도 숙달하고자 하는 LC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텍스트가 바람직하다. 즉, 중력 모델 궤도 가장 외곽에 위치한 LC에 대한 자극의 빈도가 높은 텍스트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상으로 통번역 B언어 능력 기준,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언어 가용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기본 틀로 <한국어 숙달> 교과목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조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음성, 어휘, 문법, 화용’ 네 가지로 일차적으로 분류하였고 언어 가용성 이론을 근거하여 ‘텍스트 선정 주제’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조사 범주를 아래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국내외 통번역 목적

표 1. <한국어 숙달> 요구 조사 범주 설정

교과목	요구 조사 범주
한국어 숙달	음성(예: 발음, 억양, 휴지, 소리크기, 발화속도 등)
	어휘(예: 전문용어, 어휘구분 등)
	문법(예: 시제, 조사, 피동과 사동 등)
	화용(예: 텍스트 분석, 공손성, 의사소통 상황 등)
	텍스트 선정 주제(예: 정치외교, 경제무역, 인문사회 등)

한국어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각 범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중국 한·중 MTI 과정 재학생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 3. 국내외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 현황

#### 3.1. 한국 통번역대학원의 한국어교육 현황

한국 통번역대학원 내에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모국어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숙달>과 같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통번역대학원 홈페이지에 대표적으로 제시된 교과목 개요는 [표2]와 같다.

표 2. 한국 통번역대학원 한국어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sup>2)</sup>

대학	구분	학점	교과시수	과목명	수강 학기	개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전공선택	2	2*16	한국어 숙달 I	1 학기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모국어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본 과목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숙달을 목표로 한다. I 과목에서는 말하기와 듣기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함으로써 주제 내용의 파악과 한국어 숙달은 물론 대중 연설 기술도 함께 습득하도록 한다.
				한국어 숙달 II	2 학기	II 과목에서는 읽기와 연계된 텍스트 분석 후 확장하여 쓰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할 때 따라 쓰기, 바꿔 쓰기, 요약에서부터 자유로운 글쓰기를 논리와 체계를 갖추어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A, B 언어 간 구어, 문어 텍스트의 구조, 의미, 화용적 특성을 비교 고찰한다.

2) 이 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http://gsti.ewha.ac.kr> <https://gsit.hufs.ac.kr> (2022.5.22 검색)

대학	구분	학점	교과시수	과목명	수강 학기	개요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선택	2	2*16	고급 한국어 I	1 학기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형별 텍스트 강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언어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연습을 통해 정확한 한국어 구사 능력과 난이도 높은 한국어 텍스트의 이해 능력을 함양한다.
				고급 한국어 II	2 학기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법을 포함한 어법의 정확한 구사 능력을 확인하고, 다채로운 표현과 설득력 있는 글쓰기, 말하기 방법을 습득한다.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통번역사 교육에 필요한 글쓰기와 말하기 전략을 구체화한다.
				고급 한국어 III	3 학기	고급한국어II에 이은 심화수업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기술 등 분야별 전문용어에 대해 많은 예문을 통하여 다채로운 표현을 익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한국 내 두 곳의 통번역대학원의 <한국어 숙달>과 <고급 한국어>와 같은 한국어교육 교과목을 살펴보면 비교적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고 학점과 주당 시수가 같다. 차이점은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학기에 걸쳐 개설이 되지만 이화여자대학교는 3학기에 걸쳐 개설되어 있다. 다음으로 과목 개요를 자세히 보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기술의 숙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I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발표, 토론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주제 내용 파악, 연설 기술 등 면에서 한국어를 숙달할 수 있다. II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텍스트 분석과 확장 쓰기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따라 쓰기, 바꿔 쓰기, 요약 등 글쓰기 전략, 구어와 문어의 텍스트 구조, 의미, 화용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이화

여자대학교의 경우는 <고급 한국어I>에서는 유형별 텍스트 강독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언어 기술의 구사 능력과 이해 능력을 키운다. <고급 한국어II>에서는 한국어 구사 능력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다양한 표현을 익히는 동시에 글쓰기와 말하기 전략을 배울 수 있다. <고급 한국어III>에서는 각 분야별 수준 높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용어를 다루고 다채로운 표현에 집중되어 있다. 두 대학원의 교과목 개요를 정리하면 교수 순서와 내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어의 구사 능력과 이해 능력을 함양하는 목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채로운 표현, 전문용어, 텍스트 분석, 주제 내용 파악, 말하기와 쓰기 전략, 의미, 화용적인 지식 등 교육내용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 3.2. 중국 한·중 MTI 과정 한국어교육 현황

중국 교육부 대학원 진학 공식 사이트(中國研究生招生信息網)에 따르면 2022년 봄 학기까지 중국 대학교에서 한·중 MTI 과정을 개설한 대학교는 총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어 통역’ 전공이 개설된 학교가 18개가 있고, ‘한국어 번역’ 전공이 열린 학교가 20개가 있다. 한·중 양국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중 MTI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교는 자신의 교육 자질에 따라 한·중 MTI 과정을 개설하고 대학원생의 모집 규모도 교육 자질<sup>3)</sup>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는 중국 정부의 교육 정책인 <중국 통번역석사과정 학위 석사생 교육 지도 방안>(이하 <방안>)으로 약칭)에 따라 각 대학교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 목표를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다음으로 2022년 기준으로 중국 한·중 MTI 과정을 개설한 대학교 중에 해당 과정 모집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를 위주로 한·중 MTI 과정 중 <한국어 숙달>과 관련된 교과목 현황에 대해 다음 [표3]과 같이 정리하였다.

3) 여기서 말하는 교육 자질은 학교에서 한·중 통번역에 대한 교육 설비, 교육 자원, 교원 수량, 교원 수준의 종합적인 역량을 의미한다.

표 3. 중국 세 개 대학교 한·중 MTI 과정에서 한국어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sup>4)</sup>

대학교	A대학교 ‘한국어 통역’ 전공			
교과목 분류	과목명	학점	시수	수강학기
전공 선택과목	비즈니스 한국어 읽기와 통번역	3	48	1학기
	표현과 스피치(한국어)	2	32	1학기
대학교	B대학교 ‘한국어 통역’ 및 ‘한국어 번역’ 전공			
교과목 분류	과목명	학점	시수	수강학기
전공 선택과목	한국어/중국어 글쓰기	2	32	2학기
대학교	C대학교 ‘한국어 통역’ 전공			
교과목 분류	과목명	학점	시수	수강학기
전공 선택과목	고급한국어 읽기와 쓰기	2	40	3학기
	공중 연설	2	40	3학기
	화용론과 통번역	2	40	3학기
대학교	C대학교 ‘한국어 번역’ 전공			
교과목 분류	과목명	학점	시수	수강학기
전공 선택과목	고급한국어 읽기와 쓰기	2	40	3학기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개 대학교의 한·중 MTI 과정 중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sup>5)</sup> 먼저 교과목에 포함된 언어기술이 전공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점이다. 교과목 설계에 들어가는 언어기술을 살펴보면 A대학교는 ‘한국어 통역’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말하기와 읽기만 다루고 듣기에 관한 교육내용이 부족하고 B대학교는 쓰기 기술만 강조하고 읽기, 듣기, 말하기 내용이 부족하며 C대학교의 ‘한국어 통역’ 전공은 읽기, 쓰기, 말하기 관련 교과목을 개설되어 있는데 통역 수행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듣기 기술 훈련과 관련 내용이 교과목에서 나

4) [표3]에서 제시한 교육과목에 관한 정보는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한·중 MTI 과정의 교육과정 개설현황을 참조해서 작성한 것이다.

5) 각 교과목의 개요와 같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목명과 개설학기, 학점, 교과시 분량의 측면으로만 분석하였다.

오지 않았다. 그리고 번역 전공에 <고급 한국어 읽기와 쓰기>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통역 전공에 <고급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것이 전공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통번역 과정에 듣기 능력이 상당한 중요한 역력임에도 불구하고 세 개 대학교에서 모두 이를 간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개설 학기가 적절하지 않은 문제점이다. C대학교 ‘한국어 통역’전공의 경우 전공 선택과목인 <고급 한국어 읽기와 쓰기>, <공중 연설>과 <화용론과 통번역>이 개설되어 있지만 이는 모두 3학기에 2학점/40교시의 분량으로 개설되어 있다. 언어 능력이 통번역 능력 향상의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숙달 관련된 과목들은 집중적으로 3학기에만 개설되는 점은 통번역 학습 과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공 선택과목이지만 학생들이 동시에 이 세 개 과목을 수강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으로 중국에서의 한·중 MTI 과정이 개설된 세 개 대표적인 대학교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중 MTI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의 교육내용에 포함된 언어기술이 전공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듣기 능력의 향상을 간과하였다. 즉, Gile가 말하는 발화를 위한 언어 가용성과 이해를 위한 언어 가용성을 균형적으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다.

둘째, 한·중 MTI 과정에서 교과목의 학기 설정이 통번역의 학습단계와는 맞지 않으며 학습자의 실제 B언어 발달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중국 한·중 MTI 과정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 개설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논의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KFL 학습자의 요구에 착수하여 해당 과목을 개선할 필요가 보인다.

## 4.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 대한 학습자 요구

### 4.1. 조사 설계

#### 4.1.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중국 한·중 MTI 과정에서 KFL 학습자들이 통번역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 대한 인식과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데 목적

을 둔다. 조사 대상은 중국 한·중 MTI 과정에서의 KFL 교육 배경의 재학생들이다.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선 표집의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L1을 중국어로 제한하였고 L2 숙달도를 한국어능력시험(TOPIK)고급이나 전국조선어전공8급(TKM)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2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146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중에서 131개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유효 참여자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설문조사 참여자 기본 정보**

구분	세부 항목	수(명)	비율(%)
성별	남	22	16.04%
	여	109	83.96%
연령	25세 이하	66	50.38%
	26-30세	56	42.75%
	31-35세	7	5.34%
	36세 이상	2	1.5%
입학 전 한국어 학습 경력	학부 때 한국어 전공	118	90.08%
	국내외 언어교육기관	2	1.5%
	학원	4	3.1%
	독학	7	5.34%
	기타	0	0
세부 전공	통역	93	71%
	번역	38	29%
한국어 능력	TOPIK 고급	126	96.2%
	전국조선어전공8급시험TKM	53	40.5%

#### 4.1.2. 조사 내용

제2장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그리고 제3장에서 살펴본 한국 통번역대학원에서 KFL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을 참고하여 다음 [표5]와 같은 조사 내용을 도출하였다.

표 5.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 대한 학습자 요구 조사 내용6)

조사 내용 범주	세부 사항	
기본 정보	민족, 모국어, 성별, 연령, 한국어 능력, 입학 전 한국어 학습 경력, 세부 전공, 통번역을 배우는 목적	
학습자 인식	필요성, 개설 학기, 개설 방식	
교육내용	음성	발음, 억양, 휴지, 소리크기, 발화속도
	어휘	형태론 기초 지식, 존경어, 겸양어, 수사, 의성의태어, 전문용어, 어휘 구분 등
	문법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시제, 조사, 연결어미, 존대법, 부정법, 피동과 사동, 직접인용과 간접인용, 문장 구조 등
	회용	문어와 구어의 구분, 한국어 논리 전개, 응집성, 응결장치, 담 화표지, 장르별 담화와 텍스트 분석, 언어예절, 공손성, 정형적인 표현,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전략, 커뮤니케이션 이해
	텍스트 장르	연설문, 강연, 기사, 칼럼, 학술논문, 보고서, 계약서, 법률 문서, 이력서, 자기소개, 만화, 웹툰,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인터뷰, 광고, 홍보문, 관광 안내문, 초대장, 행사 안내, MC 진행 멘트, 사용 설명서, 교과서, 서신, 문학 작품, 블로그, 유튜브 브 토크 브이로그 영상, 만찬회 등
	텍스트 주제	정치외교, 국제협력, 경제무역, 문학예술, 문화관광, 과학기술, 교육지원, 환경보호, 의료보건, 스포츠, 인문사회, 법률법규 등

본 설문지 문항은 3가지 측면에서 개발했는데 첫째는 학습자들의 기본 정보이고 둘째는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며 셋째는 <한국어 숙달> 교과목의 교육내용에 대한 문항들이다. 구체적으로 <표5>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은 자신의 통번역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한국어 숙달> 과목에서 다루면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7)

- 6) 조사 내용은 고효정(2016), 임형재, 송은정(2015)를 참조하였다.  
 7) 설문지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

(16) 한중-중한 통번역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통번역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숙달> 과목을 개설하자면 아래 ‘한국어 어휘’에 관한 지식은 이 수업에서 배우고 싶거나 강화하고 싶은가요? 귀하의 전공 방향과 학습 요구를 결합해서 아래 내용의 필요성을 판단하세요. (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2점: 필요하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필요하다; 5점: 매우 필요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성법, 파생법 등 형태론 지식					
존경어, 겸양어					
의성의태어					
전문용어					
수사					

### 4.1.3. 조사 진행 절차

설문지는 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중국 설문조사 사이트 ‘問券星’<sup>8)</sup>를 활용하여 2022년 6월 10일-12일에 예비조사<sup>8)</sup>를 진행하였고 2022년 7월 28일-31일에 본조사<sup>9)</sup>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중국 한·중 MTI 과정 KFL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지 문항은 중국어로 작성하였다. 설문 문항 1차 작성하고 수정한 다음 25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2차 수정하고 본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에서의 131개의 유효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학습자 요구분석 자료를 수집한 다음 조사 결과를 더욱 직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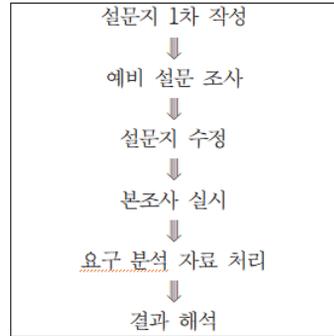


그림 3. 조사 진행 절차

## 4.2. 조사 결과 분석 및 논의

### 4.2.1. 한·중 통번역을 배우는 목적

표 6. 한·중 통번역을 배우는 목적

한·중 통번역을 배우는 목적(복수 응답 허용)	수(명)	비율(%)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79	60.31%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77	58.78%
전문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	66	50.38%
외교관 등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31	23.66%
나중에 박사 진학하기 위해서	9	6.87%
기타	8	6.11%

중국 한·중 MTI 과정의 재학생인 KFL 학습자를 대상으로 통번역을 배우는 목적을 조사하는 결과는 위 [표6]과 같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목적은 ‘회사

8) 예비조사 설문지 링크: <https://www.wjx.cn/vj/Ot8AibF.aspx>

9) 본조사 설문지 링크: <https://www.wjx.cn/vm/PQegcrH.aspx>

에 취직하기 위해서’(60.31%)이며 이어서는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58.78%)와 ‘전문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50.38%)이다. 취직 목적이 가장 많은 이유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 통번역사보다 ‘한국어 능력 향상’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보이는 것은 고효정(2015)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여 중국 한·중 MTI과정에 재학중인 KFL 학습자가 한국어 실력 향상에 대한 높은 요구를 확인하였다.

#### 4.2.2. <한국어 속달> 교과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표 7. <한국어 속달> 개설 필요성

<한국어 속달>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수(명)	비율(%)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
필요하지 않다	2	1.5%
보통이다	18	13.7%
필요하다	64	48.9%
매우 필요하다	47	35.9%
합계	131	100%
평균치	4.19	

표 8. <한국어 속달> 개설 학기(복수 응답)

<한국어 속달>과목의 개설 학기?	수(명)	비율(%)
1학기	101	77.1%
2학기	72	55%
3학기	23	17.56%
4학기	12	9.16%
기타	0	0

한·중 MTI 과정에서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과목인 <한국어 속달> 수업에 대한 개설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국어 속달> 교과목의 개설 요구 평균치는 4.1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과목 개설 학기는 ‘1학기’를 선택한 학습자가 101명(77.1%)이 가장 많고, 이어서 ‘2학기’를 요구하는 학습자가 72명(55%)이 있다. 이는 통번역 교육과정에서 초반부터 통번역 목적 <한국어 속달> 교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 4.2.3. <한국어 속달> 교과목의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

한·중 MTI 과정에 통번역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속달> 교과목의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음성’, ‘어휘’, ‘문법’, ‘화용’, ‘텍스트 장르’, ‘텍스트 주제’라는 6가지 측면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표 9. 음성에 대한 학습자 요구

음성에 관한 교육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치 = 3.76
억양	4(3.1%)	8(6.1%)	23(17.6%)	52(39.7%)	44(33.6%)	3.95
발음(음운 변화, 받침, 된소리 등)	4(3.1%)	9(6.9%)	27(20.6%)	44(33.6%)	47(35.7%)	3.92
휴지	5(3.8%)	7(5.3%)	29(22.1%)	56(42.7%)	34(26.0%)	3.82
발화 속도	4(3.1%)	8(6.1%)	35(26.7%)	54(41.2%)	30(22.9%)	3.75
소리 크기	8(6.1%)	14(10.7%)	50(38.2%)	40(30.5%)	19(14.5%)	3.37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 교육내용의 ‘음성’ 측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는 위의 [표9]로 확인할 수 있다. 음성에 대한 평균 요구 수준은 3.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억양’(3.95)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9.7%의 학습자가 ‘필요하다’로 응답했고 33.6%의 학습자가 ‘매우 필요하다’로 응답하였다. 그 외에 ‘발음’(3.92), ‘휴지’(3.82)에 대한 요구가 ‘음성’ 전체의 평균치(3.76)를 넘었고 ‘발화 속도’(3.75)와 ‘소리 크기’(3.37)만 평균치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음성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억양, 발음, 휴지에 대해 높은 요구 수준을 보였다.

표 10. 어휘에 대한 학습자 요구

어휘에 관한 교육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치 =4.00
전문용어	0(0%)	2(1.5%)	13(9.9%)	47(35.9%)	69(52.7%)	4.40
정도 차이가 있는 어휘의 구분	1(0.8%)	2(1.5%)	17(13.0%)	61(46.6%)	50(38.2%)	4.20
유사 의미 어휘의 구분	0(0%)	6(4.6%)	21(16.0%)	62(47.3%)	42(32.1%)	4.07
존경어, 겸양어	0(0%)	7(5.3%)	20(15.3%)	63(48.1%)	41(31.3%)	4.05
파생, 합성 등 형태론 지식	1(0.8%)	4(3.1%)	32(24.4%)	61(46.6%)	33(25.2%)	3.92
의성의태어	1(0.8%)	5(3.8%)	31(23.7%)	61(46.6%)	33(25.2%)	3.92
수사	1(0.8%)	7(5.3%)	31(23.7%)	56(42.7%)	36(27.5%)	3.91
중국어와 형태가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	1(0.8%)	7(5.3%)	31(23.7%)	61(46.6%)	31(23.7%)	3.87
한자어와 고유어의 구분	4(3.1%)	10(7.6%)	42(32.1%)	44(33.6%)	31(23.7%)	3.67

[표10]은 KFL 학습자들이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의 교육내용에서 ‘어휘’ 지식에 대한 요구이다. 어휘에 대한 평균 요구 수준은 4.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휘’ 지식 중 ‘전문용어’에 대한 학습자 요구가 4.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응답한 학습자가 전체의 88.6%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정도 차이가 있는 어휘 구분’(4.20) 그리고 ‘유사 의미 어휘의 구분’(4.07), 그리고 ‘존경어, 겸양어’(4.05)가 어휘 전체의 평균치(4.00)를 초과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를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파생, 합성 등 형태론 지식’(3.92)과 ‘의성의태어’(3.92), ‘수사’(3.91), ‘중국어와 형태가 같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3.87), ‘한자어와 고유어의 구분’(3.67)의 순위로 학습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1. 문법에 대한 학습자 요구

문법에 관한 교육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치 3.82
존대법	2(1.5%)	5(3.8%)	25(19.1%)	55(42.0%)	44(33.6%)	4.02
외래어 표기법	0(0%)	5(3.8%)	30(22.9%)	61(46.6%)	35(26.7%)	3.96
문장구조(주술호응, 단문과 복문)	0(0%)	12(9.2%)	25(19.1%)	51(38.9%)	43(32.8%)	3.95
피동과 사동	1(0.8%)	13(9.9%)	22(16.8%)	54(41.2%)	41(31.3%)	3.92
시제	2(1.5%)	10(7.6%)	34(26.0%)	46(35.1%)	39(29.8%)	3.84
조사	2(1.5%)	11(8.4%)	34(26.0%)	43(32.8%)	41(31.3%)	3.84
맞춤법, 문장 부호	3(2.3%)	9(6.9%)	31(23.7%)	55(42.0%)	33(25.2%)	3.81
직접 인용 및 간접 인용	1(0.8%)	17(13.0%)	33(25.2%)	48(36.6%)	32(24.4%)	3.71
연결어미	1(0.8%)	19(14.5%)	35(26.7%)	40(30.5%)	36(27.5%)	3.69
부정법	4(3.1%)	22(16.8%)	40(30.5%)	38(29.0%)	27(20.6%)	3.47

[표11]은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서 한국어 ‘문법’ 지식에 대한 학습자 요구 조사 결과이다. 문법에 관한 평균 요구 수준은 3.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KFL 학습자들이 ‘존대법’(4.02)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외래어 표기법’(3.96) ‘문장구조(주술호응, 단문과 복문)’(3.95), ‘피동과 사동’(3.92), ‘시제’(3.84), ‘조사’(3.84)순이다. 그 중에서 ‘문장구조’(주술호응, 단문과 복문)’에 대

한 학습 요구와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피동과 사동’에 대한 학습 요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응답한 학습자 수가 ‘71.7%’를 넘었으며 다른 문법 교육내용보다 높다. 문법 지식 중에서 ‘맞춤법과 문장 부호’(3.81)와 ‘직접 인용 및 간접 인용’(3.71), ‘연결어미’(3.69), 그리고 ‘부정법’(3.47)에 대한 요구가 문법 지식 전체 평균치인 3.8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화용에 대한 학습자 요구**

화용에 관한 교육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치 =4.26
한국어 논리적인 전개 방식	1(0.8%)	0(0%)	5(3.8%)	46(35.1%)	79(60.3%)	4.54
장르별 담화와 텍스트 분석	0(0%)	3(2.3%)	5(3.8%)	58(44.3%)	65(49.6%)	4.41
전형적인 표현	0(0%)	2(1.5%)	10(7.6%)	56(42.7%)	63(48.1%)	4.37
담화 예절	0(0%)	3(2.3%)	8(6.1%)	59(45.0%)	61(46.6%)	4.36
말하기 전략(연설 기술 등)	0(0%)	3(2.3%)	11(8.4%)	55(42.0%)	62(47.3%)	4.34
커뮤니케이션 이해	2(1.5%)	3(2.3%)	12(9.2%)	51(38.9%)	63(48.1%)	4.30
글쓰기 전략(비꾸쓰기, 요약 등)	0(0%)	1(0.8%)	12(9.2%)	67(51.1%)	51(38.9%)	4.28
공손성 실현	0(0%)	1(0.8%)	17(13.0%)	57(43.5%)	56(42.7%)	4.28
문어와 구어의 구분	0(0%)	2(1.5%)	17(13.0%)	66(50.4%)	46(35.1%)	4.19
듣기 전략(핵심어 찾기 등)	2(1.5%)	3(2.3%)	20(15.3%)	54(41.2%)	52(39.7%)	4.15
응집성, 응결장치, 담화표지	2(1.5%)	8(6.1%)	27(20.6%)	47(35.9%)	47(35.9%)	3.98
읽기 전략(주제 파악 등)	1(0.8%)	6(4.6%)	30(22.9%)	55(42.0%)	39(29.8%)	3.95

<한국어 숙달> 교육내용 중 ‘화용’ 측면에 대한 학습 요구는 [표12]와 같다. 화용에 관한 평균 요구 수준은 4.26인 것으로 나타났고 KFL 학습자들은 통번역 목적 한국어에 관한 화용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한국어의 논리적인 전개 방식’(4.54)과 ‘장르별 담화와 텍스트 분석’(4.41)에 대한 학습 요구가 가장 높고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선택하는 학습자는 각각 95.4%와 93.9%에 도달하였다. 이는 KFL 학습자들은 원어민다운 서술 능력과 한국어 텍스트 장르 특징에 대한 지식에 대한 높은 학습 요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는 평균치(4.26)보다 높은 교육내용은 ‘전형적인 표현’(4.37), ‘담화예절’(4.36), ‘말하기 전략(연설 기술 등)’(4.34), ‘커뮤니케이션 이해’(4.30), ‘공손성 실현’(4.28)과 ‘글쓰기

전략(바뀌 쓰기, 요약 등)(4.28)의 순이다. 하지만 ‘문어와 구어의 구분’(4.19), ‘듣기 전략’(4.15), ‘응집성, 응결장치, 담화표지’(3.98), ‘읽기 전략’(3.95)에 대한 요구가 평균치(4.2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화용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논리적인 전개 방식, 장르별 담화와 텍스트 분석, 전형적인 표현, 담화예절, 말하기 전략, 커뮤니케이션 이해, 공손성 실현, 글쓰기 전략에 대해 높은 요구 수준을 보였다.

이상으로 KFL 학습자들은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서 한국어의 음성, 어휘, 문법, 화용 네 가지 측면의 세부항목들에 대한 요구 결과이다. 학습자들이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 요구는 각 항목의 전체 평균치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표 13. 음성, 어휘, 문법, 화용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자 요구**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의 지식 분야	화용	어휘	문법	음성
평균치	4.26	4.00	3.98	3.76

위의 [표13]에서 제시한 듯이 <한국어 숙달> 교과목의 네 가지 분야의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 요구는 화용(4.26)>어휘(4.00)>문법(3.98)>음성(3.76)의 순이다. 이는 임형재·송은정(2015)에서 텍스트 종류별, 기능별 주요 표현 학습(76%), 발음·역양 연습(75%), 문법 체계(69%)의 결과와 조금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고에서 조사내용의 세부화와 조사대상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한·중 MTI 과정에 재학중인 KFL 학습자들이 화용에 대한 학습 요구가 높은 이유는 통번역 현장에서 화용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14. 텍스트 장르에 대한 학습자 요구**

관심 있는 텍스트 장르(복수 응답 허용)	수(명)	비율(%)
1 연설문, 강연	117	89.31%
2 기사, 칼럼	114	87.02%
3 학술논문, 보고서	68	51.91%
4 계약서, 법률 문서	67	51.15%
5 인터뷰	63	48.09%
6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61	46.56%
7 MC 진행 멘트	51	38.93%
8 초대장, 행사 안내문	46	35.11%

9	광고, 홍보문	42	32.06%
10	이력서, 자기소개	41	31.30%
11	소설, 수필 등 문학 작품	36	27.48%
12	유튜브, 틱톡 영상 등	29	22.14%
13	블로그 등 SNS 글, 댓글 등	27	20.61%
14	만화, 웹툰	25	19.08%
15	교과서	22	16.79%
16	만찬회	18	13.74%
17	관광 안내문	15	11.45%
18	서신	13	9.92%
19	사용 설명서	10	7.63%
20	기타	0	0%

[표14]는 한·중 MTI 과정 KFL 학습자들이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서 텍스트 장르에 대한 요구이다. Gile의 언어지식 가용성 중력 모델의 역동성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다양한 텍스트를 접하고 특히 중력 모델 바깥쪽에 있는 LC를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자들은 ‘연설문, 강연’(89.31%)과 ‘기사와 칼럼’(87.02%)에 대해 가장 높은 요구를 보였다. 그리고 응답률이 가장 높은 일곱 가지 장르 유형은 ‘연설문, 강연’(89.31%), ‘기사, 칼럼’(87.02%), ‘학술논문, 보고서’(51.91%), ‘계약서, 법률 문서’(51.15%), ‘인터뷰’(48.09%),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46.56%), ‘MC 진행 멘트’(38.93%)이었다. ‘MC 진행 멘트’가 의외로 요구가 높았다. 이는 한중 양국간 문화 교류 활동과 행사가 많이 개최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15. 텍스트 주제에 대한 학습자 요구

텍스트 주제 (복수 응답)			텍스트 주제 (복수 응답)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수(명)	비율(%)
109	83.21%	7	36.64%	48	36.64%
95	72.52%	8	23.66%	31	23.66%
68	51.91%	9	23.66%	31	23.66%
59	45.04%	10	21.37%	28	21.37%
53	40.46%	11	0%	0	0%
50	38.17%				

[표15]는 한·중 MTI 과정의 KFL 학습자들이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과목에서 텍스트 주제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이다. 그중에서 ‘경제무역(83.21%)’과 ‘정치외교(72.52%)’에 대한 응답률이 다른 주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인문사회(51.91%)’, ‘국제협력(45.04%)’, ‘과학기술(40.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국제협력’과 ‘과학기술’에 대해서 요구가 높았던 부분은 고효정(2016)의 연구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지금 통번역 시장 수요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요구도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 조사한 각 분야의 내용에서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초과한 내용을 순서<sup>10)</sup>대로 다음 [표16]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6. 학습자 요구가 높은 <한국어 숙달> 교육내용**

교육 내용 범주	학습자 요구가 높은 교육내용
화용(평균=4.26)	한국어 논리적인 전개 방식; 장르별 담화와 텍스트 분석; 전형적인 표현; 담화예절; 말하기 전략, 커뮤니케이션 이해; 공손성 실현; 글쓰기 전략.
어휘(평균=4.00)	전문용어; 정도 차이가 있는 어휘 구분; 유사 의미가 있는 어휘 구분; 존경어, 겸양어.
문법(평균=3.98)	존대법; 외래어 표기법; 문장구조; 피동과 사동; 시제; 조사.
음성(평균=3.76)	억양; 발음; 휴지.
텍스트 장르	연설문, 강연, 기사, 칼럼, 학술논문, 보고서, 계약서, 법률 문서, 인터뷰,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MC 진행 멘트
텍스트 주제	경제무역, 정치외교, 인문사회, 국제협력, 과학기술

[표16]은 학습자들이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언어지식에 관한 내용과 교과목에서 활용될 텍스트의 주제와 장르에 대한 요구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화용적인 언어지식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고 이어서 어휘>문법>발음의 순이다. ‘연설문, 강연, 기사, 칼럼, 학술논문, 보고서, 계약서, 법률 문서, 인터뷰,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MC 진행 멘트’ 등 텍스트 장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무역, 정치외교, 인문사회, 국제협력, 과학기술’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번역 목적 <한국어

10) 여기서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초과하면 학습자 요구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어 숙달>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학습자 요구를 참고하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효정, 2016: 141).

#### 4.2.4.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과목 설계에 대한 제언

앞서 분석된 한국과 중국 한·중 MTI 정에서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 현황과 본고에서 조사된 학습자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 개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의 개설 방식에 대해서는 통번역 교육의 초반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계별로 나뉘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요구조사에 학습자들이 희망하는 개설학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한국 내 통번역대학원의 교과목 개설 방식과도 일치해 본다.

둘째, 중국 한·중 MTI 과정 KFL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한국어 숙달> 교과목의 설계를 위해서 면밀한 학습자 요구분석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위에도출된 [표16]의 결과는 한국어 언어지식과 텍스트 주제와 장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직관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판단된다. 학습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통번역을 수행할 때 B언어의 어떤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따라서 KFL 학습자를 위한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학습자의 요구 분석 결과는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이자 맞춤형 교수·학습 활동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학습자의 요구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희망하는 내용 이외에 교수자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효정(2016)은 교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어휘 측면에서 ‘경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이와 관련하여 화용적 차원에서는 ‘존대법’의 정확한 사용, 그리고 ‘다양한 공식적인 상황’에 맞는 표현 사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 표현능력 향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내용도 역시 실제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지만 교육내용의 개발과 선정에 있어서 교수자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 5. 결론

본고는 중국 한·중 MTI 과정에서 KFL 학습자를 위한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파악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번역 과정에서 B언어 향상을 위한 언어 요소를 분석하고 한국과 중국의 대학원의 통번역 교육과정에서 한국어교육 현황을 고찰하여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에 지식을 ‘음성, 어휘, 문법, 화용, 다양한 텍스트 장르와 주제’ 5가지 범주로 도출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통번역에서 필요한 B언어로서의 한국어 지식을 세분화하여 설문지를 설계하고 중국 한·중 MTI 과정에 재학 중인 KFL 학습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한·중 MTI 과정과 한국 통번역대학원에서 B언어인 한국어 능력 향상에 관한 교육 현황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발화를 위한 언어 가용성과 이해를 위한 언어 가용성을 균형적으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문제점과 개설 학기가 통번역 교육 과정과 부합하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한국 통번역대학원 B언어인 한국어 능력 향상에 관한 교육 현황은 비교적 체계가 갖춰져 있고 한국어의 구사 능력과 이해 능력을 함양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다채로운 표현, 전문용어, 텍스트 분석, 주제 내용 파악, 말하기와 쓰기 전략, 의미, 화용적인 지식 등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중국 한·중 MTI 과정 KFL 학습자들은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 대한 인식은 절대다수의 학습자들이 해당 과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개설 학기에 대해서는 1학기, 2학기에 개설하면 좋겠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셋째, 중국 한·중 MTI 과정 KFL 학습자들은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 대한 요구는 우선 한국어 ‘화용’적인 지식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음성, 어휘, 문법’의 순이다. ‘연설문, 강연, 기사, 칼럼, 학술논문, 보고서, 계약서, 법률 문서, 인터뷰,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MC 진행 멘트’ 등 텍스트 장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무역, 정치외교, 인문사회, 국제협력, 과학기술’ 등 텍스트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통번역대학원에서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 현황과 학습자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중국 한·중 MTI 과정에서 <한국어 숙달> 교과목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고는 통역과 번역 전공, 개설

학기, 강의 목표를 구별해서 학습자들의 요구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수자의 인식과 의견을 담아내지 못했다. 또한 중국 한·중 MTI 전체적인 교육과정 특성과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 내용이 세부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연구대상을 교수자와 학습자로 확대하고 연구조사를 정례화하여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내용을 정교하게 마련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향후 중국 한·중 MTI 교육과정의 <한국어 숙달> 교과목 설계를 위해 좀 더 심화된 연구와 전면적인 조사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암. (2009). 통역번역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고효정. (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공수. (2019). 「중국 2005년~2017년 통역학 연구 동향 고찰」. 『T&I Review』 9: 153-174.
- 길영숙. (2006).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언어능력에 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10(1): 17-28.
- 김대진. (2003). 「통역의 인지 과정과 이중 언어 습득의 이해를 통한 통역 교육 방안 연구」. 『통역과 번역』 5(2): 53-77.
- 김명광. (2019). 『외국어로서의한국어 교육과정론』. 서울: 소통.
- 김보애. (2022). 「준비된 말하기 연습을 통한 발성휴지 개선효과 고찰」. 『T&I Review』 12(1): 7-28.
- 유양. (2020). 중국 내 한중 MTI 교육과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성초림. (2014). 「국내 통역번역대학원의 한국어교육-관찰과 제언」. 『통번역학연구』 18(3): 361-376.
- 손지봉. (2019). 「국내 통번역교육 교육내용의 현황과 의미」. 『번역학연구』 20(4): 115-140.
- 심지영. (2021).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전공’ 설계 사례 연구」. 『인문사회21』 12(2): 1637-1650.
- 왕침. (2021). 중국 내 한중통역 교육과정 개선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창숙. (2022). 「통번역 전공생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 <한국어 숙달> 교과의 설계 및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29(1): 117-137.
- 이민우. (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과정 개발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외』 23(4): 233-259.
- 임형재. (2016).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기초 연구—중·일 학습자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중한언어문화연구』 10: 125-155.
- 임형재·송은정. (2015).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중국어 화자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현황과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2: 303-333.
- 최권진. (2006). 「한국어교육과 통역」. 『국제한국어교육학과 학술대회논문집』: 417-437.
- Gile, D. 이미경 역. (2021). 『통번역 교육을 위한 기본 개념과 모델』. 서울: HUINE.
- Nunan. (1988a). *The Learner-Centred Curricul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CTE. (2003). Building a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In Alves, F. (ed.) *Triangulation Translation: Perspectives in Process-Oriented Research*. Amsterdam: John Benjamins Pub., 43-66.

[인터넷 자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 (2022). <http://gsti.ewha.ac.kr> (2022.5.22. 검색).

이화여자대학교 홈페이지. (2022). <https://gsit.hufs.ac.kr> (2022.5.22. 검색).

中國研究生招生信息網. (2022). 중국 대학원 석사 학과 검색창 및 전공 시험 범주 검색창.  
<https://yz.chsi.com.cn/zsml/queryAction.do> (2022.6.10. 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31 October 2022; revised on 30 November 2022; and accepted on 20 December 2022.

---

***Author's email address***

wuzy1997@ewhain.net

cxh951228@gmail.com

***About the author***

Ziying Wu (first author) is a PhD student at GSIS of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interpreting and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Xuehui Cao (corresponding author) is a PhD student at Education Colleg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interpreting and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 저작권과 번역

이상모\* · 김근우\*\*

**Sangmo Lee and Keunwoo Kim (2022). Copyright and Translation.** *With the advent of translation systems that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discuss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lation are taking place more actively than ever before. In cases such as the Bible, there is sometimes a need to re-translate a text despite the existence of prior translations based on the original text, which results in follow-up translations conducted by other translators. According to the current copyright law, translations are recognized as a type of independent secondary 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lations and copyrights from a legal perspective. In particular, an in-depth review is required on how creativity, the element that is protected by copyright, is applied to translated work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lated works and secondary works recognized by current copyright law, analyzes the criteria applicable to translated works, and examines such applicability through the analysis of state judgments made in relation to such works.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Keywords: translation, work, copyright, creativity, infringement**

**주제어: 번역, 저작물, 저작권, 창작성, 침해**

---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장 (제1저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강사 (교신저자)

## 1. 들어가면서

번역가들은 번역을 단순히 원문의 정확한 전달이 아닌 새로운 창작 행위로 보는 시각이 있다. 따라서 원문은 동일하더라도 그러한 번역의 결과물인 번역물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원문을 바탕으로 진행된 번역물(1차적 번역물, 또는 선행 번역물)이 존재하지만, 동일한 원문에 대한 재번역의 필요성이 있어 다른 번역가가 다시 진행한 번역물(2차적 번역물 또는 후행 번역물)이 있을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성경은 다양한 버전의 번역물이 존재한다. 즉, 후행 번역물과 선행 번역물이 상당히 많은 부분 동일할 수 있다. 이는 후행 번역물이 선행 번역물을 참고하여 선행 번역물의 표현을 상당 부분 그대로 차용하고 사소한 변경만 가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후행 번역물과 선행 번역물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번역을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선행 번역물에 대한 독자적인 보호가 인정되기 때문에, 후행 번역물이 창작적 표현을 차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번역물, 즉 번역저작물<sup>1)</sup>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번역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관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번역’의 저작물성과 보호 범위 및 침해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저작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번역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살펴보고(Ⅱ), 번역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창작성 기준(Ⅲ)과 보호 범위(Ⅳ) 및 일반 저작권(Ⅴ)으로 세분하여 일반적인 저작권법의 법리가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 2. 번역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 2.1. 번역저작물의 의의

저작권법상 ‘번역’(翻譯)이라는 용어는 2차적 저작물의 보호 규정에서 나타난

---

1) 본 논문에서는 번역물 역시 새로운 창작 행위가 더해졌다는 입장에서 ‘번역저작물’이라고 칭한다.

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sup>2)</sup>을 말한다. 여기서 번역이란 어떤 저작물을 체계가 다른 언어로 재표현하는 것<sup>3)</sup>을 말하는데, 한문(漢文)을 현대어로 옮기는 경우도 번역에 해당할 수 있다.<sup>4)</sup> 이처럼 원문을 번역하여 그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sup>5)</sup>

저작권법이 번역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이유는 번역이 원저작물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번역자가 원저작물의 내용과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번역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언어를 선택하고 문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창작과 동일한 정신적 산물로 보기 때문이다.<sup>6)</sup> 이와는 달리, “번안”(飜案)은 각색·영화화 등에 의해 원저작물의 내면적인 형식을 유지하면서 외면적인 표현을 달리한 것이다.<sup>7)</sup>

## 2.2. 번역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

번역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번역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과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sup>8)</sup>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되었다는 “종속성”이 있고,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실질적인 개변이 있더라도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 성립한다.<sup>9)</sup> 여기서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다”는 의미는 “원저작물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원저작물의 직접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이용도 포함한다. 요컨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여 다시 작성한 저작물 (3차적 저작물<sup>10)</sup>)을 작성한 경우에도 3차적

2) 저작권법 제5조.

3) 이해완, (2015). 『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박영사: 202; 中山信弘 지/윤선희 편저. (2008). 『저작권법』. 법문사: 115; 하용득(1988), 『저작권법』. 법령편찬보급회. 99.

4) 서울고등법원 1987. 8. 21. 선고 86나1846 판결.

5) 저작권법 제5조(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6) 하용득. (1988). 『저작권법』. 법령편찬보급회: 99-100.

7) 中山信弘 지/윤선희 편저. (2008). 『저작권법』. 법문사: 117.

8)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9)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sup>11)</sup>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 3. 번역저작물에 대한 창작성 기준의 적용가능성

#### 3.1. 저작권법과 창작성

일반 저작물의 창작성과 관련하여, 종래 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려며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sup>13)</sup>라고 보고 있다. 즉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정도를 벗어났다면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이와 달리한다. 즉,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다.<sup>14)</sup> 이는 일반 저작물의 창작성

---

10) 저작권법상 ‘3차적 저작물’이라는 용어는 없다. 하지만, 원문이 번역된 후, 기 번역물을 참고하여 또 다시 원문을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각 번역물간의 구분을 위하여 시간적 순 후에 따라 나중에 번역된 번역물은 편의상 “n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

11) 이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번역물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 대한 분석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물이 야기할 수 있는 저작권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12) 이해완. (2015). 『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박영사: 113;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1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4)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을 판단할 때 모방의 범위를 벗어남과 아울러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의 표현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sup>15)</sup> 요컨대, 저작물의 창작성은 남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았다는 것에 더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표현이 아닌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있어야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 3.2. 2차적 저작물과 창작성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여기서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는 일반 저작물의 창작성보다 더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sup>16)</sup>

이에 대해 법원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필요하다.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sup>17)</sup>라고 본다.

요컨대, 2차적 저작물로 창작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소한 수정이나 변경이 아닌 수정·증감의 정도가 새로운 창작성이 부기될 정도의 실질적 변경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반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서와는 다른 ‘사회적 통념’이라는 기준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 보아도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은 일반저작물보다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된다.

### 3.3. 관련 판결 분석

앞서 보았듯이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은 일반 저작물의 창작성보다 더 높은 정도의 창작성을 요구한다. 창작성은 저작물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판단하듯이, 번역 저작물도 번역저작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에 기인하여 그 창작성의 정

15) 이상모. (2021). 「기계번역을 활용한 법령번역의 실제와 과제」. 『T&I REVIEW』 11(1): 51.

16) 오승중. (2007). 『저작권법』. 박영사: 146-147; 이해완. (2015). 『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박영사: 206; 우성엽. (2008). 「2차적 저작물의 법률관계」. 『기술과 법』 4(5): 42.

17)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번역저작물도 기본적으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저작물의 창작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번역 저작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 저작물보다는 더 높은 정도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3.3.1.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관련

다음 판결은 번역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사례이다.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든 부분에 있는 것 같다.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은 경우에 따라서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번역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sup>18)</sup>

여기에서 법원은 번역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 4가지, 즉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와 어조 및 어감의 조절을 들고 있다.

### 3.3.2.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보호 요건 관련

다음 판결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보호 요건과 관련된 사례이다.

원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을 뿐이고 그 표현 형식에서 저작자 스스로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표현을 가미하거나 수정한 내용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sup>19)</sup>

---

18)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1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여기에서 법원은 ‘해당 번역저작물의 표현 형식에서 저작자 스스로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만한 구체적인 표현의 가미나 수정이 있는지’를 창작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 3.3.3.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의 유지와 관련

다음 판결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의 유지와 관련된 사례이다.

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 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 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sup>20)</sup>

여기에서 법원은 원저작물을 요약하여 번역한 요약물에 대한 창작성 여부를 다룬 것으로, 요약물이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 3.3.4.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이용행위의 범위 관련

다음 판결은 회복저작물<sup>21)</sup>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이용행위의 범위와 관련된 사례이다.

---

20)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21) “회복저작물”이란 1995년 개정 저작권법으로 소급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 외국인의 저작물을 말한다.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서 1995. 1. 1. 전에 작성된 것을 계속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게 되면 회복저작물의 저작자 보호가 형해화되거나 회복저작물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과 이를 이용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위 2차적 저작물을 수정·변경하면서 부가한 새로운 창작성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하여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 부칙 제4조 제3항이 규정하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sup>22)</sup>

여기에서 법원은 2차적 저작물인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에 있어서 그 새로운 창작성이 질적·양적인 모든 면에서의 상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 3.3.5. 원문이 동일한 복수 번역문에서 복제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방법 관련

다음 판결은 원문이 동일한 복수 번역문에 있어서 복제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방법과 관련된 사례이다.

복수의 번역문이 존재하는 경우 그 번역의 기초로 된 원문이 동일하면 그 내용이나 용어 자체가 부분적으로 동일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일방의 번역문이 다른 번역문을 복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라고 함은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저작물의 내용 및 형체를 충분히 추지할 수 있도록 재제되어 그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를 말하는데, 이러한 의거성 내지 동일성 여부는 구체적으로 원문의 번역에 임하는 기본적 태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성경의 번역작업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성경의 실제 내용에 있어 이전의 다른 성경의 오역된 부분이나 불분명한 부분을 수정하여 그 표현을 바꾸거나 그 뜻을 분명히 하고, 어려운 고어나 한자어 및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대 표준어로 쉽게 바꾸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수정을 가하는 등 신학적 측면이나 어문학적 측면에서 대폭적인 수정, 보완한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새로운 성경이 이전 성경에 상당 부분을 의거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 및 형체를 추지할 수 있도록 재제되어 그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새로운 성경 제작자의 정신적 노작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나름대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에 족하다.<sup>23)</sup>

---

2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

여기에서 법원은 복수의 번역저작물, 즉 하나의 원작에 대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후속적으로 번역이 행해진 경우, 후속 번역저작물이 먼저 번역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현재 번역저작권 침해의 대부분의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급심 판단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사건에서 창작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는, 번역작업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오역된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의 수정 및 표현의 변경, 어려운 고어나 한자어 및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대 표준어로의 변경, 현행 맞춤법의 변화에 따른 수정, 신학적 측면이나 어문학적 측면에서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을 들고 있다.

### 3.4. 소결

이상의 판결을 살펴볼 때, 번역저작물도 2차적 저작물의 하나로써 사회 통념상 누가 해도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번역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야 그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4)</sup> 따라서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창작성의 질적 측면 뿐만 아니라 양적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4. 번역저작물에 대한 보호범위의 적용가능성

### 4.1. 저작권법상 번역저작권의 보호범위

저작권법상 번역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지만 독립한 별개의 저작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번역저작자는 원작을 번역함으로써 해당 번역물에 대해 번역과 동시에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른 2차적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번역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더라도 그 저작권의

2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1. 5. 자 97카합2072 결정.

24) 번역 저작물에 있어서 원저작물에 대한 종속적 한계라 할 수 있는 원문의 충실성을 고려한다면 표현의 선택이 좁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정상조. (2006). 「번역저작물의 보호와 구제방법」. 『기술과 법』 2(6): 115.

보호범위는 번역자가 원저작물에 새로이 부가시킨 창작적 표현에만 한정된다.<sup>25)</sup> 판례도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든 부분”으로 그 보호범위를 한정하고 있다.<sup>26)</sup>

따라서 번역저작권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도 일반저작물의 창작성의 보호 정도와 마찬가지로 해당 번역의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즉 번역에 일상적인 용어가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특유하거나 고유의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은 직역한 것인지 아니면 의역인 것인지에 따라 그 보호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요컨대, 번역자의 특유하거나 고유한 표현의 수준 높은 의역부분은 양적으로 조금만 도용해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일상적인 용어로 구성된 직역부분은 그 보호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sup>27)</sup>

## 4.2. 번역저작물과 대상저작물간의 의거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 4.2.1. 의거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는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지만, 원저작물에 있어서 종속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원저작물에 “의거하여”<sup>28)</sup>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질적 유사성”이 있는지의 주관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sup>29)</sup>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

25)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2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27) Paul Goldstein, Copyright(Little, Brown and Co., 1996), Vol.2, at 8:2, Andre Lucas, Trait de la proprit  litteraire & artistique(Paris: Litec, 1994): 229; 정상조. (2006). 「번역저작물의 보호와 구제방법」. 『기술과 법』 2(6): 118에서 재인용.

28) 법원의 판결문에서 표현된 ‘의거관계’의 용어 대신에 ‘접근’이나 ‘접근 가능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9) 여기에서 피고의 저작물이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인지의 의거성 판단은 직접적으로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영역의 이용에서도 의거관계를 판단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원저작물을 보고 베낀 경우뿐만 아니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될 경우,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sup>30)</sup>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유사성이 외에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sup>31)</sup>

#### 4.2.2. 실질적 유사성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고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 부분만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sup>32)</sup> 법원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33)</sup> 이것은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만을 보

---

라 원고의 원저작물을 베낀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인 간접적인 이용의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오영준. (2007). 「번역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과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법』 창간호: 359; 이해완. (2015). 『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박영사: 1010.

30)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3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73509 판결.

32) 오영준. (2007). 「번역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과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법』 창간호: 359; 정상조. (2006). 「번역저작물의 보호와 구제방법」. 『기술과 법』 2(6): 120; 우성엽. (2008). 「2차적 저작물의 법률관계」. 『기술과 법』 4(5): 49.

33)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호하는 저작권법의 모방 금지권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양 저작물의 유사성의 형태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 (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과 부분적·문언적 유사성(fragmented literal similarity)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분적·문언적 유사성”<sup>34)</sup>의 경우는 원고의 작품 속에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문언적 표현이 복제된 경우에 해당함에 반하여,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은 피고가 원고의 작품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비문언적 표현을 복제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작품 사이에 비록 문장 대 문장으로 대응되는 유사성은 없어도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이다.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물의 “문언적 표현”뿐만 아니라 “문언적 표현”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양자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sup>35)</sup> 또한 문언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적인 상당성도 중요하지만 소량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질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36)</sup> 따라서 어문저작물의 경우 단 몇 개의 문장만을 인용하였더라도 해당 문장이 전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창작성의 정도나 문장의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sup>37)</sup>

### 4.3. 소결

번역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는 형태에 있어서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기존의 번역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원저작물을 번역한 경우와 원저작물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번역저작물만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위 두 가지의 경우 의거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앞서 보았듯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모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34) 인공지능 번역시스템을 활용한 번역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35) M. B. Melvil B. Nimmer,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III, 1989: 199-201; 이해완. (2015). 『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박영사: 1011-1013면에서 재인용.

36) 정상조. (2006). 「번역저작물의 보호와 구제방법」. 『기술과 법』 2(6): 121.

37) Dawn Assorts. V. Links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유사한 공포물 광고 문구에 사용된 “지옥에 죽은 자들의 공간이 부족해지면 죽은 자들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When there is no room in hell, the dead will walk the earth)”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Dawn Associates v. Links, 203USPQ 831(N.D. II 1978).

해당 번역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그 비교대상이 될 것이다.<sup>38)</sup> 판례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저작물이 번역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 표현 등의 유사성을 참작할 수 있다”<sup>39)</sup>고 하여, 양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부분 등의 유사성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5. 번역저작물에 ‘일반 저작권’의 적용 가능성

### 5.1.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또한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동조 제4항). 따라서 미공표된 원저작물을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번역하여 출판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뿐 아니라 원저작자의 공표권도 발생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또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번역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지만 학설은 해당 2차적 저작물이

---

38)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

3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원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은 부정과<sup>40)</sup> 긍정의 판례가<sup>41)</sup> 상존하고 있다. 먼저 이를 긍정하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원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백과사전을 토대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이다. 따라서 원저작물 원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CD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CD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도록 서비스하면서 명칭을 원저작물과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sup>42)</sup>

다음으로 이를 부정하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송함에 있어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된다. 어떤 저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상, 주제 또는 소재가 같거나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창작성을 가하여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지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sup>43)</sup>

## 5.2.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용과정에서의 수정과 변경이 허용된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와 더불어 원저

4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41) 서울고등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나3727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5. 19. 선고 98나354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5나20837 판결.

42) 서울고등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나37271 판결

43) 서울서부지법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원저작물의 수정이나 변경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저작자의 허락이 없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에 있어 원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sup>44)</sup> 이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판례가 상존하고 있다. 먼저 이를 긍정하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 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sup>45)</sup>

다음으로 이를 부정하는 판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토대로 이 사건 ‘돌아와요 부산항에’ 가사를 만들고 그에 곡을 붙인 노래가 수록된 조용필의 음반을 제작·발표하였으므로, 원고의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인 개편된 노래가사를 발표함에 있어 원저작물인 노래 가사의 작사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독창성을 갖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 이상 원저작자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

44) 송영식·이상정. (2015). 『저작권법』. 세창출판사: 146; 이해완. (2015). 『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박영사: 406; 이상정. (2019). 「저작인격권의 연혁과 해석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23(2): 33-70; 서울남부지방법원 1989. 12. 8. 선고 88가합244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4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립되는 외에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도 덧붙여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sup>46)</sup>

### 5.3. 소결

위에서 부정적인 입장의 판례는 ‘원저작물에 대해 새로운 독창성을 갖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 이상 원저작자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되는 외에 저작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도 덧붙여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보았다. 그러나 통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원저작물의 수정이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충실히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긍정하고 있다.

## 6. 마치며

번역물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sup>47)</sup> 실제 번역에 있어서의 문제는 후행번역물의 선행번역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이다. 요컨대, 하나의 원문을 기초로 하여 1차적 번역물(선행 번역물)을 제작한 경우 후행 번역물이 독자적인 창작적 번역인지 선행번역물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한 번역물인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한 최근 법원의 판단을 적용해 본다면, 우선 후행번역물이 선행번역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는 창작적 표현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이 유사한지 여부를 함께 참작하여야 하고, 후행번역물이 선행번역물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번역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후행번역물에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와는 별개로, 후행번역물이 선행번역물을 이용한 경

---

4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47) 이상모. (2021). 「기계번역을 활용한 법령번역의 실제와 과제」. 『T&I REVIEW』 11(1): 54. 번역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과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우, 선행번역물의 출처나 성명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선행 번역자의 인격적 이익을 소홀히 한 것으로 성명표시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출처표시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한편 통설에 따르면, 후행번역물이 원작의 저작권법상 보호영역이 아닌 아이디어 부분만을 이용하고 선행번역물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선행번역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선행번역자의 허락없이 2차적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라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있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의 변경은 필연적이므로 선행번역자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 다만 법령번역의 특성상 원문에 대한 상당한 충실성을 요구하므로 창작적 표현 정도가 넓은 소설과 같이 2차적 저작물의 보호범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송영식·이상정. (2015). 『저작권법』. 서울: 세창출판사.
- 오승종. (2007).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 오영준. (2007). 「번역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과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법』 창간호: 355-362.
- 우성엽. (2008). 「2차적 저작물의 법률관계」. 『기술과 법』 4(5): 36-55.
- 이상모. (2021). 「기계번역을 활용한 법령번역의 실제와 과제」. 『T&I REVIEW』 11(1): 35-56.
- 이상정. (2019). 「저작권인격권의 연혁과 해석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23(2): 33-70.
- 이해완. (2015). 『저작권법』 제3판(전면개정판). 서울: 박영사.
- 정상조. (2006). 「번역저작물의 보호와 구제방법」. 『기술과 법』 2(6): 114-126.
- 하용득. (1988). 『저작권법』. 서울: 법령편찬보급회.
- 中山信弘. (2008). 『저작권법』(윤선희 역). 서울: 법문사.
-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73509 판결.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9. 5. 19. 선고 98나3545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 10. 22. 선고 2001나3727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5나20837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1989. 12. 8. 선고 88가합2442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 서울서부지법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1. 5. 자 97카합2072 결정.

This paper was received on 26 October 2022; revised on 19 December 2022; and accepted on 20 December 2022.

---

***Author's email address***

peacekeeper@klri.re.kr

kkgw123@naver.com

***About the author***

Sangmo Lee (first author)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law from Kyung Hee University in 2000 and a Ph.D degree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from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UPL) in 2009. His Major research areas include WTO, FTA,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Chinese law. He has long been in char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including research on ODA-related laws in the KLRI. Now He is responsible for Korean-English and Korean-Chinese legal translation project at Korea Law Translation Center of KLRI since 2018.

Keunwoo Kim (corresponding author) is a Lecturer of Korea Copyright Commission.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pyright on translation.



## 시의 형태적 특성과 번역\*

- 김혜순 시집 『한 잔의 붉은 거울』의 번역을 기반으로 -

이상빈\*\*

**Sang-Bin Lee (2022). On the Translation of Form in Poetry: An Investigation of Kim Hyesoon's *Han chan ũi pulgŭn kŏul* (*A Drink of Red Mirror*). In this article, I discuss the matter of form in poetry translation. My argument is that the visual elements of a poem are not always translated as they appear in the source text and may instead be reconstructed by the translator's interpretation of the poem. To clarify this argument, I compare *Han chan ũi pulgŭn kŏul*, a collection of surrealist poems written by Kim Hyesoon, with *A Drink of Red Mirror*, an English translation by Jiwon Shin, Lauren Albin, and Sue Hyon Bae. Specifically, I examine seven poems — *Old Refrigerator* (*Oraedoen naengjanggo*), *Lunar Month's End* (*Kŭmŭm*), *O* (*O*), *Face* (*Ŏlgul*), *Scribbled Letter* (*Kalgŷŏ ssŭn p'yŏnŷi*), *Eye of a Typhoon* (*T'aep'ung ũi nun*), and *Mixer & Juicer* (*Mixer & Juicer*) — in terms of layouting, lowercasing, italicizing, or spacing. Then, I briefly touch on the "same" poems in *Un verre de miroir rouge*, a French translation by Choon-woo Yee and Lucie Angheben. This comparison demonstrates the stark differences in visuals between the English and French translation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uth Korea)**

**Keywords: concrete poetry, experimental poems, poetry translation, collaborative translation, an interview with the translator**

주제어: 구체 시, 실험 시, 시 번역, 공동 번역, 역자와의 인터뷰

\*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은 2022년 9월 24일 개최된 한국통역번역학회 학술대회에서 소개되었다. 토론자 박지영 교수님과 Sue Hyon Bae 번역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정교수

# 1. 서론

시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인 중 한 명인 김혜순은 『Southeast Review』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1. 시를 시이게끔 만들어주는 요소를 시 텍스트에서 발견하는 능력(더불어 시가 기존의 시를 벗어나는 것을 포착하는 능력)
2. 시를 번역하고 있다는 자세보다는 번역자인 자신이 낯선 매혹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3. 번역 대상인 언어보다 번역자 자신의 언어의 지평을 넓혀간다고 생각하는 것, 번역자의 모국어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믿는 것
4. 가능하다면 번역 대상인 시를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는 것(자신의 번역이 아니면 이 시가 감옥에서 영영 나올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는 것)
5. 그리고 무한한 자유 (Albin & Bac, 근간)<sup>1)</sup>

위 내용은 시를 번역하는 기술(techniques)이라기보다는 시를 대하는 번역자의 마음가짐이나 접근법과 관련 있다. 언뜻 추상적으로만 보일 수 있으나 번역자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위 다섯 가지 접근법 중에서 첫 번째 사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시를 시이게끔 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어떤 시를 다른 시와 차별화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시를 차별화하는 요소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다만 김혜순의 시처럼 레이아웃,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부터 매우 독특하고 실험적인 시라면 형태적(외형적) 요소들도 시를 차별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형태적 요소는 시를 잘 모르는 독자의 눈에도 쉽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시의 의미와 감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Sullivan, 2019: 269; Underhill, 2016: 41).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의 형태적 특성은 시 번역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원작 시의 형태적 요소는 출발어와 도착어 간의 차이로 인해 그대로 재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번역자 개인이 원작 시의 형태적 특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현할 수도 있다. 위 인용문에서 김혜순이 언급하였듯이, 시 번역자는 언어의 지평을 넓히고 모국어(도착

---

1) 『A Drink of Red Mirror』의 역자 후기(pp. 91-92)에는 이 발췌문의 영어 버전이 있다. 본 연구의 방향에 부합하여 여기서 인용한다.

어)의 잠재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원작의 낯선 매혹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시에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김혜순의 시처럼 외형적으로도 실험적인 시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이에 본고는 김혜순의 시집 『한 잔의 붉은 거울』과 영어 번역본 『A Drink of Red Mirror』를 비교하여 시 번역에서의 형태적 변형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영어 번역 사례 아홉 개를 제시하고 역자와의 이메일 교신 내용을 활용하여 각 사례에 나타난 형태적 변화의 양상과 배경을 소개한다. 또한 형태적 측면에서 원작과 유사한 프랑스어 번역본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영어 번역만의 특징을 논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번역 시의 형태적 특징이 역자의 해석과 창의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 2. 시가(詩歌) 문학 작품의 형태적 특징과 번역

시가 문학 분야에서 원작과 번역의 형태적 요소를 비교하는 연구는 주로 구체 시(*concrete poetry*) 장르에서 이루어졌다. 구체 시란 아주 간단히 말해 기존의 ‘읽는’ 시와 비교해 청각적 요소나 시각적 요소를 강조한 실험 시이다. 구체 시 작가들은 시의 의미에만 집중하지 않고 “언어 자체를 하나의 질료(質料)로 보고 언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시청각] 효과를 내려고 한다”(정인모, 2021: 415). 구체 시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번역(학)의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그림 1>이 그러한 사례이다.

茶  
 香叶, 嫩芽。  
 慕诗客, 爱僧家。  
 碾雕白玉, 罗织红纱。  
 铤煎黄蕊色, 碗转曲尘花。  
 夜后邀陪明月, 晨前独对朝霞。  
 洗尽古今人不倦, 将知醉后岂堪夸。

Tea  
 Fragrant leaves, budding delicately.  
 Praised by poets, adored in the monastery.  
 Ground by white jade, sieved through red mesh to purify.  
 Warmed in a pot till golden in hue; served, swirling, in cups, frothily.  
 After nightfall, carousing with the moon; before sunrise, in the gloaming, solitary.  
 Famed in our ancestors' time as a restorative, a long-renowned remedy for insobriety.

그림 1. 레이아웃 번역 사례 (Li, 2020: 38)

<그림 1>은 차(茶)라는 중국 시와 그 영어 번역이다.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원작의 가장 큰 특징은 행마다 두 자씩 추가해 만든 삼각형 모양의 레이아웃이다. 이러한 외형은 영어 번역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혹자의 눈에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형태적 전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난해하다. 원문의 명제적 의미와 각운(ly, y 등으로 끝나는 시청각 요소) 등의 리듬을 고려하면서 각 행의 길이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번역 텍스트에 시의 형태적 요소를 반영할 때는 다양한 문법 요소와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에 있는 ‘시링크스’(Syrinx, 테오크리토스 [Theocritus]의 시)의 마지막 부분과 그 번역(영어/포르투갈어)을 비교하면 ‘띄어쓰기’를 통한 형태적 변형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역의 마지막 행(*unseen / ainvisivel*)에는 그리스어 원문과 달리 글자마다 띄어쓰기가 있는데, 이는 난해한 *νηλεύστω* (*invisible*)의 뜻을 조금이나마 구현하기 위한 역자의 창의적 구성물로 해석된다(Pondian, 2020: 29).<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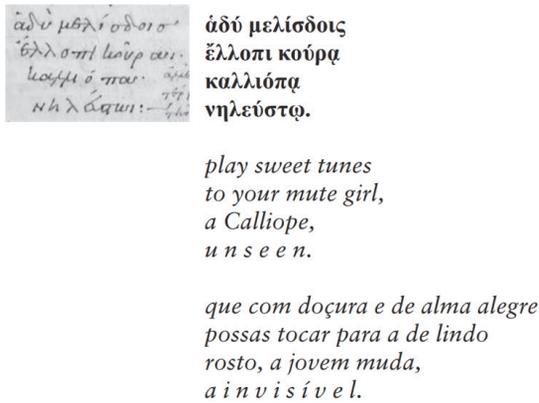


그림 2. 글자 간격 변경 사례 (Pondian, 2020: 23, 29)

국내 번역학에서 시가 문학 작품의 형태, 구조 등을 탐구한 논문은 시조, 판소리 등 주로 고전과 관련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문학 장르는 도착어 문화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형태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판소리 「심

2) 시링크스(시링가)는 판의 피리, 팬파이프(Pan Pipes)를 뜻한다. 그리스 신화의 반수신(半獸神) 판이 연주한 데서 비롯되었다. 신조어 *νηλεύστω*는 이 시에서만 사용된 독특한 어휘(*hapax logomenon*)로 추정된다.

청가」 완판본은 글자 간 띄어쓰기가 전혀 없고 창(노래)과 아니리(서술)가 구분되지 않은 독특한 ‘산문’이다. 이상빈(2021)은 마샬 필(Marshall Pihl)의 「심청가」 영어번역본 “The Song of Shim Ch'ong”(1994년 출간)을 분석하면서, 아니리, 창, 원문 정보(판소리 장단의 종류, 번역과 대응되는 원문의 위치) 등이 영어에서 어떻게 재구조화되었는지를 <그림 3>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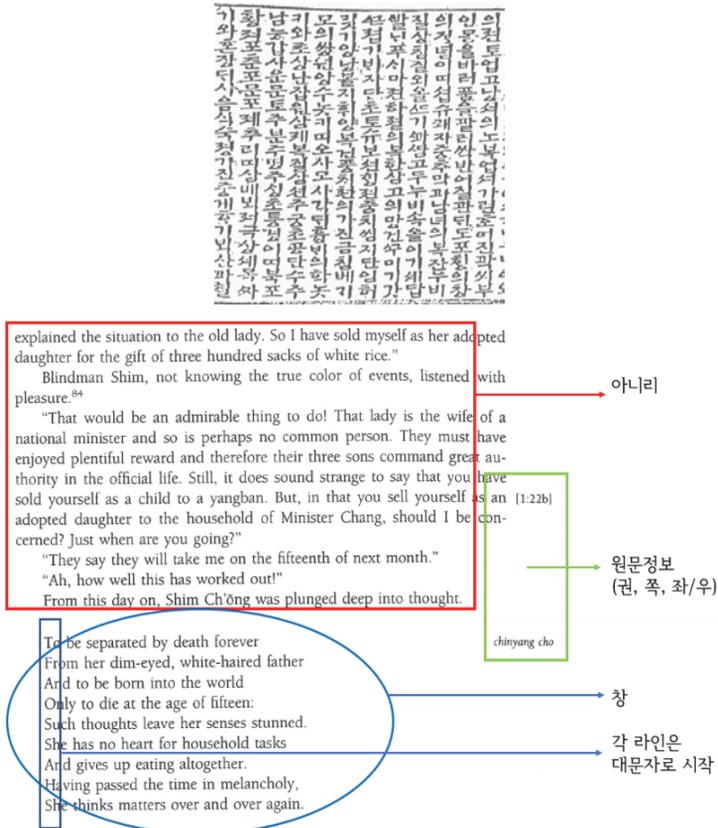


그림 3. 「심청가」와 영역본의 형태적 차이 (이상빈, 2020: 182에서 인용)

또한 이상빈(2022)은 시조 번역의 형태와 구조도 탐구한 바 있다. 그는 윤선도의 연시조 「어부사시사」와 여러 영어 번역본을 제시하고 각 번역자가 시조의 3장(초장-중장-종장) 구조와 여음구(후렴구)를 어떻게 시각화했는지를 비교하였다. 특히 케빈 오록(Kevin O'Rourke)이 착안한 5행 구조(초장 2행, 중장 1행, 종장 2행)

에 주목하면서 오록의 번역이 시기에 따라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추적하였다. 이 통시적 분석에 따르면 오록은 다른 번역자가 애용했던 3장 6행(초장/중장/종장 각 2행)의 안정적인 구조를 따르다가 2001년<sup>3)</sup> 이후부터는 자신이 개발한 3장 5행 구조를 사용하였고 여음구를 모두 이탤릭체로 표현하였다. 이상빈은 이러한 시조 형식이 “서양 독자가 시조를 접하면서 느낄 매우 낯설고 이국적인 감정을 구조적으로 표면화”(p. 128)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 고전 시가의 번역에서도 시의 형태적 특성은 레이아웃이나 연(聯) 구조와 같이 상위 구조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대·소문자 구분, 띄어쓰기, 들어쓰기 등과 같이 작아 보이는 부분들도 나름의 시각적 효과를 연출하면서 시 수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시조 영역(英譯)에서도 행을 대문자로 시작할지, 들어쓰기를 적용할지, 후렴구를 이탤릭체로 쓸지 등이 번역을 차별화하는 요소로 논의됐다. 일례로, 이상빈(2022: 123)이 소개한 아래 두 번역은 똑같은 시조를 번역한 것이지만, 각 행의 대·소문자 구분, 문장부호(느낌표) 사용, 이탤릭체 적용 범위, 들어쓰기 여부 및 방식 등이 달라 시의 첫인상부터가 다르다.

Let us tread the scented grass,  
and gather tree-root mushrooms.  
*Pull the boat in, pull the boat in!*  
What did we carry  
with us in this slip of a boat?  
*Chigukch'ong, chigukch'ong, ōshwa!*  
When we went, myself alone;  
returning, the moon as well. (Rutt, 1971: 189)

Let's tread on fragrant grasses  
And pick orchids and angelica.  
Stop the boat, stop the boat!  
What have I taken aboard  
On my boat small as a leaf?  
*Chigukch'ong chigukch'ong ōsawa.*  
Nothing except smoke when I set sail,  
When I row back, the moon is my tenant. (Lee, 1981: 183)

3) 최근 이상빈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록의 1995년 번역에도 5행 구조가 사용되었다(O'Rourke, 1995: 117을 확인할 것).

위와 같은 논의를 고려하여 필자도 김혜순 시의 형태적 특성을 논의할 때 시의 구조뿐만 아니라 문법적 요소들도 살펴봤다. 본 연구는 현대 한국 시의 번역을 형태적 측면에서 탐구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며, 서로 다른 두 번역을 비교했다는 점에서도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 3. 『한 잔의 붉은 거울』과 『A Drink of Red Mirror』

#### 3.1. 김혜순과 『한 잔의 붉은 거울』

김혜순은 여성의 몸과 경험을 실험적 글쓰기로 담아낸 한국의 대표 페미니스트 시인이다. 1979년 계간 『문학과 지성』을 통해 등단하여, 80년대부터 한국 여성 시의 외연을 크게 넓힌 자로 평가받아왔다. 문학과지성사 이광호 대표는 김혜순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시인 중에] 가장 많이 해외에 소개된” 시인으로 묘사하면서, “김혜순의 시를 읽는 것은 세계 독자들과 함께 있는 동시대성”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연, 2022.4.29.). 이러한 평가에 맞게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김수영문학상(1997), 소월시문학상(2000), 현대시작품상(2000), 미당문학상(2006), 대산문학상(2008) 등 국내 주요 문학상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그리핀 시 문학상(2019), 스웨덴 시카다상(2021) 등의 해외 문학상도 받았다. 대표 시집으로는 『또 다른 별에서』(1981),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1985),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1994), 『불쌍한 사랑 기계』(1997), 『달력 공장 공장장님 보세요』(2000), 『슬픔치약 거울크림』(2011), 『죽음의 자서전』(2016), 『날개 환상통』(2019)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한 잔의 붉은 거울』은 2004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출판된 김혜순의 여덟 번째 시집이다. 이 시집에는 ‘붉은 장미꽃다발’(첫 번째 시), ‘한 잔의 붉은 거울’(대표 시), ‘날마다의 장례’(마지막 시)를 비롯해 총 57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김혜순에 따르면 『한 잔의 붉은 거울』은 그의 시집 가운데 “가장 感情的인(with the most emotion)”(Albin & Bac, 2019: 91) 시집이다.

김혜순 시와 관련된 논문은 그간 꾸준히, 조금씩 소개되었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김혜순 시에 관한 논문은 2000년부터 매년 1-7편이 게재되어 2022년 8월 현재 50편이 넘는다(www.kci.go.kr에서 “김혜순 시”로 검색한 결과). 하지만 이러한 논문의 상당수는 여성의 몸, 페미니즘, 수사법 등에 관한 국

문학 또는 여성학 논문이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한 잔의 붉은 거울』과는 관련이 적다.

### 3.2. 『A Drink of Red Mirror』와 공동 번역자

역서 『A Drink of Red Mirror』는 미국의 한 대학강좌에서 비롯되었다. 신지원(Jiwon Shin, 담당 교수), 로렌 알빈(Lauren Albin), 배수현(Sue Hyon Bae)이 최종 번역본의 공역자로 참여했고, 수강생 5인(Rebecca Teague, Dakota Hale, Kevin Salter, Sierra Hamel, Nicole Lindell)이 일부 초역본 작성에 기여하였다. 수록된 각 시에는 주요 역자들의 이니셜이 “SHB”(배수현), “LA”(로렌 알빈) 등과 같이 표기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이 공동 작업의 결과물임을 고려하여 각 시를 특정 역자에 귀속하지 않았다.

이 역서에는 공동 번역의 과정과 특징을 추정케 하는 페리텍스트(peritext) 두 개가 있다. 하나는 ‘A Note on Collaborative Translation’(공동 번역에 관한 신지원의 후기)이고, 다른 하나는 ‘Translators’ Notes(로렌 알빈과 배수현의 역자 후기)’이다. 이 중 ‘역자 후기’에는 앞으로 논의할 대·소문자 구분, 구두점, 단어 간 공백 등이 다음과 같이 짧게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대·소문자와 구두점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 ‘원저자가 대개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까?’ ‘영어와 비교해볼 때 한국어는 구두점 사용 면에서 자유로운 편이니 이 번역에서는 구두점을 넣어야 할까?’<sup>4)</sup> 우리는 ‘Mixer & Juicer’와 ‘Eye of a Typhoon(태풍의 눈)’에 나오는 이상(李箱) 시를 읽고, 붙여쓰기(his eschewal of spaces between words)를 번역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Albin & Bae, 2019: 90, 필자의 번역임)

공동 번역이면 흔히 문체, 어조, 목소리 등에서 번역자 간 차이가 있지만, 이 역서에는 그런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Reeck, n.d.). 시에 따라 번역 방식에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필자의 논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A Drink of Red Mirror』는 “여러 김혜순(many Kim Hysesoons)”(Albin & Bae, 근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담화 공간이다.

---

4) or should we add it, since punctuation is not as necessary for readable Korean as it is for readable English?

## 4. 『A Drink of Red Mirror』에 나타난 형태적 특징

이제부터는 영어 번역자가 원작의 형태적 특성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를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분석 사례는 ‘오래된 냉장고’, ‘그믐’, ‘O’, ‘얼굴’, ‘갈겨쓴 편지’, ‘태풍의 눈’, ‘Mixer & Juicer’ 등 총 일곱 편이다.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례에서는 역자 1명과 이메일 교신을 소개할 것이다.

### 4.1. 레이아웃

<예시 1>은 ‘오래된 냉장고’라는 시의 원문과 번역이다. 원문은 구조적 측면에서 운문이 아닌 일반 산문처럼 보인다. 이에 비해 영어 번역은 편집 오류인가 싶을 정도로 독특하다. 번역자에 따르면 길쭉한 왼쪽 단(column)은 독자가 냉장고의 외형을 연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실험적 레이아웃이다(배수현과의 이메일 교신, 2022.7.12.).

오래된 냉장고	OLD REFRIGERATOR
<p>나보다 먼저 내 방이 나에게로 가려고 하는 것, 필사적으로 참고 있다. 나보다 먼저 내 인심이 나에게로 가려고 하는 것, 나는 필사적으로 참고 있다. 벌써 이렇게 잠은 지 수십 년. 생각해보니 참 묘하다. 내가 이렇게 참고 있었던 건 내가 내 소유의 냉장고를 갖게 된 후부터 인 것도 같다. 그러나 나나 나는 생각해왔다. 내 머릿속은 얼음으로 꽂 차 있고, 내 차다친 발을 밟진 사람은 모두 기질한다. 내 가슴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얼음이 얼어붙는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자. 아무에게도 손 뻗지 말자. 나는 또 이것도 잊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나마 내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참고 있으니 내 방 안에서 나뭇잎 하나 떨어지지 않고, 땅을 막치고 새 한 마리 날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필사적으로 220볼트의 콘센트 속에 손가락을 끼운 채 버티자. 얼어붙은 풍경화, 열이나 아무다운가. 그 풍경 속의 일이나 일을 꿈꾸 일이나 순결한다. 그러나 허벅지 밑으로 피가 조금 흘러내려도 금방 얼어붙을 테니 걱정 말자. 박은 뜨겁고, 안은 시리다. 시리다 못해 팽팽히 끓는다. 문을 열면 화살처럼 놀라 불을 켜는, 얼어붙은 창자들을 매단 겨울 풍경화 한 장. 태풍이 와서 정</p>	<p>Instead of my feet running to you first, I hold back. Instead of my lips going to yours first, I desperately hold back. Already, I've passed decades holding back. It's strange to think about it. It seems I've been holding back like this since I got my own refrigerator. Anyway, I keep thinking. My mind is crowded with ice. Anyone who touches my cold foot loses consciousness. The lips of any person who enters my heart turn to ice. So, I will not take even one step from here. I will not reach out my hand. Again I tell myself not to forget about this, nevertheless, I hold back so desperately that not even a leaf falls in my room and not even a bird kicks off from the ground to fly. I will reduce the wind that desperately blows in with my fingers in a 220 volt socket. The frozen landscape, how beautiful. Lady Ice of the frozen kingdom inside that landscape, how pure. I won't worry about the blood trickling down my thigh as it will soon freeze solid. Outside hot, inside cold. It's so cold it boils. When the door opens and the light is started on, a winter landscape displaying frozen intestines. Aloo for decades until</p>

예시 1. 오래된 냉장고(p. 20), Old Refrigerator(p. 11)

5) 이 시의 주요 번역자는 LA(로렌 알빈)이다. 시의 끝부분(p. 12)이 아래와 같음을 고려할 때 왼쪽 단만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이다.

the typhoon came, the blackout  
lasted for days, and everything  
inside rotted away completely.

LA

<예시 2>는 ‘그믐’이라는 시의 원문과 번역이다. 원작의 형태적 특징은 페이지 레이아웃이 아닌 탭(띄어쓰기 서너 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행 “그날\_\_밤, 내 몸에서 달이 다 빠져나간\_\_밤”을 보자. 여기서 김혜순은 탭을 사용하여 ‘밤’과 ‘밤을 수식하는 부분’을 확연히 구분하였다. “\_\_밤”은 거의 모든 행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므로 시각적으로 매우 강렬한 효과를 준다. ‘밤’ 앞에 있는 긴 공백은 읽기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중단케 하여, 독자가 ‘밤’에 더욱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p>그날 밤, 내 몸에서 달이 다 빠져나간 밤  어항 속의 금붕어도 발발 떠는 밤  별들이 우물쭈물 경수하다 말고  우물 밑바닥에 납작 열드리  세끼고양이처럼 가르릉거리는 밤  어디에서도 너를 찾을 수 없는 밤  밤나무의 모든 밤이 저절로 떨어지는 밤  잊혀진 천문대가 숨어들어오는 UFO들로 정신없는 밤  내 몸에서 빠져나간 달이 죽어버린 밤  내 전화벨 소리가 네 방을 태워버리는 밤  강물들이 내 속에서 터지는 비명들을 이기려고  아주 아주 시끄러운 밤  마을 불빛들이 황복 황복 하고 하나의 꺼져버리는 밤  네 인의 주름 속에 숨어 있다 견어작인 밤  어둠이 너를 착착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내놓지 않는  밤, 그날 밤  저 어둠의 경막을 내 비명의 날로 내리그으면  그 칼자국 사이로 싸늘한 빛 한 파람  펑펑히 터져 들어올 것 같은 밤, 그날 밤</p>	<p>that night the night the moon slips out of my body  the night even the goldfish trembles in its bowl  the night stars stop purifying the water  and lie down at the bottom of the well  purring like kittens  the night you can't be found anywhere  the night all the chestnuts fall off the chestnut tree  the night a forgotten observatory is wild with UFOs that steal in  the night the moon that slips out of my body dies  the night the sound of my phone burns your room  the night very very noisy  because the river waters endure the screams  erupting inside me  the night the lights of the town give in turning off one by one  the night kicked aside after hiding inside the creases inside you  that night the darkness folds you up then puts you in its pocket  and won't let you out  that night so tense that when I draw the blade of my shirik  down the veil of darkness a cold ray of light  might explode in through that wound</p>
--	---

예시 2. 그믐(p. 41), Lunar Month's End(p. 23)

원문의 형태적 특징은 번역에서 다르게 구현되었다. 역자는 레이아웃을 2단으로 구성한 후, 왼쪽 단에는 시의 제목이자 소재인 **night**를 넣고, 오른쪽 단에는 **night**를 수식하는 어구를 넣었다. 이러한 시각적 특성은 원문과 비슷하면서도 색다른 효과를 연출한다.

## 4.2. 소문자

번역자는 원작의 형태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어의 대·소문자 사용에도 신경을 썼다. 다음 두 예시를 살펴보자.

<예시 3>

우리가 마주 앉으면  
우리는 O가 되어요

당신은 ( 가 되고  
나는 ) 가 되어요  
[중략]

마주 앉은 우리를 여기 두고  
O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두 손이  
얼음조각의 두 손처럼 녹아내리는데  
O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요 (pp. 30-31)

when we sit face to face  
we become O  
you become the (  
and I become the )

O still doesn't come  
having left us behind sitting face to face  
our two hands  
melting like two hands of sculpted ice  
yet still O doesn't come (p. 17, 밑줄은 필자의 것)

<예시 3>은 “O”라는 시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각적으로나 의미상으로 O이다. 시적 화자가 O의 일부이며 O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역자는 이 시의 실험적 특성을 부각하면서도 O를 강조하기 위해 행이나 메시지의 시작을 대문자로 표기하지 않고 소문자로 표기하였다(배수 현과의 이메일 교신, 2022.7.12.).<sup>6)</sup>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되는 밑줄 친 부분에서도 **Our...**로 표기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쓰기 전략은 O만이 대문자처럼 보이게 하고 O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한다.

이처럼 소문자로 행을 시작하는 쓰기 방식은 유표적이다. 아래 인용문(‘거미’의 첫 번째 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 Drink of Red Mirror』의 다른 시에서는 행을 대문자로 시작하기도 한다.

---

6) “O가 중요하니 좀 튀게 했습니다… 다른 많은 시들은 문장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하여 uppercase(대문자)를 이용했습니다.”

<예시 4>

병어리 여자가 창틀에다 수를 놓는다  
한없이 떠는 숲과 소용돌이치며 끓는 늪  
몸부림치는 강물의 살점들  
부르짖으며 터지는 강둑 하나, 둘  
몸속의 어깨뼈가 툭툭 부러지는 나뭇가지  
다 빠져 훑날리는 그 여자의 검은 머리털들 (p. 73)

A mute woman sits embroidering in the window  
The woods tremble endlessly and the swamp boils and eddies  
The meat of the river writhes  
One riverbank bursts screaming, then another  
The shoulder bones of tree branches snap  
The woman's black hair falls out and scatters (p. 45)

『A Drink of Red Mirror』 전체를 놓고 보면, 역자의 대·소문자 사용은 어떤 명확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예시 3>이 보여주듯이 역자가 시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도 대·소문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예시 5>

당신의 얼굴은 당신 속의 당신이 당신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굳어져 있습니다 가끔 그 얼굴이 당신 밖의 내 얼굴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당신의 두 눈동자 속에서 나를 내다보는 당신 속의 당신을 내가 느끼기도 하지만 당신 속의 당신이 당신을 당겨 잡은 그 손을 놓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팽팽히 당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그 긴장을 견디느라 이제 주름이 깊습니다 (p. 16)

Your face solidifies into the same shape that the you inside you has pulled taut that face sometimes leans out into my face outside you, I sense inside your two pupils the you inside you that peers out at me but the you inside you has never let go of that tight hold on your hand you are still pulled taut your face is deeply wrinkled from enduring that tension (p. 9, 밑줄은 필자의 것)

<예시 5>는 ‘얼굴(Face)’의 세 번째 연이다. 이 연은 네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두 번째 문장은 세 개의 작은 절, 즉 “가끔 그 얼굴이… 기울어지기

도 하고”, “당신의… 느끼기도 하지만”, “당신 속의… 한번도 없습니다”가 합쳐진  
장문이다. 이 시에서도 김혜순의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마침표가 사용되지 않았  
고) 의미 단위의 행 구분도 없다. 따라서 호흡이 길고 읽기가 쉽지 않으며 시각적  
으로도 매우 이질적이다.8)

역자도 원작 시의 느낌을 재현하였다. 우선, 원작에서처럼 마침표를 쓰지 않아  
기본적으로 장(長) 호흡을 유지하였다. 또한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번  
째 문장부터 네 번째 문장까지 문장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표기하였다. 이처럼 의  
도적인 소문자 사용은 마침표 탈락과 함께 원문의 긴 호흡과 시각적 충격 나아가  
어려운 읽기 경험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 4.3. 이탤릭체

김혜순의 시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독특한 방식으로 공존한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예시 6>

그 오래된 사원의 지하엔 천 마리 쥐들이 숨어 있대  
인간으로 환생할 날을 기다린대 네 죽음이  
시킨 걸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죽음도 살고 싶거든  
네가 불러냈으니까 네가 쫓아버려 나는 하염없이 편  
지를 쓴다 (pp. 107-108)

*They say there are thousands of rats hiding in the basement of that ancient  
temple They say they're waiting for the day they will be reborn as human  
Your death probably ordered it Because even death wants to live You called  
them so you chase them away I write a letter endlessly (p. 71)*

<예시 6>은 ‘갈겨쓴 편지(Scribbled Letter)’에서 발췌한 것이다. 원문을 보면 여  
러 개의 문장이 행 구분과 딱 들어맞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

7) 거의 모든 시에 마침표가 없다. 마침표가 있는 시는 ‘오래된 냉장고’, ‘칼의 입술’(단, 시 끝 한 곳에  
서만 사용), ‘낙랑공주’, ‘내 꿈속의 문화혁명’뿐이다.

8) 번역자는 이 연을 “숨이 막힐 정도의 스타일”, “끝없는 문장”으로 묘사했다(배수현과의 이메일 교  
신, 2022.7.12.).

문장 끝에 마침표가 없지만, 독자는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화체 종결어 “~있대”, “~기다린대”, “~거야”, “~거든”, “~버려” 때문이다. 이러한 말투는 평서체 문장 “나는 하염없이 편 / 지를 쓴다”와 대비된다. 이 문장을 통해 독자는 앞서 나온 대화체의 문장들이 다른 공간의 담화임을 추측할 수 있다.

번역에서는 영어의 특성상 원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화법 변화를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역자는 편지 내용만을 이탤릭체로 표현하여 화자(나)의 현실 세계와 이전 담화 세계를 구분하였다.<sup>9)</sup> 한국 독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화체 문장 간의 구분은 각 문장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해 구현하였다.

<예시 7>

미친 새들이 서로 벗을 붙이고  
 밤하늘 둥그렇게 난다  
 숲 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있는데  
 토끼 한 마리 달려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그들의 노랫소리 들려온다  
 살려줘요 살려줘요  
 끊이지 않는 딸꾹질처럼 내 먹을 따는 노래 (p. 58)

Mad birds comb-to-comb  
 encircle the night sky  
*Little cabin in the woods a little child by the window stood*  
*Saw a rabbit hopping by knocking at the door*  
 The sound of their singing<sup>10)</sup>  
*Help me help me*  
 A song that cuts my throat like hiccups that won't stop (p. 36)

<예시 7>은 ‘태풍의 눈(Eye of a Typhoon)’에서 발췌한 것이다. 원작에서 독특한 점은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동요인 “숲 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있는데 / 토끼 한 마리 달려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 … / 살려줘요 살려줘요”가 뚜렷한

9) “미국 현대 시에서는 대화나 생각을 나타낼 때 이탤릭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본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가 너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수현과의 이메일 교신, 2022.7.12.)

10) 본 논문에서는 역자의 의도에 따라 The sound of their singing을 독립 행으로 처리하였다. 역서에는 “*Saw a rabbit hopping by knocking at the door*The sound of their singing”(“The sound…” 앞에 줄 바꿈 없음)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편집상의 오류이다(배수현과의 이메일 교신, 2022.7.12.).

표지나 단서 없이, 갑자기 나온다는 점이다. 동요 중간에는 다른 어투의 목소리 (화자의 목소리) “그들의 노랫소리 들려온다”가 삽입되어 있다.

이와 비교해, 영어 번역에서의 동요는 이탤릭체로 처리되었고, 동요에 삽입된 시적 화자의 목소리(“The sound of their singing”)는 이탤릭체로 처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탤릭체는 독자의 마음속에서 동요를 낭송하는 효과를 준다. 한편 이탤릭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원문을 그대로 옮겼다가보다는 기존의 영어 동요 (예: Little cabin in the wood Little man by the window stood Saw a rabbit hopping by Knocking at the door “Help me, help me, help me”)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영어 동요에서처럼 “작은 아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a little man으로 쓰지 않고, 원작 시를 반영한 a little child로 번역했다. ‘태풍의 눈’은 아이에 관한 시<sup>11)</sup>이기 때문에 child를 명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4.4. 띄어쓰기

원작 시집에는 띄어쓰기 어법이 파괴된 부분도 있다. 다음 사례는 번역자의 독특한 띄어쓰기 전략을 보여준다.

<예시 8>

세 가지 색깔의 꽃을 분쇄 중인 Mixer & Juicer를 들여다본다  
꽃이香氣롭다꽃이滿開한다나는거기서幕穴을판다  
꽃이香氣롭다꽃이滿開한다나는거기서幕穴을판다  
李箱의 시는 신형 Mixer & Juicer를 위한 주술이다 (p. 92)

I look inside the mixer and juicer pulverizing flowers of three colors  
T h e f l o w e r s a r e f r a g r a n t t h e f l o w e r s b l o s s o m I d i  
g a g r a v e t h e r e  
T h e f l o w e r s a r e f r a g r a n t t h e f l o w e r s b l o s s o m I d i  
g a g r a v e t h e r e  
Yi Sang’s poetry is a spell for the new-model mixer and juicer (p. 36)

<예시 8>은 ‘Mixer & Juicer’라는 시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꽃이香氣롭

11) <예시 6> 바로 앞에는 “가슴이몽개진아이”, “폐의숨구멍마다돌이가득찬아이”, “열손가락이다뿔이진부챗살처럼너털거리는아이” 등 여러 아이가 언급된다.

다꽃이滿開한다나는거기서墓穴을판다”는 실험적 글쓰기로 유명한 이상의 “절벽”에서 발췌·변용한 것이다. ‘절벽’의 시작 부분은 다음과 같다.

꽃이보이지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만개한다. 나는거기묘혈을판다.

이 시구와 <예시 8>의 원문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태적 측면에서도 유사하다. ‘절벽’에서도 두 번째 문장(“꽃이 향기롭다”)을 제외하면 띄어쓰기가 없다. 그런데 김혜순의 시구는 이상의 것보다 파격적이다. 세 문장 모두(꽃이香氣롭다/꽃이滿開한다/나는거기서墓穴을판다) 띄어쓰기 없이 붙어 있고, 각 문장 끝에는 마침표가 없다.

<예시 8>의 영어 번역에서는 원작과 달리 알파벳 글자 하나하나를 띄어 썼다. 물론 *TheflowersarefragranttheflowersblossomIdigagravethere*와 같이 원작을 그대로 흉내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영어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가독성이 낮은 번역이다(배수현과의 이메일 교신, 2022.7.15.). 번역자는 원작보다 지나치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원작의 시각적 이질감을 재현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sup>12)</sup> 그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방식이 바로 <예시 8>의 띄어쓰기이다.

<예시 8>의 번역 방식은 다른 영어 번역과 비교해도 독특하다. 일례로, 미국 현대언어학회(MLA)의 ‘알도 앤 잔 스칼리오네상’(The Aldo and Jeanne Scaglione Prize)을 수상한 시선집 『Yi Sang: Selected Works』에는 앞서 언급한 ‘절벽’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I cannot see the flower. The flower is fragrant. The fragrance is in full bloom. I dig a grave in it. (Jung 2020, 53)

『A Drink of Red Mirror』에서 원작의 붙여쓰기가 항상 <예시 8>처럼 번역된 것은 아니다. ‘태풍의 눈’ 2연에도 붙여쓰기가 있는데, 그 번역은 아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띤다.

<예시 9>

가슴이몽개진아이 폐의숨구멍마다돌이가득찬아이 열손가락이다짚어진부챗살

12) 배수현은 “몇 가지 실험을 한 후(예: *flowers.arc.fragrant*, *flowers:arc:fragrant*) 사이사이에 space를 넣는 것이 좋은 해결이라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처럼너털거리는아이 두입술이붙어버린아이 눈알이다녹은아이 이빨을다갈아버린아이 갈비뼈가다빠개진아이 머리털을다뽑혀버린아이 무엇보다피가하수구로 다빨려나간아이 껌처럼혀기풀어진아이 고양이한테뇌수를다빨려버린아이 (p. 58)

a child with a crushed chest a child whose lung at every breathing hole is filled with stones a child with ten fingers tattered like a folding fan a child whose two lips are stuck together a child whose eyeballs have melted a child whose teeth have been ground away a child whose ribs have been smashed away a child whose every strand of hair has been plucked a child whose blood among other things has been sucked into the drain a child whose tongue has been stretched like chewing gum a child whose brain has been sucked dry by a cat (p. 36)

<예시 9>에는 여러 유형의 ‘아이’가 나온다. 원문에서 각 명사구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있지만, 명사구 내 모든 글자는 붙어 있다. 이에 비해 번역에서는 a child로 시작하는 명사구 사이에만 띄어쓰기가 ‘크게’(두세 칸) 있고, <예시 8>에서 확인한 알파벳 글자 간 붙여쓰기나 띄어쓰기는 없다. 즉, 역자는 원문처럼 붙여쓰기를 하지 않았지만, 띄어쓰기 간격을 넓혀서 각 명사구가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효과를 유지하였다.

## 5. 프랑스어 번역본과의 비교

본 연구를 위해 2016년 출간된 프랑스어 번역본 『Un verre de miroir rouge』(번역자: Choon-woo Yee와 Lucie Angheben)<sup>13)</sup>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영어 번역본과 프랑스어 번역본을 비교하는 이유는 더 좋은 번역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번역자에 따라 원작 시의 형태적 요소를 재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지면 제약이 있고 이미 앞에서 살펴본 시이므로 본 장에서는 ‘오래된

13) 프랑스어 번역은 “Digital Library of Korean Literature”(https://library.ltkorea.or.kr) 전자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전자책은 확대·축소가 가능하여 시의 형태적 특성이 가변적이며, 따라서 형태적 특징이 종이 인쇄본과 다를 때가 있다. 일례로 아래 <예시 11>과 <예시 15>의 경우 종이 책과 전자책의 모습은 크게 다르다. 이 논문의 프랑스어 사례는 종이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냉장고(Le vieux frigo)', '그믐(La fin du mois)', 'O', 'Visage(얼굴)', '갈겨쓴 편지(La lettre griffonnée)', '태풍의 눈(L'œil du typhon)', 'Mixer & Juicer' 순으로 프랑스어 번역을 나열한 후, 영어 번역본과 프랑스어 번역본의 차이만을 간단하게 언급할 것이다.

<예시 10> 오래된 냉장고 (p. 26)

#### LE VIEUX FRIGO

Mes pieds avant moi veulent aller vers toi, je me retiens désespérément. Mes lèvres avant moi veulent aller vers toi, je me retiens désespérément. Déjà des dizaines d'années que je me retiens. Quant j'y pense c'est vraiment curieux. On dirait que je me retiens ainsi depuis le jour où j'ai eu mon propre frigo. Toujours est-il que j'en suis venue à penser ainsi. L'intérieur de ma tête est entièrement rempli de glace, tous ceux qui touchent mes pieds gelés s'évanouissent. Tous  
(이하 생략)

<예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랑스어 번역본은 앞 장에서 소개한 영어 번역본과 큰 차이를 보인다. 2단 구조(냉장고 외형)를 통해 구체 시를 만들려는 영어 번역자와 달리, 프랑스어 번역자는 원작과 동일한 레이아웃을 사용하였다.

<예시 11> '그믐'의 일부 (p. 43)

Cette nuit, la lune s'échappe de mon corps cette nuit  
Même les poissons rouges tremblent dans leur bocal  
cette nuit  
Les étoiles ont interrompu la purification de l'eau du puits  
Allongées tout au fond  
Comme des chatons elles miaulent  
cette nuit  
Je ne peux te trouver nulle part  
cette nuit

<예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작에서 탭으로 강조된 ‘… 밤’(cette nuit)은 프랑스어 번역에서 독립된 행으로 재구조화되기도 하였다(밑줄 친 부분). 이는 원문과 마찬가지로 ‘밤’의 위치를 행의 오른쪽 끝에 배치하기 위함이다.<sup>14)</sup>

<예시 12> ‘O’의 시작 부분 (p. 33)

Si nous nous asseyons face à face  
Nous devenons O  
Vous devenex (  
Je deviens )  
Une station de métro où les rames sont toutes parties  
Ou bien une grotte chaude  
Cachée au fond de la mer glaciale  
Un oeuf chaud s’y vide de ses larmes  
Nous devenons O (이하 생략)

<예시 12>에서 볼 수 있듯이, ‘O’를 강조하기 위해 행 시작을 소문자로 표기한 영어 번역본과 달리, 프랑스어 번역자는 각 행을 대문자로 시작하였다.

<예시 13> 얼굴 (p. 22)

Votre visage se fige selon l’expression tendue du vous  
à l’intérieur de vous Parfois ce visage penche vers mon  
visage hors de vous et parfois je sens le regard du vous  
à l’intérieur de vous qui me fixe de vos deux yeux,  
mais le vous à l’intérieur de vous n’a jamais relâché  
la main qui s’accroche à vous Vous être toujours  
solidement tendu Vos rides sont profondes parce que  
votre visage a été obligé de supporter cette tension  
(이하 생략)

<예시 13>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어 번역자도 마침표 없이 원문의 장문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다만 영어 번역과 달리 모든 문장의 시작을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밑줄은 필자가 추가한 것으로, 문장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다.<sup>15)</sup>

---

14) 프랑스어 번역자는 구(phrase)로 표현된 영어 번역과 달리 각 행을 절(clause)로 표현하였다. 이런 통사적 차이는 ‘밤’의 위치와 관련 있다.

<예시 14> 갈겨쓴 편지 (p. 106)

On dit que mille rats se cachent au sou-sol de

l'ancien temple

En attendant le jour de leur réincarnation en

humain, c'est ta mort

Qui les y a poussé, parce qu'elle aussi a envie de

vivre

C'est toi qui les as invités, alors c'est à toi de les

chasser ! J'écris sans fin cette lettre

<예시 14>와 <예시 15>가 보여주듯이 프랑스어 번역에서는 이탤릭체가 사용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어 번역에서는 말투와 서술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동요가 삽입된 부분에서 이탤릭체가 적용되었다.

<예시 15> 태풍의 눈 (p. 61)

L'enfant au cœur érasé l'enfant aux bronches rem-

plies de cailloux l'enfant aux dix doigts déchirés qui

s'effrangent comme les baleines d'un éventail l'enfant

aux deux lèvres collées l'enfant aux globes oculaires

complètement fondus l'enfant aux dents toutes arrachées

l'enfant aux côtes brisées l'enfant aux cheveux arrachés

surtout l'enfant qui a perdu tout son sang dans l'égout

l'enfant à la langue fondue comme du chewing-gum l'en-

fant qui a nourri un chat de son cerveau

Les oiseaux fous se collent leur crête les uns aux  
autres

Et s'élèvent en cercle dans le ciel nocturne

Dans une petite maison dans la forêt un enfant

regarde par la fenêtre

Un lapin arrive en courant et frappe à la porte

On les entend chanter

Aidez-moi ! Au secours !

---

15) 영어 번역에서는 두 번째 문장부터 네 번째 문장이 that... you... your로 시작되지만, 프랑스어 번역에서는 Parfois(Sometimes)... Vous(You)... Vos(Your)... 로 시작된다.

<예시 15>와 <예시 16>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어 번역자는 원작의 ‘붙여쓰기’를 그대로 재현하였다. 아이를 묘사하는 일련의 명사구(예: “가슴이뭉개진아이 폐의숨구멍마다돌이가득찬아이...”)를 원문과 똑같이 붙여 썼으며, 이상의 시를 변용한 구절(“꽃이香氣롭다꽃이滿開한다나는거기서幕穴을판다”)에서는 붙여쓰기를 하되, 영어에서와 달리 각 문장의 시작을 대문자로 표기하였다(L··· L··· J···).

<예시 16> Mixer & Juicer (p. 93)  
 LafleurembaumeLafleurfleuritJecreuseuntru  
 LafleurembaumeLafleurfleuritJecreuseuntru  
 Le poème de Yi Sang est une incantation pour un  
 nouveau modèle de Mixer & Juicer

<예시 10>부터 <예시 16>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프랑스어 역자는 영어 역자와 달리 시의 형태적 특성을 원문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 6.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한 잔의 붉은 거울』을 기반으로 실험 시의 형태적 특성이 영어 번역본에서 어떻게 재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어 번역본과 영어 번역본을 간략히 비교함으로써 영어 번역본의 텍스트적 재현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번역자의 선택임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세부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번역자는 원작 시의 형태적 특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의 형태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번역자가 시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특히 원저자가 김혜순처럼 위상이 있고 시 자체도 형태적으로 실험적이면 더욱더 그러하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영어본 역자는 일부 시에서 다단 구조와 같은 새로운 레이아웃을 도입하였고, 대·소문자를 변칙적으로 사용(구분)하여 원작이 풍기는 이질감을 또 다른 차원에서 재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매우 강렬한 붙여쓰기를 독특한 띄어쓰기로 코딩하기도 했다. 이러한 형태적 변화들은 띄어쓰기, 대·소문자, 이탤릭체 등과 관련해 앞서 논문 2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상빈, 2022)과도 유사하다. 어쩌면 띄어쓰기, 대·소문자, 이탤릭체 등은

영어 시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기본적인 장치일지도 모른다.

둘째, 시의 형태는 번역자 및 도착어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영어 번역본의 형태와 프랑스어 번역본의 형태는 필자가 분석한 영역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프랑스어는 언어적 속성 면에서 한국어보다 영어에 훨씬 가깝다. 하지만 본 연구가 살펴본 프랑스어 번역본은 언어의 형태적 속성 면에서 오히려 한국어 원문과 흡사했다. 따라서 두 번역본의 형태적 차이는 언어 간의 미묘한 차이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지만(Niknasab & Pishbin, 2011: 3), 언어의 본연적 특성과 관계없이 번역자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판단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

셋째, 한 역서 내에서도 똑같은 외형적 특성이 시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있다. <예시 7>과 <예시 8>에서 보았듯이 (공동)역자는 원문의 붙여쓰기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예시 7>에서는 붙여쓰기 없이 명사구 사이에서만 큰 간격을 두었고, <예시 8>에서는 모든 글자 사이에 띄어쓰기를 적용했다. 이는 일관성 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 시의 성격과 역자의 해석에 따라 번역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시의 형태도 시의 총체적 의미에 포함되며(Sullivan, 2019), 이때의 형태는 하나로 정해진 개념이 아니다. 텍스트의 의미가 독자(번역자 포함)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듯이, 형태 또한 본질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수반한다.

본 연구는 그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시의 형태적 요소의 번역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분석 내용은 제한된 언어와 제한된 텍스트 쌍에 근거하므로 결과의 일반화는 피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시인의 실험 시를 기반으로, 시의 형태적 특성이 여러 언어로, 여러 번역자에 의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형태적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나아가 번역에서의 형태적 변화가 독자 수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탐구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상빈. (2021). 「판소리는 어떻게 풍요롭게 번역할 수 있는가 - 마살 필의 <심청가> 번역을 기반으로」. 『통번역학연구』 25(4): 173-200.
- 이상빈. (2022). 「케빈 오록의 시조 번역의 구조적 특징 -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기반으로」. 『통번역학연구』 26(2): 109-132.
- 정인모. (2021). 「독일 ‘구체사와 지역학 수업」. 『교사교육연구』 60(3): 413-420.
- Albin, L. and Bae, S. H. (2019). Translators' notes. In Kim, H. *A Drink of Red Mirror* [한 잔의 붉은 거울] (J. Shin, L. Albin and S. H. Bae, Trans.). Notre Dame, Indiana: Action Books.
- Albin, L. and Bae, S. H. (근간). 「Our own Kim Hyesoon: Collaborative translation of A Drink of Red Mirror」. 『한국문학 번역의 미래를 묻다(미확정 도서명)』(조의연과 이상빈 편저). 파주: 김영사.
- Lee, P. H. (1981).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From Early Times to the Nineteenth Century*.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 Li, L. (2020). Writing and translating concrete poetry in Chinese characters. In Corbett, J. and Huang, T. (eds.), *The Translation and Transmission of Concrete Poetry*. London: Routledge, 36-55.
- Niknasab, L. and Pishbin, E. (2011). On the translation of poetry: A look at Sohrab Sepehri's *Traveler*. *SKASE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5(1): 1-22.
- O'Rourke, K. (1995). (trans.). *Poems of a Wanderer: Selected Poems of Midang So Chong-ju*. Dublin: The Dedalus Press.
- Pondian, J. D. F. (2020). The origins of the untranslatable: The earliest Western visual poetry. In Corbett, J. and Huang, T. (eds.), *The Translation and Transmission of Concrete Poetry*. London: Routledge, 21-35.
- Rutt, R. (1971). *The Bamboo Grove: An Introduction to Sij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ullivan, C. (2019). Poetry. In Washbourne, K. and van Wyke, B.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Literary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268-281.
- Underhill, J. (2016). *Voice and Versification in Translating Poems*.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 Yi, S. (2020). Cliff [절벽] (J. Jung, Trans.). In Choi, D.M. (ed. and trans.), *Yi Sang: Selected Works*. Seattle: Wave Books, 53. (Original work published 1936)

### <인터넷 자료>

- 김정연. (2022.4.29). “시는 슬픔을 더 슬픔답게 하는 장르” ... 어머니 상실 담은 시집 낸 김혜순.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518#home\(2022.10.1.검색\)](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518#home(2022.10.1.검색)).
- Reeck, M. (n.d.). Matt Reeck reviews *A Drink of Red Mirror* by Kim Hyesoon. *Asymptote*. Retrieved on May 25, 2022 from <https://www.asymptotejournal.com/criticism/kim-hyesoon-a-drink-of->

<분석 자료>

김혜순. (2004). 『한 잔의 붉은 거울』. 서울: 문학과지성사.

Kim, H. (2016). *Un verre de miroir rouge* [한 잔의 붉은 거울] (C. Yee and L. Angheben, Trans.).  
Fuveau: Decrescenzo Éditeurs.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Kim, H. (2019). *A Drink of Red Mirror* [한 잔의 붉은 거울] (J. Shin, L. Albin and S. H. Bae, Trans.).  
Notre Dame, Indiana: Action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This paper was received on 25 October 2022; revised on 4 December 2022; and accepted on 20 December 2022.

---

***Author's email address***

sblee0110@naver.com

***About the author***

Sang-Bin Lee is a Professor of Translation Studies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EICC)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is articles on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have been published in many scholarly journals, including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Acta Koreana*, *Translation Review*, *Pönyökhak yön'gu*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T'ongyökhwa pönyökh*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nd *T'ongbönyökhak yön'gu*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 문화적 귀속으로서의 번역

- 위화 소설 『제7일』 한역본 및 영역본 서평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이지영\*

**Ji young Lee (2022). Translation and Cultural Appropri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ook reviews of Yu Hua's work "The Seventh Day" in Korean and English.** *This article analyzes the reception of Yu Hua's novel "The Seventh Day" in Korean and English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the context of debates about the role of translation. Departing from Venuti's theorization of cultural appropriation and tracing the main factors that have shaped the reception of the translations of the novel into Korean and English, it focuses on the case of "The Seventh Day" through an analysis of newspaper and magazine reviews published in Korea and the U.S. Issues discussed include the cultural differences in the reception towards the novel and the degree of interconnection between the cultural value and its reception at the transnational level. The case of "The Seventh Day" points to the preference of a family-oriented narrative in framing the novel for reception by a Korean readership, and the meta narratives on China that circulate in the West in framing the novel for reception by an American readership as the cultural discourses at work. This article identifies the importance of the theory that understands translation in terms of cultural appropri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Keywords:** book review, cultural appropriation, Venuti, the Seventh Day, Yu Hua

주제어: 서평, 문화적 귀속, 베누티, 제7일, 위화

---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강사

# 1. 서론

2013년 6월, 위화(余華)의 소설 『제7일(第七天)』이 중국에서 출간된 후 이 장편 소설은 『형제(兄弟)』 이후 7년 만에 다시 중국의 언론매체 및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심혜영 2017 ; 張清華, 張新穎 2013). 작품 내용과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작가 위화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대다수가 거론하려 하지 않는, 사회의 사건사고를 간결한 언어로 묘사했다”<sup>1)</sup>, “일관된 현실 비판 의식으로 중국사회의 황당함과 잔혹함을 담았다”<sup>2)</sup> 등 높은 평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를 압도하는 혹독한 비판이 잇달았다. “인터넷 뉴스들을 진부하고 아둔한 언어로 꼬치 꿰듯이 엮어놓았다”, “7년 동안 칼을 갈아 내놓은 것이 고작 블로그 내용을 모아놓은 ‘신문기사 모듬’이다” 등 소설에 나오는 각종 에피소드들을 인터넷 기사에 기반하여 엉성하게 늘어놓았다는 부정적 논평이 줄을 이었다.<sup>3)</sup> “서구의 취향에 영합하기 위해 창세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고 미국이 관심가질 만한 사건들만 반영했다” 등의 신랄한 논평도 있었으며, 심지어 “위화의 소설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작품이다”<sup>4)</sup> 등과 같은 극단적인 논평까지 출현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위와 같은 혹평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호의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자국의 엘리트 독자 및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과 미국의 여러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및 온라인 서점 서평들은 일제히 『제7일』을 높게 평가했다. “세계가 사랑하는 작가이자 중국 최고의 이야기꾼인 위화가 소외된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중국사회의 부조리마저 유머러스하고 흡인력 있는 이야기로 탈바꿈시켰다”<sup>5)</sup>, “『제7일』의 주인공 양페이(楊飛)의 사후 여정은 그의 광활한 조국의 부조리와 슬픔의 윤곽을 드러내 보여준다”(Wang and Barr 2013: 234) 등의 호

---

1) 余华《第七天》引发探讨:小说如何深度表现当代中国, 中国作家网, 2013年 07月19日, <http://www.chinawriter.com.cn/2013/2013-07-19/167729.html> (2022.7.12. 검색).

2) 余华出长篇《第七天》冷静看批判, 新浪娱乐, 2013年 07月 30日, <http://ent.sina.com.cn/s/m/2013-07-30/14273975826.shtml> (2022.7.12. 검색).

3) 余华《第七天》:七年是否磨钝剑?, 中国文明网, 2013年 06月 27日, <http://www.wenming.cn/> (2022.7.12. 검색).

4) 余华回应《第七天》争议:交稿时就等着大家来骂, 重庆晨报, 2013年 06月 27日, [http://caijing.chinadaily.com.cn/2013-06/27/content\\_16671104.htm](http://caijing.chinadaily.com.cn/2013-06/27/content_16671104.htm) (2022.7.12. 검색).

5) ‘허삼관 매월기’ 위화의 새 장편소설 ‘제7일’, 주간현대, 2013년 9월 22일, <http://www.hyundaenews.com/7046> (2022.6.1. 검색)

의적 서평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번역서 『제7일』은 한국과 미국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양국의 독자에게 동일한 의미와 특징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양국의 가장 광범위한 독자층에게 소개되고 설명될 때 각각 집중하는 관심사나 강조점이 달랐다. 즉, 중국 소설 『제7일』은 번역을 거쳐 한국과 미국이라는 상이한 목표문화권에서 소개되고 이해될 때, 독자적인 번역서가 되어 특정 담론이나 관심사를 반영하고 선호하는 수용 양상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소설 『제7일』이 번역서 서평을 통해 소개되고 이해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2010년대 두 목표문화권에서 그 리뷰 양상의 특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7일』의 한역본 및 영역본 곁텍스트와 메타텍스트 담론<sup>6)</sup>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 번역을 거친 이 작품의 초국적 이해과정은 한국적 특수성과 미국적 특수성을 내장하고 있었다. 또한 번역을 통한 작가 및 문학작품의 수용 양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 『제7일』의 경우도 번역을 거쳐 목표문화권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의 진폭이 달라졌음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공시적 맥락에서 번역서 『제7일』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해의 특이성을 천착하고 비교 분석하려 한다. 분석의 주제로 삼은 것은 『제7일』의 한국적 수용과 미국적 수용의 특징 및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자국적 담론 및 가치이다.

---

6) 본고에서는 한역본 곁텍스트와 서평 16편 및 영역본 곁텍스트와 서평 14편을 분석하였다. 번역서의 곁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추천사, 작가소개, 역자후기, 작품해설 등 번역된 본문텍스트를 부가설명해주는 텍스트를 가리킨다. 이지민과 한류혜가 제안한 정의를 따른다면 번역된 곁텍스트와 번역본 곁텍스트로 나누어볼 수 있다. 번역된 곁텍스트는 원서의 곁텍스트가 번역된 것을 가리킨다. 번역본 곁텍스트는 번역된 곁텍스트를 제외하고 목표문화권에서 새로 추가된 곁텍스트를 가리킨다. 번역본 곁텍스트는 다시 번역본 주변텍스트(peritext)와 번역본 바깥텍스트(epitext)로 나뉘는데 전자는 번역된 본문텍스트와 공간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번역가 서문, 저자 소개, 작품해설, 삽화 등을 나타낸다. 후자는 번역서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나 기사 광고 등을 가리킨다(이지민, 한류혜 2022: 6).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하는 서평은 번역본 바깥텍스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 번역서의 서평을 메타텍스트로 지칭한 것은 이 번역본 바깥텍스트가 번역된 본문텍스트의 배경지식 및 해석방향을 부연설명해주는 동시에, 목표문화권의 번역기회 및 담화전략을 명시해주는, 본문텍스트에 대한 메타적 기능을 부각하기 위함이다(Pellatt 2013: 1-2).

## 2. 이론적 배경

### 2.1. 문화적 귀속으로서의 번역 (Translation as Cultural appropriation)

Bassnett & Lefevere(1990: 4-11)은 1990년 출판된 논문집 『번역, 역사 그리고 문화(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의 서문에서 “언어학적 번역 연구가 등가성 규범만을 강조해왔으며 연구 대상 단위(unit)도 단어에서 텍스트로 옮겨갔을 뿐, 그 이상을 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를 비판한다. 아울러 번역학의 발전은 번역이 결코 ‘순수하지 않으며’번역이 발생하는 맥락과 텍스트가 번역되는 역사가 항상 존재해왔음을 보여준다고 역설한다. 그들은 언어학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번역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 사이의 비교 작업을 배척한다. 이 고단한 작업이 일반적으로 ‘제 3의 비교점(tertium comparationis)’에 기반하여 어떤 번역이 다른 번역보다 낫다는 ‘비가시적인 이론(invisible theory)’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Bassnett & Lefevere(1990: 11-12)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언어학적 접근법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란 핵심 개념을 제시한다. 상술한 논문집에 수록된 모든 논문은 이 문화적 전환이란 공통된 목적을 공유하는 동시에 주장한다. 여기서 문화적 전환은 등가에 기반한 ‘과학적인’언어학적 접근법을 버리고 연구 대상 단위를 텍스트에서 문화로 확장시키는, 중대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번역과 문화 사이의 상호 작용을 전제하면서 맥락, 역사, 관습 등 광범위한 이슈(the larger issues)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즉, 연구 대상이 재정의되어 번역 과정에 작동하는 문화적 요소들이 주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 문화적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목표문화권의 권력 및 조작과 연관되어 있다.

논문집 『번역, 역사 그리고 문화』가 출간된 이후 번역 연구는 본격적으로 그것의 패러다임을 교체하게 된다. 문화적 전환이란 연구 패러다임은 1990년대 약 10여 년 동안 특히 각광을 받게 되는데, 이는 번역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전환은 연구 대상 단위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며 일반적으로 번역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소 및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학의 이미지를 연구한다. 따라서 목표문화권의 통제요소에 의해 야기되는 번역현상에 대한 시각이 마련되어 새로운 연구 영역이 열리게 된다. 특히 연구 대상 단위를 문화라는 전체로 보는 넓은 시각은 번역 수용에 있어서 관련 동인(動

因) 탐색이라는 관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통해서 기존의 언어쌍 비교와 등가성 규범에 번역 연구를 근시안적으로 접근시키는 문제가 극복되어 특정 수용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및 원인이 찾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문화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번역을 연구하지는 움직임에서 번역은 역동적인 흐름을 지닌 작업이나 버전(version)으로 인식된다. 원천텍스트는 번역을 거쳐 완전히 동일한 목표텍스트로 재현될 수 없다. 원천텍스트를 수용하는 목표문화권의 언어, 미학적 관습, 독자의 기대 등이 원천문화권의 그것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세대와 시공간에 따라 기준 및 선호군(群)이 달라지는 문화번역은 텍스트의 지속적인 변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은 필연적으로 부분적인 작업으로 전환되는데 원천텍스트에 내포된 내용과 의미는 번역을 통해 전달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거꾸로 말하면, 번역을 거친 목표문화권의 목표언어에는 원천텍스트에 대한 해석 양상을 나타내는, 필연적인 특징들이 수반된다. 원천텍스트가 번역텍스트에서 재구조화되거나 재맥락화되고 목표문화권 독자들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번역서를 둘러싸고 결텍스트 요소들이 첨가되는 것 등이 전형적인 특징이다(Bassnett 1990: 169-177).

동일한 맥락에서 번역은 르페브르에 의해 다시쓰기(rewriting)로 정의된다. Lefevere(1990a: 2-28)는 그의 저서 『번역, 다시쓰기 그리고 문학 명성의 조작(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에서 번역, 문학 구성 선집 anthologization), 역사 기술, 비평, 편집, 결텍스트, 각색, 요약 등에 작동하는 다시쓰기가 문학작품의 수용과 정전화(canoniz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경우 ‘리라이팅 작업’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지배적 문학사조인 포에틱스(poetics)에 따른 특정 목적을 위해 대체로 문학작품을 조작한다. 따라서 번역을 통한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은 문화와 역사라는 광범위한 이론적 틀(framework)에 놓여지며 문학작품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이 함께 고찰된다. 그는 특히 문학작품의 번역을 통한 수용과 정전화를 지배하는 매우 구체적인 요소들, 즉 권력, 이데올로기, 제도, 조작 등의 이슈에 관심을 집중한다. 문학을 역동적인 다중시스템의 구성체로 간주하는 폴리시스템(polysystem) 이론의 영향을 받은 Lefevere에게 있어서, 번역을 비롯한 다시쓰기를 통제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문학시스템 내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보유한 전문가 집단과 문학시스템 밖에서 강력한 권력을 지닌 후원자 집단 그리고 당대의 지배적 문학사조인

포에틱스이다. 이 중 문학시스템 내의 비평가, 작가, 번역가 등 전문가 집단이 ‘다시 쓰는’ 비평은 특정 문학작품이 목표문화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와 일반 대중의 문학 소비 흐름을 지배하고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 문학작품을 심도 있게 고찰한 후 가치 판단을 내려 원천텍스트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와 충돌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목표문화권에 동화되고 편입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건을 모색하여 원천텍스트에 대해 수용 가능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번역과 비평을 거쳐 목표문화권에서 그것의 이미지가 새롭게 기획되고 형성되어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간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와 특성을 부여받아 새로운 문화적 맥락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상술한 번역 연구의 문화학적 관점과 번역에 대한 문화적 정의가 가리키는 번역의 핵심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는 목표문화권으로의 귀속(appropri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선정되지 못한 외국텍스트의 배제, 원천텍스트의 선정, 번역의 담론전략 개발, 번역결과물의 순환에 이르기까지 번역의 모든 단계는 목표문화권의 관심사, 가치, 신념 등에 의해 조정된다. 번역은 원천텍스트를 충실하게 재생산하는 대신, 수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만한 것들을 반영하는 해석을 원천텍스트에 각인시킨다. 이 각인 과정에서 원천텍스트에 내포된 의미, 가치, 기능 등의 복합체는 번역을 거쳐 ‘수용자 문화권’으로 건너오면 부족해지거나 초과된다. 수용 상황과 분리될 수 없는 번역은 자국의 특정한 독자층이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을 원천텍스트에 각인하여 원천텍스트를 자국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귀속 과정은 특정 번역 전략에 따라 원천텍스트를 목표문화권의 담화들로 다시 쓰는 작업 중에 가장 강력히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번역 전략이 결국 목표문화권에서 중시되는 문화적 가치들의 취사선택을 수반하기 때문이다(Venuti 2011: 180-183).

영미문화권의 자국 중심적인 ‘자국화 번역(domesticating translation)’을 비판해 온 Venuti(2006)는 그의 저서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The scandals of Translation)』에서 번역의 ‘잘못된’ 상황(circumstance)이나 상태(condition of things)를 고발하면서 번역을 둘러싼 다양한 차원에서의 불균형과 불평등한 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번역하는(translating) 문화에 봉사하는 행위로서의 번역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이 책에서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성서 번역부터 일본 현대소설의 영어 번역에 이르기까지, 자국화 번역 방식 가운데 하나인 문화적 귀속에 관한 광범위하고 적절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원천텍스트를 ‘수용자 문화’

에 귀속시키는 번역은 어떤 외국텍스트의 자국적 동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달리 말하자면 번역 작업은 필연적으로 자국 문화 가운데 순환하는 특정 문화적 가치 및 규범들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자국적 동화의 구현 과정은 일반적으로 원천텍스트가 특정 번역 전략에 따라 번역텍스트 담화로 다시 쓰여지거나, 번역텍스트를 둘러싼 메타텍스트가 특정 문화적 담론 안에서 쓰여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일례로 청말의 대표적 문학번역가였던 린수(林緒)는 번역 작업을 수행하면서 서구 소설의 선별에서나 번역을 위한 담화 전략의 전개에서 외국 것을 친숙한 유교적 전통에 동화시킴으로써 즉각적인 가독성과 공감적 동일시를 획득하였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조가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던 20세기 초, 그는 중국 전통의 유교적 가치들에 동화될 수 있는 외국텍스트들을 선별하여 문언(文言)이라는 고전 중국어로 옮겼다. 그는 1899년 소(小) 뒤마(Alexandre Dumas fils)의 연애소설 『춘희(La Dame aux camélias)』를 『파리 다화녀가 남긴 이야기(巴黎茶花女遺事)』로 번역하여 출간하면서 이 원작의 여주인공 마르그리트를 고대 중국의 충신인 관룡봉(關龍逢)이나 비간(比干)에 비견하여 청말 대다수 지식인 사대부층의 눈시울을 뜨겁게 붉혔다. 위 두 충신이 그들의 황제 걸왕(桀王)과 주왕(紂王)을 섬겼던 것처럼 고급 창부 마르그리트가 그녀의 연인 아르망을 지극히 섬겼음을 번역텍스트에 삽입된 개인적 감상에서 강조하여 전통적 유교적 가치 가운데 하나인 충성심을 부각하고 호소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번역 작업은 청조는 체제이완과 외부충격으로 급속히 침식되고 있었지만 청조의 유교적 가치는 아직 건재하여 원천텍스트에 투영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작에서는 방탕한 삶을 살던 여주인공이 사랑의 희생을 통해 하느님에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기독교적 해석이 편찬 의도의 주를 이룬다. 하지만 린수의 번역에서는 번역가의 논평과 의견을 삽입하는 기법을 통해 원작의 기독교적 의미가 완전히 삭제되고, 남녀 간의 사랑을 황제에 대한 충성을 은유하는 코드로 활용했던 중국고전시가의 문학전통이 전경화되었던 것이다(김소정 2014; Venuti 2006).

문화적 귀속으로서의 번역을 분석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상술하였듯 번역텍스트를 살펴보는 것 이외에, 번역서에 대한 개별 비평(review), 즉 서평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간지, 주간지, 문예지, 기타 잡지 등 다양한 정기간행물에 실린 번역서에 대한 서평은 번역서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독자들이 미리 그 작품에 대해 인상을 가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작품의 저자와 번역서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을 드러내면서 목표문화권의 번역서에 대한 관념 및 시각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자민족 중심주의적 자국화(ethnocentric domestication)’라고 볼 수 있는, 특정 문화적 요소를 각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안미영 2019; 이형선 2021; Bielsa 2013; Gouanvic 1997; Kershaw 2010; Rabut & Pino 2019; Venuti 2006). 이러한 선행연구의 사례로서 Kershaw(2010)는 유대인 출신 프랑스 작가 이렌느 네미로브스키(Irène Némirovsky)의 소설 『스위트 프랑세즈(Suite française)』가 영국이라는 목표문화권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보기 위해 번역 비평 이외에 이것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서평을 분석한 바 있다. 『스위트 프랑세즈』는 이렌느 네미로브스키가 1942년 7월 헌병대에 의해 아우슈비츠(Auschwitz)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까지 집필되던 작품이다. 1942년에 쓰여졌지만 그녀 사후 62년 뒤인 2004년에야 출판이 되었다. 엄마의 원고를 간직하고 있던 큰 딸은 이 원고가 어머니의 고통스런 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줄곧 꺼내지 못하다가, 1998년에야 읽기 시작했고 이것이 일기가 아닌 소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출판사를 접촉했고 이 소설은 2004년 프랑스에서 출판되어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소설은 전쟁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상황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았다. 프랑스에서는 출간 당시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는 점과 소설 원고의 극적인 발견 및 문학상 수상이라는 측면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되었다. 영국에서는 2006년에 번역, 출간되었는데 당시 영국의 유력 일간지 및 주간지 서평은 이 소설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소설의 주제 및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즉,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허구적 재현, 홀로코스트(Holocaust), 나치 독일의 괴뢰정권이었던 비시(Vichy) 정부 하의 유대인 작가의 운명 등의 내용이 강조된 것이다. Kershaw는 이에 대해 홀로코스트라는 주제는 일반적으로 대다수 서유럽 독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문화적 요소인데, 서유럽 독자들이 대체로 희생자와 생존자가 남긴 진실된 증언에 매혹되는 반면, 영국 독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홀로코스트와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엄청난 호소력을 지닌다고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Kershaw가 분석한 문화적 관심사의 차이는 『스위트 프랑세즈』의 경우에도 유효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작품 서평은 영국과는 상이한 반응을 보였는데, 소설의 주제 및 문학적 특성보다는 작가의 삶과 연관된, 작품 속 ‘사실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했다. 즉, 작가의 전기적 요소에 기반한, 작품의 ‘진정성(authenticity)’에 보다 많이 주목했던 것이다.

본고는 상술한 선행연구의 연구방법론에 기반하여 소설 『제7일』의 초국적 수

용을 문화적 귀속이라는 번역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제7일』의 한역본과 영역본의 겹텍스트 및 서평(한역본 16편, 영역본 14편)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특정 번역서에 대한 개별 비평, 즉 서평은 목표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순환하는 번역텍스트에 대한 일반적 메타 담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번역서의 서평은 해당 번역텍스트가 어떠한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생산되고 수용되며 소비되어 왔는지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온 바 있다(Gürçağlar 2002: 44-59). 이 글에서는 번역서 서평 분석을 통해 번역서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해당 목표문화권의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번역의 문화적 귀속 측면을 기술한다.

### 3. 『제7일』 작품 소개

위화의 장편소설 『제7일』은 이승의 삶을 마친 양폐이가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떠돌며 ‘죽어서도 매장되지 못한’, 서러운 영혼들을 하나둘씩 만나면서 이승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는 이야기다. 중국의 속설에 따르면 이승에서 애도하는 이도 유골함도 묘지도 없이 죽은 사람은 저승이라는 ‘안식의 땅’에 갈 수 없어 ‘중간지대’를 떠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이 소설에서 ‘7일’이라는 시공간이 인생을 마감한 모든 영혼에게 대입된다. ‘7일’은 묘지에 안장되기 전 이승의 잊지 못할 인연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식당 화재 사고로 죽은 양폐이는 7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등을 차례로 지내면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데, 이야기는 그가 이승의 삶에서 마주치고 겪었던 인연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양폐이는 죽은 뒤 7일 동안 삶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죽은 인연들을 차례차례 만난다. 자신을 친아들처럼 젖을 먹여 키워주고 아껴주었던 이웃집 리아줌마, 예쁘고 똑똑했지만 가난이 싫고 야심이 많아 사업가를 따라갔다가 끝내 고위관료의 정부로 자살한 아내, 산아제한 정책으로 강제 유산되어 강에 버려진 스물일곱구의 영아 시체, 경찰에게 취조받다가 고향을 걸어차여 성불구가 되었다며 공안국 대문 앞에서 3년 동안 시위를 지속해온 여장매춘남 리씨, 양심을 품은 리씨에게 공안국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한 젊은 경찰, 경찰의 모진 고문에 정신병이 있는 아내를 죽였다고 허위자백을 한 뒤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농부, 당국의 무자

비한 강제 철거 작업에 집에서 잠을 자다 압사당한 부부, 양페이와 함께 식당 화재 사고로 죽은 국수집 사장, 지하 방공호에서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사준 아이폰 4S가 가짜임을 알게 된 후 속았다는 배신감에 투신자살한 미용실 직원 슈메이(鼠妹), 죽은 여자친구 슈메이의 묘비와 묘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신장을 밀매한 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우차오(伍超), 기차역의 젊은 선로전환공이었지만 철길에서 주워온 양페이를 애지중지 기르다가 결혼도 못하고 은퇴한 후 림프암으로 죽은 양아버지 양진바오(楊金彪).

그리고 양페이가 이러한 소중한 인연들과 7일 동안 조우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승의 비참한 사건사고가 날카롭게 묘사된다. 현대중국 사회의 극심한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사실적으로 고발되고 비판되는 것이다<sup>7)</sup>. 양페이와 그의 소중한 인연들의 죽음은 모두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 같이 자살 혹은 사고 사이다.

죽은 지 첫째 날, 양페이는 자신이 단골 식당 국수집에서 헤어진 전 부인의 자살 기사를 읽다가 망연자살하여 화재 사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즉사했음을 알게 된다. 국수집 사장님은 단골손님이었던 양페이에게 식당의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안, 소방, 위생, 세무 같은 부서에 뇌물이나 선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경찰이나 소방관, 보건과와 세무서 직원들이 특하면 찾아와 잔뜩 먹고 마신 다음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린다고 토로하곤 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탄자신(譚家鑫)식당의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한 고위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과로사로 보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 시장이 호텔에서 모텔과 최고조에 다다를 즈음 돌연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시장의 사망 보도 이후에는 한 법학과 교수가 등장하여 주택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시위 사건에 대해 폭력 사건이라고 비난한 다음, 민중은 정부를 믿고 이해하며 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료의 부패, 언론 조작, 권력에 영합하는 지식인이 고발되고 비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날에는 양페이의 아내였던 리칭(李靑)이 육조에서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리칭은 양페이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한 사업가의 유혹에 넘어가 양페이와 헤어지고 사업가와 재혼한다. 그녀는 고위관료의 정부가 되어 성공한 사업가로 변모하지만, 결국 공무원과 결탁된 비리에 연루되어 마지막까지

---

7) 학술계에서도 김명희(2018), 김현주(2022), 황정일(2015), 潘英淑(2022) 등은 이 소설을 중국사회의 부조리 비판 중심으로 독해한 바 있다.

양페이를 추억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리칭이라는 중국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상징하는 인물을 통해 중국사회의 정경유착과 권색결합(權色結合)이 폭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날에는 양페이의 아버지가 집에서 사라진 날, 양페이가 거주하는 도시에서 발생한 쇼핑몰 화재 사건이 다루어진다. 텔레비전 뉴스는 이 화재 사건의 사망자 수가 일곱 명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인터넷 소식은 관련 사망자 수가 이미 백 명이 넘었다고 보도한다. 한편, 리아쭈마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다가 다리를 건널 때 강물에 갇난아이들의 시체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한다. 올곧은 성격의 리아쭈마는 그냥 집에 가지 않고 장비구니를 든 채 신문사로 향한다. 오전 내내 두 명의 기자와 십 여 명의 시민이 스물일곱 구의 영아 시체를 찾아낸다. 하지만 도시의 신문사는 위선의 지시를 받아 위 두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신지 않는다. 리아쭈마는 며칠 뒤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다. 영아 유기 사건과 권언유착이 고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날에는 미용실 직원으로 일하는, 가난한 연인 슈메이와 우차오가 등장한다. 이들은 전형적인 2세대 농민공으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는 ‘쥐족(鼠族)’이다. 지하 방공호에 거주하는 중국의 젊은이들은 쥐처럼 지하에서 나와 하루 동안 일한 뒤 다시 지하로 돌아가기 때문에 ‘쥐족’이라 불린다. 현대중국 사회의 극심한 빈부 격차가 폭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날에는 건물 세 동을 철거하기 위해 시에서 파견한 사람들과 이사를 거부하는 주민들이 대치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오전에 화성기의 경고 방송이 끝나고 강제 철거 작업이 시행되었지만 정씨 부부는 야근을 하고 새벽에 들어와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대로 매몰된다. 정씨 부부의 초등학교 딸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무너진 집 앞에서 숙제를 하며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당국의 무자비한 강제 철거가 날카롭게 폭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날에는 신장을 팔기 위해 장기 밀거래소에서 지하생활을 시작한 우차오의 모습이 묘사된다. 우차오는 어서 빨리 자신의 조직과 맞는 사람이 나타나 신장을 판 다음 자살한 여자친구 슈메이에게 모비와 모지를 마련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신장을 적출하고 일주일 뒤 지하 방공호의 거주지로 옮겨왔지만 고열이 내리지 않아 수차례 정신을 잃고 결국 이승에서 눈을 감는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장기밀매가 폭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날에는 아버지를 찾아 헤맸던 양페이의 사후 여정이 완성된다. 그는 ‘중

간지대'의 화장대기실에서 화장을 기다리는 영혼을 안내하는 아버지와 재회한다. 이승에서 양폐이의 아버지는 은퇴 후 림프암이라는 불치병에 걸린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아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아 자신의 치료에 전념하자 아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집을 나간다. 양폐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먼저 죽었는데도 죽은 양폐이를 보자마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작가 위화는 위와 같이 움니버스 구조의 에피소드를 통해 현대중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고발한다. 하지만 비판적 시선으로 여러 사건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서글픈 민중의 사연을 그려낸다. 즉, 인간의 따스한 공감과 연민의 마음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sup>8)</sup>. 양폐이의 아버지 양진바오는 철길에서 주워온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려운 살림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포기한 채 양폐이를 애지중지 키우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 양진바오의 이웃인 하오창성(郝强生)아저씨와 리웨전(李月珍)부부도 양폐이를 함께 정성껏 돌봐준다. 양폐이 역시 불치병에 걸린 아버지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고 병구완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다음 매일 밤 아버지 곁에서 잠든다.

무엇보다 이 소설에서는 이승에서 애도해줄 이가 없어 저승의 안식의 땅에 갈 수 없는 영혼들이 '중간지대'의 따뜻한 휴식처에서 서로를 위로한다. 이 휴식처에서 '죽었지만 매장되지 못한 이들'은 이승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치료하며 서로에게 정신의 안식처가 되어준다. 여장남자 매춘남에게 살해된 경찰과 이로 인해 사형당한 매춘남은 이곳에서 함께 바둑을 두며 한담을 나누는 절친한 벗으로 변한다. 이승에서 남자친구 우차오가 신장을 팔아 유골함과 묘지를 마련해주고 진심으로 애도해준 덕분에 저승으로 가게 된 슈메이의 몸을 저승으로 가지 못한 영혼들이 꽃과 풀과 강물로 씻어주고 축복해주며 배웅해주는 광경은 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위화의 장편소설 『제7일』은 몽환적 형식으로 실제 사건을 구성하여 현대중국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동시에 공감과 연민의 마음으로 냉혹하고 억압적인 현실을 버려내는 소시민의 삶을 생생히 그려낸다. 이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곁을 나눌 이'가 아닌가를 되묻는, 빛나는 수작이다.

---

8) 심혜영(2006), 洪治綱(2013), 劉勇(2006) 등은 1990년대 위화의 문학실천 전환을 논하면서 공감과 연민을 위화 창작의 새로운 토대로 제시한 바 있다.

## 4. 『제7일』 한역본 및 영역본의 서평 비교 분석

본장의 사례 분석에서는 2장의 이론적 배경 및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위화의 장편소설 『제7일』의 한국적 서평과 미국적 서평 특성을 살펴보면서 그것의 문화적 귀속 현상을 기술하기로 한다. 분석대상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원전 『第七天』은 중국의 신성(新星)출판사가 2013년 6월에 발간하였다. 한역판 『제7일』은 문현선이 번역했고 도서출판 푸른숲이 2013년 8월에 출간하였다. 영역판 『The Seventh day』는 앨런 바(Allan H. Barr)가 번역하였고 앵커북스(Anchor Books)가 2016년 1월에 출간하였다.

### 4.1. 『제7일』의 한국적 서평

한국에서의 『제7일』에 대한 전반적인 비평 양상 가운데 하나는 현대중국 사회 비판을 주요 입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서평은 책의 주제를 현대중국 사회의 부조리 및 불평등 고발로 기술하고 있다. 일간지 『세계일보(世界日報)』의 서평 제목은 ‘죽은 자들이 고발하는 부조리한 세상’이고 주간지 『시사인(시사 in)』의 서평 제목은 ‘저승도 못 가게 하는 부자들의 천국’이다. 세계일보의 문학전문기자 조용호가 쓴 서평 기사(2013. 8.30)는 다음과 같이 『제7일』이 현대중국 사회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이라는 목표문화권에 수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 작가 위화의 장편소설 ‘제7일’이 국내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죽은 자들을 화자로 내세워 산 자들의 세상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작품이다. 주인공 양페이(양페이가 스스로 상장(喪章)을 달고 자신을 소각하러 화장장인 빈의관(殯儀館)에 갔다가 7일 동안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떠도는 이야기가 축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의 해일에 휩싸인 현대중국 사회의 부조리와 슬픔을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드러낸다. 이 작품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대로 판타지 기법을 도입한 측면이 눈에 띄지만, 문학적인 완성도보다 현대중국 사회의 만화경을 위화 스타일로 소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작가 위화도 『제7일』의 출간과 맞춰 이루어진 방한 인터뷰를 통해 “『제7일』은 허구가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두었다. 지금의 중국은 소설보다 실제 모습이 더 황

당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의 대다수 서평자들 역시 “현재 중국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다. 불평등을 소설로써 다루고 싶었다(채널에스 2013. 10.4)”는 위화의 메시지에 화답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제7일』비평 양상은 미국에서의 그것과 비교할 때 작품에 내재된 휴머니티 정신과 가족 서사에 보다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한국 서평자들은 작가 위화의 보편적인 휴머니티 관점에 대해 찬사를 던졌다. 그것은 작가 위화의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인간의 따뜻한 본성에 대한 믿음이었다. 『경향신문』의 서평자(2013. 8.30)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위화의 소설이 이처럼 소시민들의 몰락하고 망가져가는 삶을 그리면서도 유머와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은 그들에 대한 작가의 애정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의 서평(2013. 9.8) 역시 인간 존재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면서 작중인물들이 타인을 수용하고 공감하며 애도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을 전제하면서 『제7일』을 이승에서 인간적 존재의 가능성이 파괴된 채 죽어간 사람들에게 바치는 한판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애도소설이라고 평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은 서로 지독히도 사랑했다. 부모는 자식을 찾아다니고 연인은 연인을 찾아다니고 죽어서도 그들이 사랑했던 기억을 끝없이 더듬고. 그러나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였어도 너무 슬펐다.” 『서울신문』의 서평도(2013. 8.31) 이 소설이 극심한 양극화와 부정부패를 겪는 중국사회의 극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고 평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연민, 희생, 헌신, 화해 등 인간의 따뜻한 심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작가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을 끝내 놓지 않은 이유다. 개인의 행복까지 포기하면서 양폐이를 길러낸 아버지는 불치병에 걸리자 자식에게 짐이 될까 홀연히 떠난다. 남성 매춘부에게 살해된 경찰과 6개월 뒤 사형당한 이 매춘남은 죽어서 바둑을 두는 절친한 벗으로 변한다.”

한국의 서평자들은 또한 가족이란 친근한 코드에 초점을 맞추며 『제7일』을 하나의 가족 서사로 소개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일보』의 서평은(2013. 9.3) 다음과 같은 인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웃음소리처럼 마냥 즐거워, 나는 내가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먹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 내가 철도 위로 떨어진 뒤 아버지의 인생길은 순식간에 좁아져 버렸다.” 이는 피로 낳은 부모가 아니라도 희생과 헌신으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뜨거운 부정을 부각한다. 나아가

이 책의 줄거리를 “사고로 버려진 아이를 총각의 몸으로 키우는 아버지와 그들을 돌봐주는 아버지 친구 부부의 이야기”로 요약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유사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과 서로를 증오하는 혈연 가족의 모습을 대비시킨다”고 평함으로써 작품을 ‘가족이야기’의 형식에 담아낸다. 물론 여기서 가족은 피의 결사인 혈연공동체를 넘어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연합의 공동체’를 가리키며, 그들의 이야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서로를 위해주고 끌어안는 식구로 거듭나는 서사로 볼 수 있다. 위 서평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제7일』이 끝내 가족구성원 간의 사랑과 결속을 지켜내는 가족서사로 읽혀질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의 서평(2013)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작품의 줄거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기차가 낳은 아이’양페이는 태어나면서 생모와 이별하고 철도 선로 인부였던 아버지에게 극적으로 구출되어 그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 양페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나서 7일 동안 연옥에서 이승의 인연들을 만나 사랑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가족애와 가족 유대의식에 기반한 가족서사의 형식으로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설에서 주인공 양페이가 죽은 후 ‘중간시대’에서 궁극적으로 찾고자 했던 이승의 인연은 그를 무한한 헌신과 사랑으로 길러주었던 아버지였다.

『제7일』에 대한 한국이란 목표문화권의 호의적 서평은,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소설 수용의 일반적 특징을 이루는 현대중국 사회 비판, 휴머니즘, 가족 서사의 경향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 서사 형식의 독법은 이 소설을 한국 문화를 지배하는 일반적 가치에 동화시키는 대중미학적 접근 방식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전성옥은 위화 소설의 한국적 수용 양상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독자들에게 특히 호응을 얻은 네 편의 장편소설 『인생(活着)』, 『허삼관매혈기(許三觀賣血記)』, 『형제(兄弟)』, 『제7일』을 가족 서사 계보에 소속시키며, 한국의 출판시장에서 이들 소설의 선전은 이 작품들의 중국적 특색을 능가하는 가족 서사적 보편성에서 주요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고찰한 바 있다. 가족 서사의 보편적 동력은 가족이란 유기적 전체를 그 파괴세력에 맞서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욕망인데, 위의 네 편의 장편소설이 모두 이 욕망이 점철되어 있는 ‘가족수난사’를 전경화시

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위화의 장편소설에서 가족 서사를 둘러싼 중국 근현대사는 후경화되어 그것의 역사적 배경이 진지한 표현의 대상으로 고뇌되기 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내야 하는 거대한 속박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그는 ‘가족수난사’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풀어낸 위화의 장편소설의 서사적 특질이 소설, 영화,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가족 서사가 압도적인 한국 대중문화의 유력한 경향에 부합하여 위 장편소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수용을 결정지었다고 진단한다(전성욱 2015: 168-173).

기실 가족 서사에 대한 열광은 현대한국 사회 공통의 감수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0)』와 『국제시장(2014)』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다수 기성세대 한국인은 가족애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가족이야기에 열광하며 가족 사랑이란 감정에 의지하여 현실을 긍정하는 자세를 보인다. 가족이야기를 선호하는, 한국 문화의 이 특유한 현상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이고 가족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행동을 낳는 가족주의(familism)라는 관념에 기인한다. 가족주의는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다른 모든 사회적 관계에 우선하고 가족 간에 적용되는 가치나 규범이 다른 사회적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상의 기반이 된다. 한국 사회 특유의 가족주의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김동춘과 이명호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자기 혈족 이외의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고 생활의 보급이 오직 가족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 사회의 특징에서 유래했으며 현대사회에서도 정치사회적 신뢰의 상실이 가족주의를 오히려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김동춘 2020; 이명호 2013).

『제7일』의 한국적 서평에 작용한 ‘가족 서사 코드’는 상술했듯 한국의 광범위한 일반 독자들에게 의해 공유되는 것들이었다.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소설의 즐거리를 헌신적인 아버지와 이에 보답하는 아들의 이야기로 요약하고 주인공이 거치는 사후세계의 7일 간의 여정을 잊지 못할 이승의 인연을 다시 만나 사랑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가족 서사 선호라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 문화적 가치에 부응하는 선택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번역서 『제7일』의 비평 담론의 한 축에는 가족 서사라는 대중 미학이 각인되어 있으며 이에 기반한 서사적 모티프가 전면부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역본 앞표지와 뒷표지의 겹 텍스트 문구 역시 이러한 유추를 더욱 강화시킨다. 앞표지의 문구는 작품의 주제를 “이승과 저승에서 영원한 인연을 다시 찾은 7일간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표현한 뒷표지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조금도 두렵지 않단다. 내가 두려운 건 다시는 너를 못 보는 거야.” 이는 철도원으로 퇴직한 후 림프암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둔 양페이에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간, 양페이의 아버지가 양페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었다.

## 4.2. 『제7일』의 미국적 서평

『제7일』에 대한 미국의 서평을 보면 한국과 다소 상이한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의 미국적 서평을 특징짓는 것은 현대중국 사회의 부조리 비판이라는 상대적으로 일관된 수용 양상이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및 주간지와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실린, 대부분의 서평은 작가 위화의 중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주목하며 이 작품이 고속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중국사회의 부조리와 빈부격차 및 불평등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다고 평하였다. 전형적인 예로 『뉴욕타임즈(Newyork Times)』 북리뷰의 서평자는(2015. 3.22)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위화는 『제7일』에서 정부의 부패와 무분별한 소비주의 문제 등 현대중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강화한다. 양페이는 연옥의 여정에서 이미 죽은, 이승의 인연들을 만난다. 이들은 권력자와 재력가에게 일상적으로 학대당하는 중국 소시민의 이야기들과 함께 부정부패, 경찰폭력, 정치적 억압 및 주택철거 등의 섬뜩한 문제를 전달한다. 물질주의적이고 탐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사회로 변모해가는 중국 사회에서는 고인이 된 가족을 기리고 기억하는 의무를 다하기가 어려워졌다. 많은 독자들에게 이 판타지 소설은 중국의 새로운 현실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으로 다가올 것이다.”<sup>9)</sup> (필자의 번역임)

미국의 공영라디오 방송 『NPR(National Public Radio)』의 서평(2015. 1.19) 역시 『제7일』이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현대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고 평하면서 이 소설과 중국사회 비판 사이의 등식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 서평은 다음과

---

9) In ‘The Seventh day’, Yu amplifies his critique of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especially government corruption and his country’s headlong affair with consumerism. In Yangfei’s limbo walk, the dead offer lurid accounts of corruption, police violence, political repression and the demolition of homes, along with the tales of the day to day mistreatment suffered by ordinary Chinese at the hands of the powerful and the wealthy. In ‘The Seventh day’, a materialistic, greedy, increasingly impersonal society has made obligations to remember and honor one’s lost family members difficult to fulfill. For many, this fantasy may be Yu’s most devastating critique of the new Chinese reality.

같이 소설에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가 중국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이 이야기들은 현대 중국의 중요한 현실을 대변한다. 이는 무자비한 탐욕, 소비주의로 치닫는 사회의 물욕, 사악한 계층 상승, 족벌주의 등이다.”<sup>10)</sup> 온라인 서점 『반스앤노블(Barnes and noble)』의 서평(2015)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주인공 양페이(양페이의 사후세계 여정이 중국이라는 광활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하였다. “양페이의 여정은 그의 광대한 조국의 부조리와 슬픔의 외관을 조명한다.”<sup>11)</sup> 이에 반해 한역본의 서평에서는 주인공 양페이의 사후세계 여정을 잊지 못할 이승의 인연과 재회하는 여정이라고 보는, 작품 내러티브 중심의 해석이 많았다. 위의 『제7일』의 미국적 서평 사례는 중국사회 이해 및 비판이라는 일반화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제7일』의 미국적 서평을 특징짓는 것은 미국의 서평자들이 작품 속 이야기들을 중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과 저자 위화가 현대 중국의 서사를 날카롭게 풍자하며 전달하는 작가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알레고리와 작가 위화를 읽는 데 적용된 코드는 중국 소시민의 안온한 삶을 질식시키는, 중국 권위주의 정부 체제에 기반한, 중국이란 나라의 이국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미니폴리스 스타트리뷴(Minneapolis Star Tribune)』의 서평은(2015) 『제7일』이 다음과 같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어두운 현실을 폭로하는 작품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위화의 소설 『제7일』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중국의 혼란에서 발생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정치적 알레고리이다. 양페이의 여정은 현대 중국의 어두운 탐욕을 빈번히 폭로한다. 이웃의 갑작스런 죽음, 부패하고 오만한 중국의 정부 관료, 비극적 사고를 은폐하는 중국 당국,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감으로 중국의 소시민들은 자살을 하거나 장기를 밀매하러 나선다.”<sup>12)</sup> (필자의 번역임)

『뉴올리언스 리뷰(New Orleans Review)』의 서평(2015) 역시 다음과 같이 이 소

---

10) These stories represent an important reality of modern China: The wanton greed, the desire for material objects in what is increasingly a consumerism society, the vicious social climbing, the nepotism.

11) Yang fei's passage traces the contours of his vast nation- its absurdities and its sorrows.

12) Yu Hua's novel 'The Seventh day' is a political allegory for life and death experienced in the chaos of a rapidly changing modern China. The journey more often reveals the dark belly of modern China with its overnight razing of neighborhoods, its corrupt and arrogant government officials, its cover ups of tragedies and the desperation of its citizens who commit suicide or sell their internal organs.

설이 현대 중국의 무자비하고 냉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이며, 작가 위화는 이러한 현실을 충실히 전달하는 수행인(bearer)임을 부각한다.

“위화는 현대 중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복잡성과 통찰에 대해 써내려간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최근 이 나라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부각시킨다. 『제7일』은 현대 중국을 날카롭게 관찰하는데 성공했다. 간단히 말해서, 현대 중국에서 ‘발전’의 의미는 휴머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 자체로 정의되는 것처럼 보인다. 13) (필자의 번역)

현대중국 사회 비판 위주의 위의 미국적 서평은 한국적 서평과 비교해볼 때 중국의 이미지와 관련된 서구의 메타 내러티브와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메타 내러티브에는 중국 현대문학 작품의 번역 수행을 통해 중국이란 국가가 서방에서 억압적이고 디스토피아적인 타자로 재현된다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Lee 2015). 『제7일』은 물론 중국 사회에 팽배한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과 비판을 기록한 작품이다. 하지만 이 소설에 대한 미국에서의 비평은 이를 넘어서 보다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즉, 미국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특수 상황에 따라 중국현대문학 텍스트를 미국적 특수성이 뚜렷한 번역 담론에 동화시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체 출판시장에서 번역서의 비중이 3%가 되지 않는 미국 사회에서(Venuti 2008: 11) 미국이란 목표문화권에 소개되는 중국현대문학 작가들은 옌론펬커(閻連科), 위화, 쑤통(蘇童), 모언(莫言) 등 ‘논쟁적인’작가들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작품 가운데 중국의 정치적 억압을 강조하고 어두운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들이 선택적으로 번역되어 영어권 독자들에게 소개된다. 옌론펬커의 40여 편이 넘는 소설 가운데 『딩씨 마을의 꿈(丁庄夢)』,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爲人民服務)』, 『레닌의 키스(受活)』 등 중국 대륙에서 검열을 통해 출판 금지당한 작품들만 소수 번역되어 미국에서 출간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들 작품은 나아가 일반적으로 번역서의 겉텍스트나 유력 일간지의 서평을 통해 출판을 금지당한 ‘금서 프레임’이나 현대 중국의 어두운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필독서 프레임’으로 전경화되어 소개된다. 즉, 소설이라는 픽션 장르임에도 문학작품의 독특하고 풍부한 내러티브 대신 문학텍스트에 반영된 중국 사회

---

13) Yu Hua writes with complexity and insight into life in contemporary China. China's rapid industrialization highlights the latest challenges facing this nation. 'The Seventh day' has achieved a poignant look at contemporary China. Simply put, 'progress' in contemporary China seems to define itself by an absence of humanity.

의 어두운 진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현대문학 텍스트의 정보적 기능을 강조하는 번역 담론에는 서구가 지닌 중국이란 나라의 이국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메타 내러티브가 강력히 작동한다. 영어권의 서구 권 독자들에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특정 문학작품의 선택적 전유와 대중매체의 선택적 보도를 통해 서구 문명과 완전히 상이한 문화적 공간이자 관리의 부정부패와 인권침해가 부단히 발생하는, 비민주적 독재체제 정권으로 각인되어 소개되어 온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Wang and Barr 2021; Lee 2015; Zhang 2012).

요컨대, 『제7일』의 미국적 서평의 일면적인 경향은 중국현대문학 텍스트를 번역을 통해 미국 고유의 정치적 가치와 문화적 관심사에 동화시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서평은 작품 자체의 내러티브나 이야기 구조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번역서의 일독을 통해 중국 사회의 어두운 진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강조한 바 있다. 즉, 미국적 서평의 선택은 『제7일』의 번역 과정이 이국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중국이란 나라의 어두운 현실에 관심이 많은, 미국이란 목표문화권의 문화적 관심사에 부합되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겠다.

기실 미국의 일반 독자들은 중국이란 ‘낯선 공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텍스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 번역, 출간된 위화의 작품 가운데 소설 장르를 제치고 『열 개의 키워드로 본 중국(2011)』이란 에세이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화제가 된 것이 이를 시사한다(Barr 2021: 94). 나아가 미국 사회의 이러한 문화적 관심사는 소설 『제7일』 영역본 결텍스트 소개문의 어휘에도 각인되어 있다. 『제7일』 영역본의 앞표지와 뒷표지에는 “위화의 새로운 중국 현실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Yu’s most devastating critique of the new Chinese reality)”, “위화의 작품은 중국의 새로운 비상사태를 전달한다(Yu’s work carries new urgency)”,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중국의 혼돈(the chaos of a rapidly changing modern China)”, “암울하고 불안한 현대 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dark and disturbing, with much to say about modern China)” 등의 작품 소개 문구가 정보적 기능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영역본의 결텍스트와 서평에 각인된 이러한 문화적 관심사는 미국 독자로 하여금 작품 속 이야기를 중국의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 텍스트들에 사용된 불안과 혼돈 같은 영어 표현들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중국 사회에 대한 방어벽을 형성하게 된다. 실제로 영역본의 대다수 서평들은 작가 위화를 국공내전, 대약

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중국의 어두운 현대사를 기록해온 작가로 소개하고 중국 당국을 부조리가 만연한 전체주의 정권으로 특징지은 바 있다. 이는 소설 『제7일』이 미국 사회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차용한 정치적 알레고리 작품으로 수용된 측면이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하겠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번역서의 수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의 하나인 서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화적 귀속으로서의 번역 현상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문화적 귀속으로서의 번역은 특정 외국텍스트의 자국적 동화를 의미하며, 번역서의 경우 목표문화권에서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 및 관심사에 부응하여 수용되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자국적 동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원천텍스트가 특정 번역 담론에 따라 목표텍스트로 다시 쓰여지거나, 번역텍스트를 둘러싼 메타텍스트가 특정 문화적 담론 안에서 다시 쓰여지는 형태로 구현된다.

위에서 살펴본 서평을 종합해 보면, 번역서 『제7일』은 출간 당시 목표문화권의 문화를 지배하던 문화적 가치 및 관심사에 동화되어 수용된 측면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7일』에 대한 한국적 서평은 현대중국 사회 비판을 주요 입장으로 삼고 있었지만 등장인물의 휴머니티 정신을 부각하고 작품을 가족이야기 형식으로 소개하는 경향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제7일』을 읽어낸 것은 상술하였듯 가족의 가치를 긍정하고 가족 서사를 선호하는 한국의 문화적 가치에 이 소설을 동화시킨, 대중미학적 접근 방식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제7일』에 대한 미국적 서평의 경우, 이것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루는 것 역시 현대중국 사회의 부패 비판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서평자가 표면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중국사회의 부조리는 그 자체가 어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을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일반적인 수용을 결정지은 중국사회 부조리 비판이라는 입장은 중국의 어두운 진실에 대해 알고자 하는 미국 독자의 관심사를 반영하면서도, 그 기저에 있는 서구의 중국에 대한 이국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제7일』의 미국적 서평은 당시 미국에 고양되어 있던, 중국이라는 ‘암흑사회’의 실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문화적 관심사에 부응한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제7일』의

한역본과 영역본의 책 표지 문구는 이러한 추론을 더욱 강화시킨다.

소설 『제7일』의 번역은 한국과 미국의 경우, 문화적 가치 및 관심사에 기반한 목표문화권에의 귀속을 거쳤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동춘. (2020). 『한국인의 에너지 - 가족주의』. 서울: 도서출판 피어나.
- 김명희. (2018). 「위화의 제7일에 나타난 불평등과 경제적 인간」. 『현대유럽철학연구』 60: 277-305.
- 김소정. (2014). 「임서의 번역과 중국적 수용 - 파리다화녀유사(巴黎茶花女遺事)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65: 237-264.
- 김현주. (2022). 「위화 소설의 서사 전략 및 그 특징 연구 - 형제와 제7일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59: 139-165.
- 신다영. (2014). 「중한 문학 번역의 다시쓰기 사례 연구 - 선충원의 변성(邊城) 번역본 분석」. 『T&I Review』 4: 1-20.
- 심혜영. (2006). 「1990년대 위화 소설의 휴머니즘과 미학」. 『중국현대문학』 39: 355-389.
- 심혜영. (2017). 「위화의 제7일(第七天) - 공간사유, 상상력의 특징과 희망의 정념」. 『중국현대문학』 82: 33-54.
- 안미영. (2019). 「조지 오웰 1984의 번역과 수용과정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7: 315-345.
- 이명호. (2013). 「가족 관련 분석적 개념의 재구성, 가족주의에서 가족중심주의로」. 『사회사상과 문화』 28: 359-393.
- 이상원. (2011). 「베누티의 이국화와 자국화, 그 적용을 위한 고찰」. 『T&I Review』 1: 1-13.
- 이종민. (2008). 「위화의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제 속의 개혁개방 시대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45: 217-238.
- 이지민·한륜혜. (2022). 「문학 번역서 결텍스트 재정의와 하퍼 리의 앵무새죽이기 주변텍스트 통시적 사례 연구」. 『T&I Review』 12(1): 1-18.
- 이행선. (2021). 「오에 겐자부로에 번역 수용과 전투문학의 월경 - 1990년대 일본문학 붐, 한일 시민연대」. 『현대소설연구』 82: 443-482.
- 전성욱. (2015). 「위화 소설의 한국 수용에 대하여」. 『중국현대문학』 73: 159-188.
- 황정일. (2015). 「위화 제7일의 평등론」. 『중국현대문학』 72: 1-41.
- 潘英淑. (2022). 「위화 제7일 중 자살 의미 연구」. 『중국문학연구』 88: 215-237.
- Bassnett, S. (1990). *Transla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 Bassnett, S. (1990). Introduction. In Bassnett, S and Lefevere, A (eds.),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Cassell Wellington House, 1-14.
- Bielsa, E. (2013). Translation and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literature. *The Translator* 19(2): 157-181.
- Gouanvic, J. (1997). Translation and the shape of things to come : The emergence of American science fiction in postwar France. *The Translator* 3(2): 125-152.
- Gürçağlar, S. (2002). What texts don't tell: The uses of paratexts in translation research. In Hermans,

- T (eds.), *Crosscultural Transgression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I - Historical and Ideological Issues*. Manchester, UK: St. Jerome Publishing, 44-60.
- Kershaw, A. (2010). Sociology of literature, sociology of translation: The reception of Irène Némirovsky's *Suite Française* in France and Britain. *Translation Studies* 3(1): 1-16.
- Lee, T. (2015). China as dystopia: Cultural imaginings through translation. *Translation Studies* 8(3): 251-268.
- Lefevere, A. (1992a).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New York: Routledge.
- Lefevere, A. (1992b). *Translation, History, Culture*. London/New York: Routledge.
- Pellatt, V. (eds.) (2013). *Text, Extratext, Metatext and Paratext in Translation*. Manchester UK: Scholars Publishing.
- Rabut, I. and Pino, A. (2019). Brothers and the reception of YuHua in France. *Asia Pacific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Studies* 6(2): 99-110.
- Venuti, L. (2006).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임호경 역. 파주: 열린책들.
- Venuti, L. (2011). World literature and translation studies. In D'haen, T, Damrosch, D and Kadir, D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World Literature*. London/New York: Routledge, 180-193.
- Wang, B. and Barr, A. (2021). YuHua's works in English translation: An interview with Allan H. Barr. *Asia Pacific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Studies* 8(1): 84-97.
- Zhang, W. (2012). Chinese literature in the making: An interview with Jonathan Stalling. *Translation Review* 84(1): 1-9.
- 劉勇. (2006). 『中國現當代文學』.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余華. (2013). 『余華精選集』.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 余華. (2013). 『第七天』. 北京: 新星出版社.
- 余華. (2013). 『제7일』. 문현선 역. 파주: 푸른숲.
- 余華. (2013). 『The Seventh Day』. Translated by Allan H. Barr. NewYork: Anchor Books.
- 張清華, 張新穎. (2013). 「余華長篇小說第七天研討會」. 『當代作家評論』 6: 77-83.

[인터넷 자료]

- 주간현대. (2013). '허삼관매혈기' 위화의 새 장편소설 '제7일'. <http://www.hyundaenews.com/7046> (2022.6.1. 검색).
- 경향신문. (2013). 그들은 죽어서 비로서 평등해졌다... 중 작가 위화 새 장편. [https://www.khan.co.kr/article/201308302142315\(2022.6.2. 검색\).](https://www.khan.co.kr/article/201308302142315(2022.6.2. 검색).)
- 서울신문. (2013). 작가 위화가 길어올린 '무간지옥속 희망'.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831019013\(2022.6.2. 검색\).](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831019013(2022.6.2. 검색).)
- 동아일보. (2013). [문학예술] 죽고 나서 7일간의 여정... 中 위화의 신작소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0830/57336130/1\(2022.6.3. 검색\).](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0830/57336130/1(2022.6.3. 검색).)

- 시사in. (2015). 저승도 못 가게 하는 ‘부자들의 천국’.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8>(2022.6.3. 검색).
- 한겨레. (2013). 우리 사회의 애도받지 못한 죽음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602552.html>(2022.6.3. 검색).
- 문화일보. (2013). 피를 나는 가족 vs 피 한방울 안섞인 가족.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90301032430025007>(2022.6.4. 검색).
- yes24.com. (2013). 세계가 사랑한 작가 중국 최고 이야기꾼의 귀환!. <http://www.yes24.com/Product/Goods/9453659>(2022.6.4. 검색).
- ridibooks.com. (2018). 제7일. <https://ridibooks.com/books/2189000136>(2022.6.5. 검색).
- Aladin.co.kr. (2013). 제7일.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0282694>(2022.6.5. 검색).
- Bookinterpark.com. (2013). 제7일: 이승과 저승사이에서 영원한 인연을 다시 찾은 7일간의 이야기. [https://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prdNo=213005417](https://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prdNo=213005417)(2022.6.7. 검색).
- 세계일보. (2013). 죽은 자들이 고발하는 부조리한 세상. <https://www.segye.com/newsView/20130830003322?OutUrl=naver>(2022.6.7. 검색).
- 연합뉴스. (2013). “죽었지만 묻힐 곳이 없소”...中소설가 위화 새 장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450936?sid=103>(2022.6.7. 검색).
- 한겨레. (2013). 9월 2일 출판 잠깐독서.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601675.html>(2022.6.8. 검색).
- 데일리 노컷뉴스. (2013). 이승 인연 앙금 푼 연옥의 7일. <https://www.nocutnews.co.kr/news/1094387?c1=327&c2=459>(2022.6.9. 검색).
- 프레시안. (2013). 중국의 수만 ‘해골’, 왜 죽지 못하고 떠도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11528>(2022.6.10. 검색).
- Goodreads.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goodreads.com/book/show/22107229-the-seventh-day>(2022.7.1. 검색).
- Amazon.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amazon.com/Seventh-Day-Novel-Yu-Hua/dp/0804197865>(2022.7.1. 검색).
- The New York Times. (2015). ‘The Seventh Day,’ by Yu Hua. <https://www.nytimes.com/2015/03/22/books/review/the-seventh-day-by-yu-hua.html>(2022.7.1. 검색).
- Npr.org. (2015). Dark, Disturbing And Playful, ‘Seventh Day’ Takes On Modern China. <https://www.npr.org/2015/01/19/376093937/dark-disturbing-and-playful-seventh-day-takes-on-modern-china>(2022.7.2. 검색).
- THE WALL STREET JOURNAL. (2015). Death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Yu Hua’s ‘The Seventh Day’. <https://www.wsj.com/articles/BL-CJB-26350>(2022.7.5. 검색).
- Startribune.com. (2015). Review: ‘The Seventh Day,’ by Yu Hua, translated from the Chinese by Allan Barr. <https://www.startribune.com/review-the-seventh-day-by-yu-hua-translated-fro>

- m-the-chinese-by-allan-barr/288761081/(2022.7.7. 검색).
- NEW ORLEANSREVIEW.ORG.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neworleansreview.org/the-seventh-day/\(2022.7.7. 검색\)](https://www.neworleansreview.org/the-seventh-day/(2022.7.7. 검색)).
- Fantasticfiction.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fantasticfiction.com/y/you-hua/seventh-day.htm\(2022.7.9. 검색\)](https://www.fantasticfiction.com/y/you-hua/seventh-day.htm(2022.7.9. 검색)).
- Barnsandnoble.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barnsandnoble.com/w/the-seventh-day-yu-hua/1121527537\(2022.7.9. 검색\)](https://www.barnsandnoble.com/w/the-seventh-day-yu-hua/1121527537(2022.7.9. 검색)).
- Bookbrowse.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bookbrowse.com/bb\\_briefs/detail/index.cfm/ezine\\_preview\\_number/10150/the-seventh-day\(2022.7.9. 검색\)](https://www.bookbrowse.com/bb_briefs/detail/index.cfm/ezine_preview_number/10150/the-seventh-day(2022.7.9. 검색)).
- Thatsmags.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thatsmags.com/china/post/8848/book-review-yu-hua-the-seventh-day\(2022.7.11. 검색\)](https://www.thatsmags.com/china/post/8848/book-review-yu-hua-the-seventh-day(2022.7.11. 검색)).
- Kirkus Review.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kirkusreviews.com/book-reviews/you-hua/the-seventh-day-hua/\(2022.7.11. 검색\)](https://www.kirkusreviews.com/book-reviews/you-hua/the-seventh-day-hua/(2022.7.11. 검색)).
- Library Journal.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libraryjournal.com/review/the-seventh-day\(2022.7.11. 검색\)](https://www.libraryjournal.com/review/the-seventh-day(2022.7.11. 검색)).
- Publishers Weekly.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publishersweekly.com/9780804197861\(2022.7.11. 검색\)](https://www.publishersweekly.com/9780804197861(2022.7.11. 검색)).
- 中国作家网. (2013). 余华《第七天》引发探讨:小说如何深度表现当代中国. [http://www.chinawriter.com.cn/2013/2013-07-19/167729.html\(2022.7.12. 검색\)](http://www.chinawriter.com.cn/2013/2013-07-19/167729.html(2022.7.12. 검색)).
- 新浪娱乐. (2013). 余华出长篇小说《第七天》冷静看批判. [http://ent.sina.com.cn/s/m/2013-07-30/14273975826.shtml\(2022.7.12. 검색\)](http://ent.sina.com.cn/s/m/2013-07-30/14273975826.shtml(2022.7.12. 검색)).
- 中国文明网. (2013). 余华《第七天》:七年是否磨钝剑?. [http://www.wenming.cn/\(2022.7.12. 검색\)](http://www.wenming.cn/(2022.7.12. 검색)).
- 重庆晨报. (2013). 余华回应《第七天》争议:交稿时就等着大家来骂. [http://caijing.chinadaily.com.cn/2013-06/27/content\\_16671104.htm\(2022.7.12. 검색\)](http://caijing.chinadaily.com.cn/2013-06/27/content_16671104.htm(2022.7.12. 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22 October 2022; revised on 30 November 2022; and accepted on 3 December 2022.

---

***Author's email address***

zhiying2003@hanmail.net

***About the author***

Ji young Lee (first author) is a lecturer at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and sociocultural reception.

인공신경망 특허 기계번역 성능에 관한 연구  
- Patent Translate와 WIPO Translate 한영 번역 결과물의 누락과  
통사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

이지은\* · 최효은\*\*

*Jeun Lee and Hyeoun Choi (2022). A study on the quality of patent neural machine translation: A comparison of omission and syntactic errors in the Korean-English translations by patent-specialized Patent Translate and WIPO Translate.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quality of patent translations produced by the two patent-specialized machine translation engines, EPO's Patent Translate and WIPO's WIPO Translate. For manual evaluation, four experienced patent translators or patent translation service managers evaluated the quality of 106 English sentences from the translations of 30 Korean patent abstracts by the two MT engines. In the automatic evaluation, Patent Translate slightly outperformed WIPO Translate, whereas in the manual evaluation WIPO Translate outperformed Patent Translate. According to the error annotations provided by the evaluators, WIPO Translate produced more omission errors than Patent Translate but handled the complex syntax of the source text better, while Patent Translate produced more syntactic errors than WIPO Translate.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automatic evaluation, MT outputs with fewer omissions were rated higher, while in manual evaluation, comprehensible and accurate syntactic structures appeared to determine the overall quality evalu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초빙교수, 공동저자

**Keywords: Korean-English patent machine translation, patent-specialized neural machine translation engine, machine translation quality evaluation, Patent Translate, WIPO Translate**

**주제어: 한영 특허 기계번역, 특허전문 인공지능망 번역엔진, 기계번역 품질 평가, Patent Translate, WIPO Translate**

## 1. 서론

2016년 구글이 인공지능망 기계번역(NMT)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문법기반, 통계기반에 의존하던 기계번역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후 인공지능망 기술을 적용한 파파고, 카카오 등 무료 범용 기계번역 엔진이 속속 등장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Google Translate(이하 구글번역)’은 100개 이상 언어로 연간 30조 문장 이상을 번역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Kuczmarski 2018). 특허 문건은 길고 복잡한 통사구조와 기술용어 비중이 높아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Rossi and Wiggins 2013: 115; Ying et al. 2021: 13) 기계번역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특허 번역 수요 물량이 많고, 해외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행 기술을 검색하고 해당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기계번역을 통해 발명의 요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Olohan 2015: 171; 최효은과 이지은 2017: 142). 일례로 미국 특허청(PTO)은 거절 심사용으로 기계번역을 활용한다(USPTO 2018, §1207.02).

특허 기계번역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통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어로 작성된 특허 문서를 읽고 내용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요지를 제공하는 것이다(Nurminen 2020: 100; Olohan 2015: 167; 최효은과 이지은 2017: 143). 특허 기계번역의 품질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며, 기존 연구에 의하면 특허 기계번역 품질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Rossi and Wiggins 2013; Tsai 2017; 최효은 2016; 최효은과 이지은 2017). 지금까지 특허 기계번역의 품질을 다룬 연구 상당수가 인공지능망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대부분 통계기반의 엔진(SMT)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한 변곡점인 2016년 인공지능망 도입 후 특허 기계번역의 품질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여겨진다.

본고는 특허 분야에 특화된 번역 엔진인 ‘Patent Translate’와 ‘WIPO Translate’의 한영 특허초록 기계번역 품질을 비교 평가해보고자 한다. 유럽특허청(EPO)이 제공하는 ‘Patent Translate’는 유럽특허청과 구글이 개발하여 한국어를 비롯한 총 32개 언어에 대해 기계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sup>1)</sup> 구글이 기계번역에 인공지능경망 방식을 도입하면서 품질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Olohan 2015: 166; 최효은과 이지은 2017: 142). 다만 ‘Patent Translate’와 구글번역 간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다.<sup>2)</sup> ‘WIPO Translate’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해외 출원을 관장하는 UN 산하 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공하는 인공지능경망 기계번역 서비스다. WIPO는 2009년부터 구문을 기반으로 한 통계기반 기계번역 시스템인 ‘TAPTA’<sup>3)</sup>를 사용하다가(Olohan 2015: 126), 한국어를 포함한 특허협력조약(PCT) 10개 공식 언어의 번역이 가능한 인공지능경망 기반 ‘WIPO Translate’를 2017년부터 제공하고 있다.<sup>4)</sup> 이 두 인공지능경망 기계번역 엔진은 특허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특허 전문 무료 기계번역 엔진으로 한국어를 출발어 및 도착어로 하는 방향의 번역을 지원하여 국내 특허업계 종사자들의 활용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특허 전문 기계번역 엔진으로서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인공지능경망 도입 전후 규칙기반 기계번역과 구문을 바탕으로 한 통계기반 기계번역(SMT)과 인공지능경망 기계번역(NMT)의 품질을 비교 평가한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astilho et al. 2017; Costa et al. 2015; Kinoshita et al. 2017 등). 국내에서는 2016년 이후 구글번역과 파파고로 대별되는 범용 기계번역의 품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 점을 고려할 때(강병규와 이지은 2018; 김동미 2018; 서보현과 김순영 2018; 이준호 2019; 한현희 2020 등), 특허 전문 번역엔진인 ‘Patent Translate’나 ‘WIPO Translate’의 결과물 품질을 살펴보는 것은 국내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본고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 장에서는 특허 기계번역과 기계번역 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어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그리고 연

- 
- 1) EPO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po.org/news-events/press/releases/archive/2013/20131217.html>
  - 2) 2020년 11월 2일자 공개된 KPA 중 특허의 출원번호 및 발명의 명칭은 각각 1020200022186 캠핑카 오수처리장치, 1020190050822 원격외선 스마트 난방기, 1020200001985 악취제거 신발이다. 본 연구에 앞서 한국특허초록(KPA) 등 3건을 선정하여 한국어로 작성된 발명의 요약 부분의 범용 구글번역과 ‘Patent Translate’의 영어번역 결과물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었다.
  - 3) WIPO Translate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TAPTA는 ‘Moses’를 바탕으로 WIPO가 1억 8천만 단어의 자체 특허문서로 학습시킨 특허 전문 기계번역 엔진이다(Poliquen 2015: 2-3; 최효은 외 2017: 143).
  - 4) WIPO 공식 홈페이지. <https://patentscope.wipo.int/translate/wtapta-user-manual-en.pdf>

구결과를 차례로 소개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함의를 논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 2. 주요 선행 연구

### 2.1. 기계번역 품질평가 방식과 기준

선행 연구에 나타난 특히 기계번역의 품질 평가 방식과 기준을 간략히 살펴보면 크게 자동평가와 수동평가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사람에 의한 수동평가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자동평가는 기계번역 결과물과 사람 번역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Rossi and Wiggins 2013: 118). 자동평가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어휘 정확성 등을 평가하는 데에 효과적이거나 가독성 평가와 오류 분석 면에서 한계가 있다(Rossi and Wiggins 2013: 118; 최효은과 이지은 2017; 이준호 2019; 정혜연 2018; 정혜연 외 2020). 반면 수동평가는 세밀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자동평가에 비해 선호되는 방식이기는 하나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과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Castilho et al. 2018: 10; Coughlin 2003: 63; Dorr et al. 2011; Popovic 2018: 154; 최효은과 이지은 2017: 147).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기계번역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동평가와 수동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Chatzikoumi 2020: 158; 이준호 2019; 최효은과 이지은 2017: 147).

일반적으로 기계번역의 수동평가에서 충실성(fidelity)<sup>5)</sup>과 가독성(intelligibility or readability)<sup>6)</sup>의 두 가지가 널리 사용되는 기준이다(Bazrafshan 2014: 17; Brkic et al. 2013: 314; Castilho et al. 2018: 18; Chatzikoumi 2020: 138). 충실성은 기계번역 결과물이 원문 또는 사람의 번역과 비교했을 때 기계번역 결과물이 얼마나 원문이 담고 있는 의미와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키며 원문 대비 내용 전달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Bazrafshan 2014: 17; Lavie 2013: 7; 최효은과 이지은 2017: 147). 한편 가독성은 기계번역 결과물이 목표 언어 규범을

---

5) 충실성은 정확성(accuracy) 또는 적절성(adequacy)으로도 불린다.

6) 가독성은 유창성(fluency)으로도 불린다.

따르고 자연스러운지 언어적 측면을 판단하며 원문 없이 평가 가능하다(Castilho et al. 2018: 18; Lavie 2013: 7; 최효은과 이지은 2017: 147). 가독성에는 문법, 적절한 단어의 선택 여부, 텍스트의 스타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Bazrafshan 2014: 17; 최효은과 이지은 2017: 147), 문법 오류뿐 아니라 오역과 미번역도 가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stilho et al. 2018: 18).

두 가지 평가 기준의 상호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충실성과 가독성 두 가지 평가 기준을 하나로 합쳐서 용인성(acceptability)이라는 단일 평가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Coughlin 2003: 64; 박경리 외 2013: 207; 최효은과 이지은 2017: 147). 번역품질 요인분석 연구(한승희 2021: 165)에 따르면 목표 언어 관습에서 자연스러운 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유창성이 의미의 적합성에 포함되어 의미와 표현을 하나의 측정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도 확인된다.

수동평가의 방식으로는 척도 평가와 서열 평가(ranking)가 대표적이다. 척도 평가에서는 보통 4점 또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문장 또는 세그먼트(segment)<sup>7)</sup> 단위로 평가한다. 이로 인해 맥락에 대한 고려와 텍스트 차원에서 문장간 응집성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Castilho et al. 2018: 18; Chatzikoumi 2020: 147; Läubli et al. 2018). 서열 평가는 동일한 원천 텍스트에 대한 복수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도출하여 결과물 간의 비교 평가를 위해 사용한다. 평가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 또는 가독성과 같이 비교적 일반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무작위 또는 익명화 처리한 목표텍스트 문장의 순위를 매긴다. 최대 세 가지 중에서 최상을 선택하거나 최상부터 최하까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간단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Castilho et al. 2018: 21). 평가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자 정보와 평가자 훈련 및 전문성, 평가 가이드라인, 조작적 정의 요건 등이 중요하다(Chatzikoumi 2020: 146; Doherty 2017). 정확한 오류 분석을 위해서는 오류 유형의 일반화 가능성은 물론이고 분석가(annotator) 변수, 유형분석의 일관성, 오류의 정의, 오류 항목의 수 등을 세심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이상빈 2020: 86). 오류 항목이 많을수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지만 분석 작업의 인지부하를 높이고 일관성 및 분석가 간 일치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Popovic 2018: 139).

특히 문서의 기계번역 결과를 평가할 때는 다른 기계번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번역이 어떤 목적을 띠며,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될 것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7) 완벽한 문장은 아니나 평가의 단위가 되는 구 또는 절을 말한다.

(Doherty 2019). 특히 기계번역 수동평가 기준에는 일반 기계번역 평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충실성과 가독성 외에 검색 가능성이 특히 기계번역의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꼽힌다. 로시와 위긴스(Rossi and Wiggins 2013: 116)는 특히 분야에서 기계번역 결과물이 발명의 요건인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검증하거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색 가능성과 가독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꼽았다. 검색 가능성을 위해서는 용어 완결성과 정확성이 필수요건이며, 가독성은 문장에서 구의 순서와 논리 연결의 정확성에 의해 결정된다(Rossi and Wiggins 2013: 116). 이들은 특히 기계번역의 경우 요지 파악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기계번역 평가에서와 달리 형태와 통사 오류는 일반적인 요지 파악이나 검색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평가에서 배제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Rossi and Wiggins 2013: 116).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독성을 논할 때 통사 오류는 번역 품질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2.2. 특허 기계번역 평가 관련 연구

특허 기계번역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연구 몇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로시와 위긴스(2013)는 특허 전문 번역엔진 LexisNexis를 대상으로 일본어 특허 명세서에서 길이와 통사구조가 다양한 1,000개 문장을 추출하여 영어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해 자동평가와 수동평가를 실시하였다. 자동평가는 BLEU 35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수용 가능’, 그 미만은 ‘수용 불가능’으로 정했다. 이때 수동평가는 2명의 전문가가 문장별로 평가하게 하였다. 용어, 정보 누락, 추가, 단어 순서를 평가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이 중 처음 세 가지는 검색 가능성의 측면에서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마지막 네 번째 단어 순서는 가독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다(Rossi and Wiggins 2013: 120). 자동평가의 단점을 수동평가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평가와 수동평가 결과 모두 ‘수용 가능’인 경우 최종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하였다(Rossi and Wiggins 2013: 124). 평가결과 검색가능성 측면에서는 94.3%라는 높은 수준의 수용 가능성을 보인 데 비해 가독성에 대한 수용 가능성은 45.04%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Rossi and Wiggins 2013: 124).

카스틸호 외(Castilho et al. 2017)는 중영 특허 명세서에 대한 NMT 엔진과 SMT

엔진의 번역 결과물 품질을 자동평가와 수동평가로 비교하였다. BLEU를 사용한 자동평가 결과에 의하면, 발명의 명칭 번역에서 NMT가 좀 더 우수하고 요약 번역에서는 SMT가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NMT가 SMT에 비해 반드시 우수한 번역 결과물을 산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Castilho et al. 2017: 114). 두 명의 평가자에 의한 수동평가에서는 SMT가 NMT보다 결과물 품질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장 길이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NMT 번역 오류 중 누락이 가장 많았고 SMT에서는 문장 구조 오류 비중이 더 높았다. 오류 없이 완벽한 번역문은 SMT의 경우 25%, NMT의 경우 2%를 차지하였다. 자동평가에서는 특히 발명의 명칭 번역에 대해 SMT에 비해 NMT가 우세한 것으로 보였으나 수동평가는 SMT를 높게 평가하였다.

프레몰리 외(Premoli et al. 2019)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인공지능망 기계번역엔진의 영어-이탈리아어 특허 기계번역에 대한 수동평가 연구다. 평가자 2명이 4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엔진이 학습한 전문 분야인 기계 분야의 특허 번역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 세그먼트는 10개, 이해가 아예 불가능한 세그먼트는 6개에 불과했으며, 번역 문제는 주로 문법 오류, 지나친 직역, 생경한 어휘에 대한 추측 때문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에 문장부호 오류 등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Premoli et al. 2019: 37). 이 연구자들은 특허 기계번역 품질이 대체로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한편 용어 번역의 비일관성은 특허문서라는 장르 상 매우 치명적인 품질 저하 요인으로 간주하였다(Premoli et al. 2019: 37).

최효은과 이지은(2017: 151)은 한국 특허청의 특허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SMT인 K2E-PAT를 통해 얻은 반도체 분야의 특허 요약서 총 38건에서 추출한 100 문장을 참조번역인 KPA 100 문장과 각각 비교하였다. 자동평가를 위해서는 BLEU 점수를 사용하고, 수동평가를 위해서는 전문 번역사 2명이 충실성과 가독성의 두 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충실성과 가독성 점수를 각각 도출하였다(최효은과 이지은 2017: 165). 기계번역 결과물은 자동평가에서 BLEU 22.90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수동평가에서도 충실성, 가독성 모두 평균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최효은과 이지은 2017: 165).

차이(Tsai 2017)는 대만특허청의 SMT 중영 번역 결과물 중 발명의 명칭 473개에 대한 수동평가 연구다. 대만특허청 소속 번역사들의 수동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이(2017: 147)는 철자법 오류(구두점, 대소문자 오류 포함), 형태적 오류(동사, 명사 등), 어휘(어휘 추가 및 누락), 의미 오류(다의어, 동음이의어, 표현 오류)와

통사적 오류(접속사, 전치사, 관사, 문장구조) 등 크게 다섯 가지로 오류를 분류하였다. 발명의 명칭에서 발견된 오류는 총 692개로 발명의 명칭마다 약 1.5개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품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다(Tsai 2017: 149). 오류 유형상 통사적 오류의 비중이 53.76%로 가장 높았고 어휘 오류(18.64%), 의미 오류(14.60%)가 그 뒤를 이었으며 형태 오류가 3.18%로 가장 낮았다(Tsai 2017: 149).

한편 본 연구의 대상 중 하나인 ‘WIPO Translate’의 특허 문건 번역 결과와 범용 엔진인 구글번역의 BLEU 점수를 비교한 폴리퀸(Poliquen 2017)에 따르면 ‘WIPO Translate’가 구글번역에 비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한 번역의 경우 ‘WIPO Translate’의 BLEU 점수는 39.20, 구글번역의 점수는 32.65였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자동평가에만 기반하였으며, 아시아 언어를 분석하기는 하였으나 한영 특허기계번역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3.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특허 전문 기계번역 엔진의 한영 특허 초록 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자동평가와 수동평가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번역 결과물의 차이 및 특징을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의 한국어 특허 공보 30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공보의 내용 중 요약 부분에 대해 ‘Patent Translate’와 ‘WIPO Translate’에 의한 영어 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비교 분석하였다.

자동평가로는 기계번역의 대표적인 자동평가 방식인 BLEU(Papineni et al. 2002)과 METEOR(Lavie and Agarwal 2007) 두 가지를 활용하였다. 참조번역으로는 인간번역인 KPA(Korean Patent Abstracts)과 비교하여 자동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수동평가를 위해서 4명의 특허 번역 전문가(E1~E4)를 섭외하여 한영 특허 기계번역 결과물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전문적인 특허 번역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주로 평가자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평가자들은 모두 특허 번역 경력 10년 이상으로 전문 특허번역사와 특허 번역 관리자로 구성하였다. 평가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E1은 인하우스 특허번역사, E2는 프리랜서 특허번역사, E3은 인하우스 특허 번역 매니저, E4는 프리랜서 특허번역사로 모두 10년 이상의 특허 번역 경력을 갖추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번역 엔진의 종류를 평가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번역 결과물의 순서 또

한 무작위로 섞어서 제시하였다.

현업에 종사하는 평가자들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8주 기간 내에 30개 요약의 53개 문장에 대해 각 기계번역 엔진에서 추출한 번역 결과물(총 106개 문장, 8,065단어 분량)을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평가자들은 문장 단위로 충실성과 가독성의 전반적인 품질을 바탕으로 5점 척도(품질 매우 불량(0점) ~ 품질 매우 양호(4점))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평가자들이 평가 대상 텍스트가 어느 기계번역 엔진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텍스트를 혼합하여 제공하였다. 평가자들은 MQM-DQF(Lommel 2018)과 로시와 위긴스(2013)의 기계번역 평가 기준을 차용한 추가, 누락, 통사, 용어, 기타 등 다섯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오류 분석을 하였다. 해당 문장에서 각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오류가 있을 시 평가자들이 오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상술하게 한 것이다. 최효은과 이지은(2017)보다 세분화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자들이 오류 코멘트를 제시하도록 하여 평가자의 눈으로 본 오류 분석을 시도한 차이가 있다. 평가자에게 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고, 평가 작업을 위해 평가자들에게 아래 표 1과 같은 평가표를 이용하여 문장 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표 1. 수동평가를 위한 평가표

(예시) 요약 번역 1(텍스트 #1)					
종류	문장 1				
점수	0	1	2	3	4
평가 의견	추가	1. 번역의 A는 원문에 없는 내용임. 2. 번역의 B는 원문에 없는 내용임.			
	누락	1. 원문의 C가 번역에서 누락됨. 2. 원문의 D가 번역에서 누락됨.			
	통사	1. The present invention to a circuit.은 완전하지 않은 통사구조를 지님. 2. 원문에 의하면 A, B, C, D가 발명의 구성요소로 대등하게 나열되어야 하나 번역에서는 A, B, C만 대등하게 나열되고, D는 별도의 문장으로 번역됨.			
	용어	1. (a) 부정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원문의 A는 A'로 번역되어야 하나 번역에서 B'로 번역됨. 2. (b) 용어 일관성의 문제로 원문에서 A가 2회 제시되는데, 번역에서 각각 B와 C로 일관되지 않게 번역됨.			
	기타	1. A는 오타임.			

## 4. 자료 분석

여기에는 전반적인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고, 평가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두 엔진 간 차이인 누락과 통사 관련 오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두 엔진의 평가 결과에 우열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본 장에서는 편의상 ‘Patent Translate’를 ‘PT’, ‘WIPO Translate’를 ‘WT’로 칭한다.

### 4.1.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동평가 기준인 BLEU와 METEOR 점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자동평가 결과

번역 엔진	BLEU	METEOR
Patent Translate	35.42	35.7
WIPO Translate	33.80	31.3

표 2의 결과를 보면 BLEU와 METEOR 모두 PT가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동평가가 참조번역과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PT가 KPA와 좀 더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이 수치는 이전에 SMT 기반의 K2E-PAT가 기록한 BLEU 22.90점(최효은과 이지은 2017: 165)과 비교했을 때, NMT 기반의 PT와 WT가 좀 더 나은 수준의 번역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보다 5년 앞선 폴리퀸(Poliquen 2017)의 영한 특허기계번역 BLEU 수치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당시에는 WT가 구글번역을 앞섰는데, 본 연구에서는 WT에 비해 PT의 BLEU 수치가 조금 높다.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PT와 WT에 대한 BLEU 결과이다.

BLEU:	<b>35.42</b>
Precision x brevity:	35.42 x 100.00
Type	1-gram 2-gram 3-gram 4-gram
Individual	66.40 42.43 28.66 19.49
Cumulative	66.40 53.08 43.22 35.42
Export data	<a href="#">CSV</a>

그림 1. Patent Translate에 대한 상세 BLEU 결과

BLEU:	<b>33.80</b>
Precision x brevity:	40.75 x 82.93
Type	1-gram 2-gram 3-gram 4-gram
Individual	72.13 47.67 33.48 23.96
Cumulative	59.82 48.63 40.34 33.80
Export data	<a href="#">CSV</a>

그림 2. WIPO Translate에 대한 상세 BLEU 결과

수동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0~4점의 5점 척도를 이용한 평가자들의 개별 평가 점수와 번역 엔진별 평균 평가 점수는 표 3과 같다.

표 3. 5점 척도에 따른 번역 엔진별 수동평가 결과

구분	Patent Translate	WIPO Translate
E1	1.92	1.94
E2	2.13	2.19
E3	1.98	2.19
E4	2.62	2.56
전체	2.16 <sup>8)</sup>	2.22 <sup>9)</sup>

표 3의 수동평가 결과를 보면, 자동평가 결과와 달리 E4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자 3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근소하게나마 WT를 PT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평가자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계산한 전체 점수 또한 WT가 2.22점으로 2.16점인 PT를 조금 앞섰다. 2점 초반대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품질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자 4인이 제공한 평가 의견을 살펴보면, PT 결과물 53문장에 대한 오류 코멘트는 총 442건, WT 결과물에 대한 오류 코멘트는 총 416건으로 집계되었다. PT에 대한 오류 코멘트가 WT에 비해 근소하게 많아 WT의 품질이 조금 앞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역 엔진에 대한 평가 의견은 총 858건이었는데 이를 평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 
- 8) 평가자 4인이 시행한 평가 결과에 대한 급내 상관 계수는 0.954로 신뢰 수준이 매우 높다.
  - 9) 평가자 4인이 시행한 평가 결과에 대한 급내 상관 계수는 0.918로 신뢰 수준이 매우 높다.

표 4. 평가 기준별 평가 의견

평가 기준	추가	누락	통사	용어	기타	전체
코멘트 수 (%)	32 (3.7)	154 (18.0)	323 (37.6)	210 (24.5)	139 (16.2)	858 (100)

표 4에 의하면, 평가자들이 지적한 문제는 통사(37.6%)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용어(24.5%)와 누락(18.0%) 순이다. 번역에서 통사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특히 문서 특유의 고도로 정형화된 장르 특성인 ‘특히 특유의 문제’ (Nurminen 2020: 106)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문장에 비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통사 구조를 가지는 요약의 문장을 기계가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해하고 번역하는 데에는 아직 무리가 있는 현실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한편 여기서 기타(16.2%)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타는 추가, 누락, 통사, 용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번역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로 대소문자 문제,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사용 문제, 단복수형 사용 문제, 오타 문제, 문장부호 사용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일례로 ‘형식: 불필요한 대문자 사용(예, of the Facility and the Device)’, ‘번역 ‘and more particularly, to’에서 and와 to 앞의 콤마는 불필요함.’과 같은 코멘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PT와 WT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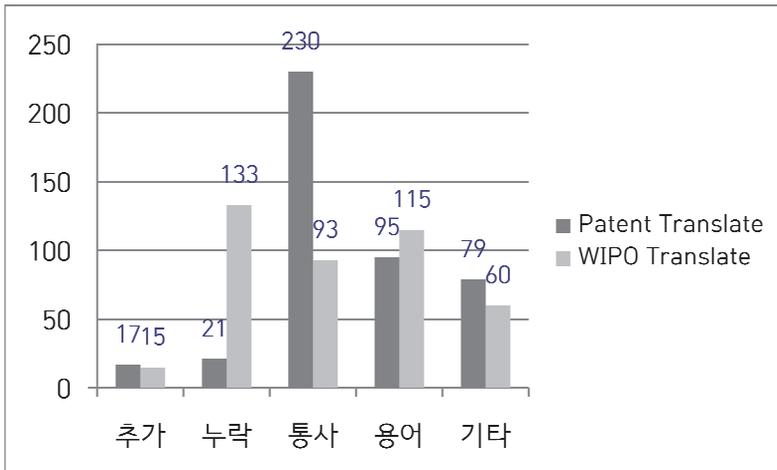


그림 3. 번역 엔진 간 오류 코멘트 수 비교

그림 3을 보면, 눈에 띄는 차이가 누락과 통사이다. 평가자들이 지적한 누락을 먼저 살펴보면, 두 번역 엔진에 대한 총 누락 154건 중 133건이 WT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누락이 거의 없는 PT가 수동평가에서와 달리 자동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볼 때, WT의 빈번한 누락이 자동평가에서의 점수 차이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일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반대로 통사의 경우, 전체 323건 중 230건이 PT에서 나타났다. WT의 통사의 건은 불과 93건으로 PT에 대한 통사 지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T의 문장 구조가 품질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오류가 다수 있음을 나타내며, WT 대비 수동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결정적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평가자들은 누락보다는 통사 문제에 좀 더 가중치를 두어 각 문장을 평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그 외의 추가, 용어, 기타 문제는 두 번역 엔진 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 두 엔진 간 품질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4.2. 누락과 통사의 오류 양상 비교

이제 평가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주요 오류인 누락과 통사를 중심으로 두 기계번역 결과물에 나타난 오류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겠다. 이 두 가지 오류는 실제 오류 개수와는 다르고 평가자별 차이가 있겠지만 PT와 WT에 대한 평가 결과 차이가 커서 두 개의 엔진 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좋은 오류 유형이라 판단했다.

우선 누락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PT에서 21건, WT에서 133건이나 언급되었다. 엔진별로 개별 평가자가 지적한 누락 오류의 수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평가자별 각 엔진에 대해 지적한 누락 오류의 개수

구분	Patent Translate	WIPO Translate
E1	0	20
E2	12	37
E3	2	35
E4	7	41
총합	21	133

표 5에서 평가자별로 지적한 누락 오류의 개수를 살펴보면, Patent Translate와 WT에서 공통적으로 평가자 E2와 평가자 E4가 지적한 오류 개수가 4명 중 1, 2위로 가장 많다. 특히 PT에서는 E2와 E4가 지적한 누락 오류의 합이 전체 21개 오류 중 19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E1과 E3이 지적한 누락 오류의 개수는 E2와 E4에 비해 모두 적은 편이다.

다음으로 각 누락 부분에 해당하는 원문 단어를 5개 단위별로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 6, 표 7과 같다.

**표 6. Patent Translate의 누락 오류에 대한 길이 분류**

원문 기준 누락 단어 수	0-5	6-10	11-20	전체
오류 개수 (%)	17 (81)	3 (14.2)	1 (4.8)	21 (100)

**표 7. WIPO Translate의 누락 오류에 대한 길이 분류**

원문 기준 누락 단어 수	0-5	6-10	11-20	21-30	31-40	41-50	51 이상	전체
오류 개수 (%)	53 (40)	21 (15.8)	20 (15)	13 (9.8)	10 (7.4)	10 (7.4)	6 (4.6)	133 (100)

표 6과 표 7을 비교해 보면,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PT이 WT에 비해 누락 오류의 수가 훨씬 적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원문을 기준으로 한 누락 단어 수를 살펴보면, PT의 경우 전체 누락 오류의 절대 다수인 81%에 해당하는 17건의 오류가 모두 0-5단어 사이의 사소한 누락에 해당한다. 더욱이 11-20단어 사이의 상대적으로 긴 누락은 전체의 4.8%에 불과한 단 한 건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소한 누락인 ‘0-5단어’에 해당하는 PT의 사례는 아래 [예시 1]과 같다.

[예시 1] Patent Translate의 누락 양상

ST: 본 발명에 따른 기관 지지 유닛은 기관의 배면(背面)의 중심 영역을 지지하도록 설치된 서셉터 및 서셉터의 둘레에 설치되어, 일면에 상기 기관 배면의 가장자리 영역을 지지하며, 상기 기관 배면의 가장자리가 지지되는 일면으로부터 기관 외측 방향으로 마련되고, 상기 기관 배면의 가장자리가 지지되는 일면에 비해 표면 높이가 높은 단턱부를 가지는 프레임을 포함한다.

TT: The substrate support unit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includes a susceptor installed to support a central region of a rear surface of a substrate and a susceptor installed around the susceptor to support an edge region of the rear surface of the substrate on one surface, and the edge of the rear surface of the substrate is and a frame provided in an outward direction from one supported surface of the substrate, and having a stepped portion having a higher surface height than the one on which the edge of the rear surface of the substrate is supported.

상기 [예시 1]과 관련해서 평가자 E2는 “원문 ‘상기 기판 배면의 가장자리가 지지되는 일면에 비해’가 번역에서 ‘than the one on which the edge of the rear surface of the substrate is supported’로 번역되어 문맥에서 밑줄 친 일면이 ‘one’로만 번역되어 ‘면’이란 번역어가 누락됨.”으로 오류를 지적하였다. 즉, 원문의 ‘일면’에서 ‘면’이 ‘side’와 같은 표현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원문의 의미가 누락된 것이다. 이 경우 원문 기준 한 단어의 누락이다.

이에 반해 WT의 경우를 살펴보면 누락 오류의 수가 PT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것에 더해 0-5단어 사이의 비교적 사소한 누락은 전체 누락 오류의 40%에 그쳐 PT의 80%에 비해 사소한 누락의 비율이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PT의 최대 누락 단어수가 원문 기준 11-20단어 사이인데 반해 WT의 경우 20단어 이상의 누락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원문 단어수 기준 60단어 이상 누락되는 경우도 총 4.6%의 6건으로 비교적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대량 누락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예시 2]는 WT의 번역 중 51단어 이상 누락에 해당하는 경우다.

#### [예시 2] WIPO Translate의 누락 양상

ST: 본 발명은 반도체 설비 장치의 상태 보고 및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특정 반도체 설비 장치의 I/O(Input/output) 신호의 상태정보를 알기 위해 SVID 리스트 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SVID 리스트 정보를 전달받으며, 상기 전달받은 SVID를 상태정보 요청메시지에 실어 보내고 상태정보 응답 메시지를 통해 SV 정보를 받아 특정 I/O 신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상위 제어기, 특정 반도체 설비 장치와 연결되어 상기 연결된 반도체 설비 장치의 I/O 신호 상태파악을 위한 SVID 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설비 제어기 및, 상기 설비 제어기와 연결되지 않은 반도체 설비 장치와 연결하여 상기 연결된 반도체 설비 장치의 I/O 신호 상태정보 파악을 위해 상기 설비 제어기가 가지고 있는 SVID와

중복되지 않는 SVID를 할당해서 생성하고, 상기 상위 제어기의 SVID 리스트 정보 요청시 상기 설비 제어기가 가지고 있는 SVID 정보와 상기 생성된 SVID 정보를 더해서 상기 상위 제어기로 보고하는 VID 생성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반도체 설비 장치의 상태 보고 및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상위 제어기가 기존 설비 제어기에 연결된 I/O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설비 사용자가 임의로 장착한 설비(Facility)와 디바이스 그리고, 기존 설비 제어기가 SVID로 제공하지 못하는 I/O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어 제어를 할 수 있게 된다.

TT: In a state report and control system of a semiconductor equipment device, SVID list information is requested to know state information of an I/O (Input/Output) signal of a specific semiconductor equipment device, SVID list information is received in response to the request,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state report and control system of a semiconductor equipment device comprising a VID generator for allocating and generating SVID which does not overlap with an SVID having the facility controller in order to grasp O signal state information, and a VID generator for adding the SVID information of the facility controller and the generated SVID information to the upper controller when the SVID list information of the upper controller is requested.

상기 [예시 2]에 대해 평가자 E4는 “원문의 ‘상기 전달받은 SVID를 상태정보 요청메시지에 실어 보내고 상태정보 응답 메시지를 통해 SV 정보를 받아 특정 I/O 신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상위 제어기, 특정 반도체 설비 장치와 연결되어 상기 연결된 반도체 설비 장치의 I/O 신호 상태파악을 위한 SVID 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설비 제어기 및, 상기 설비 제어기와 연결되지 않은 반도체 설비 장치와 연결하여 상기 연결된 반도체 설비 장치의’가 번역문에서 누락됨.”으로 평가하였으며, E4가 지적한 해당 부분은 원문 기준 57단어로 ‘51단어 이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원문의 내용이 대량 누락되는 경우는 [예 1]과 같이 사소한 누락에 비해 정확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계번역 결과물에 의존해야 하는 독자의 경우 제대로 된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누락의 정도 차이와 평가 결과를 연계해서 보면, BLEU, METEOR의 자동평가 결과 PT가 WT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WT의 이와 같은 대량 누락 문제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자동평가의 기준이 되는 참조번역의 경우 이와 같은 대량 누락 사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평가에서 WT의 번역 결과물이 참조번역과의 유사도가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전문가에 의한 수동평가의 결과는 그 반대로 WT의 점수가 PT에 비해 전반적으

로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아마도 기계번역에만 의존하는 일반 독자들과 달리 본 연구의 평가자들이 특히 번역 전문가들로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 분석하여 읽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WT에서 누락된 부분들을 단순히 길이와 양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부분이 전체 문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어서 통사 오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사 오류는 PT에서 총 230건, WT에서 총 93건이 지적되었고, 누락과 달리 PT가 월등히 높은 통사 오류 수를 기록하였다. 엔진마다 평가자들이 지적한 통사 오류의 수를 집계해 본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평가자별 각 엔진에 대해 지적한 통사 오류의 개수**

구분	Patent Translate	WIPO Translate
E1	47	23
E2	55	19
E3	69	29
E4	59	22
총합	230	93

PT와 WT에서 공통적으로 평가자 E3이 지적한 오류의 개수가 두 번역 엔진에서 모두 가장 많다.

한편 평가자 4인이 제시한 통사 오류를 연구자들이 다섯 가지로 세부 분류하였다. 첫 번째, ‘구성요소 오류’는 원문에 제시된 발명의 여러 구성요소가 통사 문제로 인해 번역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잘못 반영된 오류를 가리킨다. 두 번째, ‘수식어구 오류’는 통사 문제로 피수식어와 수식어구의 관계가 원문과 달라진 오류를, 세 번째, ‘불명확한 번역 오류’는 문장의 통사구조 자체에 문제가 없고 번역이 앞선 두 오류와 같이 원문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나 번역이 전달하는 의미가 불분명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네 번째, ‘불완전한 문장 오류’는 번역 문장의 통사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어 완전한 문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비문의 오류를, 마지막으로 ‘문장 나눔 오류’는 원문의 문장을 불필요하게 번역에서 분절하여 나누어 번역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각 유형별 오류 건수와 비중은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 각 유형별 통사 오류 분류별 건수와 비중

구분	Patent Translate	WIPO Translate
구성요소 오류	54개(23.5%)	17개(18.2%)
수식어구 오류	45개(19.6%)	13개(14%)
불명확한 번역 오류	92개(40%)	53개(57%)
불완전한 문장 오류	24개(10.4%)	6개(6.5%)
문장 나눔 오류	15개(6.5%)	4개(4.3%)
총합	230개(100%)	93개(100%)

표 9에서 PT와 WT의 통사 오류 비중을 비교해 보면, PT에서 ‘(통사로 인한) 불명확한 번역 오류’를 제외한 ‘구성요소 오류’, ‘수식어구 오류’, ‘불완전한 문장 오류’, ‘문장 나눔 오류’의 비중이 WT에 비해 모두 높다. 한편 WT의 경우, ‘불명확한 번역 오류’가 전체 통사 오류의 57%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PT에 비해 유일하게 높은 비중을 보인다. 여기서 ‘불명확한 번역 오류’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 [예시 3]과 같다.

[예시 3] WIPO Translate의 불명확한 번역 오류

ST: 본 발명에 의하면, 검사장치의 구조가 간단하여 제조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효과가 있다.

TT: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the structure of the inspection device is simple to simplify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reby reducing costs.

위의 [예시 3]과 관련해서 평가자 E1은 “이유(의)의 부사절과 효과의 주절로 기재하여야 함. Be simple to simplify ~ → since ~ be simple, it is possible to simplify ~”으로 오류를 지적하여, 문장의 전체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독자가 이해하는 데에도 큰 문제는 없으나 다만 원문의 이유와 효과의 차이가 번역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불명확한 번역 오류’는 PT와 WIPO Translate에서 모두 이와 같이 문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구조 개선 시 원문을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번역 문제를 가리킨다. 즉, 다른 통사 오류들에 비해 정확성 및 가독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은 오류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PT에서 두드러지는 통사 오류의 분류 중 ‘(발명의) 구성요소 오류’는 해당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잘못된 번역한 경우로 발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수준의 오류라 할 수 있다. ‘구성요소 오류’에 해

당하는 예는 아래 [예시 4]와 같다.

[예시 4] Patent Translate의 불명확한 번역 오류

ST: 본 발명에 따른 검사장치는, 판상 컨택트가 슬릿에 끼워져 지지되어 있는 컨택트 지지부, 상기 검사회로 상에 배치되며, 상기 컨택트 지지부의 하부를 수용하여 판상 컨택트의 하단이 상기 검사회로의 피검사접점에 접촉하는 하부 소켓 및 상기 하부 소켓 상에 배치되며, 상기 컨택트 지지부의 상부를 수용하여 판상 컨택트의 상단이 상기 피검사체의 검사접점에 접촉하는 상부 소켓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TT: The inspection apparatus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includes a contact support part on which a plate-shaped contact is fitted and supported by a slit, and is disposed on the inspection circuit, and accommodates the lower part of the contact support part so that the lower end of the plate-shaped contact contacts the inspection target point of the inspection circuit. and a lower socket disposed on the lower socket, the upper socket accommodating the upper part of the contact support part so that the upper end of the plate-shaped contact contacts the test contact point of the subject.

상기 [예시 4]의 ‘검사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컨택트 지지부’, ‘하부 소켓’, ‘상부 소켓’의 세 가지이다. 그런데 PT에서는 ‘컨택트 지지부(a contact support part)’만 구성요소로 제대로 표현되었을 뿐 나머지 ‘하부 소켓’과 ‘상부 소켓’은 문장의 구조가 꼬이면서 발명의 구성요소로 표현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평가자 E1은 “검사장치는 컨택트 지지부, 하부소켓, 및 상부소켓을 구성요소로 구비한다는 문장구조가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 오류를 기술하여 문장구조의 문제로 발명이 구비하는 구성요소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오류는 앞서 [예시 3]에서 설명한 ‘불명확한 번역 오류’에 비해 그 심각성이 좀 더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불완전한 문장이 생산된 ‘불완전한 문장 오류’ 또한 번역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류일 것이다. 아래의 [예시 5]는 PT에 의한 ‘불완전한 문장 오류’의 사례이다.

[예시 5] Patent Translate의 불완전한 문장 오류

ST: 상기 박막층의 결함 제거 방법은, 기판 상에 시드층을 형성하고, 상기 시드층 상에 무기 박막층을 형성하고, 상기 무기 박막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되, 상기 결함을 제거하는 것은, 자기조립 단분

자막(Self-Assembled Monolayers)을 형성하여 제거한다.

TT: The method for removing defects in the thin film layer includes forming a seed layer on a substrate, forming an inorganic thin film layer on the seed layer, and removing defect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inorganic thin film layer, wherein the defect is removed It is removed by forming Self-Assembled Monolayers.

상기 [예시 5] 역시 PT의 사례로 TT의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wherein 이하에는 주어와 동사가 각각 하나씩 나와 완전한 절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PT는 wherein 다음에 주어로 ‘the defect’를, 동사로 ‘is removed’를 사용한 뒤 바로 이어서 다시 주어로 ‘It’을, 그리고 동사로 ‘is removed’를 반복한다. 이로 인해 wherein 이하에는 주어와 동사가 각각 두 개가 되면서 통사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구문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불완전 문장에 대해 평가자 E4는 “‘the defect is removed It is removed’는 비문법적인 표현임. 원문에 ‘제거하는’, ‘제거된다’가 반복됨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로 판단됨.”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오류 또한 ‘구성요소 오류’ 만큼은 아니더라도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 독자의 이해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가독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앞서 제시한 ‘불명확한 번역 오류’에 비해 그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 일반적으로 특히 번역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문의 문장을 분절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 번역사들은 소극적인 데 반해 PT는 WT에 비해 원문의 문장을 좀 더 빈번하게 나누는 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 또한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 5. 결론

본고는 한국어 특허 공보의 요약 30건(총 53문장)에 대해 무료 특허 전문 기계 번역 엔진인 ‘Patent Translate’와 ‘WIPO Translate’로 영문 번역을 추출한 후 이에 대한 자동평가와 수동평가를 실시하여 2종의 전문 번역 엔진 간 품질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BLEU와 METEOR 지수를 살펴보면 ‘Patent Translate’가 ‘WIPO Translate’에 비해 조금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수동평가에서는 자동평가와 달리 ‘WIPO Translate’가 ‘Patent Translate’를 근소한 차로 앞섰다. 즉, 특허번역 전문가들은

WIPO Translate의 품질이 나은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SMT를 대상으로 한 최효은과 이지은(2017)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NMT의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요지번역 이상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품질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오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가장 빈도 높게 지적된 오류는 통사였으며, 그 뒤를 누락과 용어 문제가 따랐고, 추가와 기타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두 엔진 간 빈도 차이가 가장 심한 오류 유형이 누락과 통사였다. 누락은 ‘Patent Translate’에 비해 ‘WIPO Translate’에서 압도적으로 많았고, 통사 오류는 ‘Patent Translate’에서 훨씬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엔진 간의 차이를 요약하자면, ‘Patent Translator’가 누락 없이 원문을 좀 더 충실히 옮기는 반면 ‘WIPO Translate’는 복잡하고 긴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에 맞는 문장 구조로 번역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누락 오류들을 살펴본 결과 누락 양상의 차이가 있었다. ‘Patent Translate’의 경우 누락은 5단어 이하의 사소한 누락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WIPO Translate’의 누락은 5단어 이상의 누락 비중이 적은 데 비해 무려 50단어 이상까지의 누락도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누락의 정도 차이가 자동평가에서 ‘Patent Translate’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통사 오류로는 주로 구성요소 오류, 수식어구 오류, 불명확한 번역 오류, 불완전한 문장 오류, 문장 나눔의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통사 오류 수가 적은 ‘WIPO Translate’의 경우, 이 중 가장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여겨지는 불명확한 번역 오류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통사 오류가 빈번한 ‘Patent Translate’의 경우 문장의 정확성과 가독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 오류, 불완전한 문장 오류 등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또한 ‘Patent Translate’에서는 ‘WIPO Translate’에 비해 문장 나눔으로 인한 통사 오류 또한 더 높은 비중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통사 오류의 양적 및 질적 차이는 결국 수동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쳐 ‘WIPO Translate’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통사 오류 문제와 평가 결과를 연계해서 보면, 수동평가와 달리 자동평가에서는 ‘Patent Translate’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자동평가의 경우 참조번역과의 유사도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Patent Translate’ 결과물이 원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번역 결과물이 불완전한 문장이거나 통사적

문제가 있는 문장일지라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동평가와 수동평가 결과의 괴리에 대한 지적은 선행연구(한현희 2020 등)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이 때문에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수동평가가 필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동평가 결과는 자동평가와 반대로 ‘WIPO Translate’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특히 번역 전문가인 평가자들의 시각에서는 원문과 비교하여 번역문을 보았을 때 번역문이 원문의 구조와 발명의 구성요소, 그리고 이 구성요소들을 수식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된 경우에 제대로 번역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평가자들의 시각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명확한 번역 오류’ 정도는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통사 오류이나 ‘구성요소 오류’, ‘불완전한 문장 오류’ 등은 아마도 결과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사 오류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통사 오류의 비중이 높은 ‘Patent Translate’의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주요 통사 오류의 비중이 낮은 ‘WIPO Translate’에 비해 낮았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자동평가에서는 기계번역 결과물을 평가할 때 통사보다는 누락 문제에 좀 더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 수동평가에서는 누락 문제보다는 통사 문제에 좀 더 가중치를 두어 문장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적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망 한영 특히 기계번역 평가를 진행한 한계가 있는 터라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전문 분야에 특화된 기계번역 엔진이 동일한 NMT 방식이라도 훈련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의 차이 등으로 인해 번역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간 NMT 번역 품질이 주로 범용 기계번역 엔진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다국어 특히 기계번역 엔진의 성능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평가 결과는 평가자별로 누락이나 통사 오류에 대한 민감성 내지 번역 오류 수용 가능성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평가자 차이나 인식 차이는 본 연구의 범위는 아니지만 번역 평가자들의 평가 성향이나 품질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기계번역의 수동평가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병규·이지은. (2018). 「신경망 기계번역의 작동 원리와 번역의 정확률」. 『중어중문학』 73: 253-295.
- 곽중철·한승희. (2018). 「포스트에디팅 측정지표를 통한 기계번역 오류 유형화 연구」. 『통번역학 연구』 22(1): 1-25.
- 김동미. (2018). 「의약품 설명서의 인공지능 번역에 대한 전략연구」. 『인문사회21』 9(6): 533-544.
- 김보영·김연주·서승희·송신애·이진현·전경아·최지수·홍승빈·정혜연·허탁성. (2020). 「번역자동 평가에서 풀리지 않은 과제」. 『번역학연구』 21(1): 9-29.
- 박건영. (2021). 「정보성 텍스트의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제시 - 신경망 기계번역(NMT)을 사용한 뉴스 기사문 번역의 사례」. 『번역학연구』 22(1): 109-137.
- 박경리·조수연·전종섭. (2013). 「웹기반 영한 번역을 위한 중간 언어의 효율성 연구」. 『통번역학 연구』 17(3): 201-229.
- 서보현·김순영. (2018).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유형 고찰」. 『번역학연구』 19(1): 99-117.
- 이상빈. (2020). 「기계번역에 관한 KCI 연구논문 리뷰: 인문학 저널 논문(2011-2020년 초)의 논 의내용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2): 75-104.
- 이준호. (2019). 「신경망기계번역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예비연구: 자동평가와 수동평가의 균형 점」. 『통번역학연구』 23(3): 171-202
- 정혜연. (2018). 「번역의 자동평가: 기계번역 평가를 인간번역 평가에 적용해보기」. 『통번역학연구』 22(4): 265-287.
- 최효은. (2016). 한영 특허 번역 품질 평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효은·이지은. (2017). 「특허 기계번역 결과물의 평가 - KIPRIS 의 무료 한영기계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9(1): 139-178.
- 한승희. (2021). 「기계번역 품질에 대한 요인분석」. 『통번역학연구』. 25(2): 147-170.
- 한현희. (2020). 「한-노 기계 번역, 어디까지 왔나?: Google과 Papago 번역 성능 비교를 기반으로」. 『노어노문학』 32(3): 63-93.
- Bazrafshan, M. (2014). *Semantic Features for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Rochester, New York, US.
- Brkić, M., Seljan, S., and Vičić, T. (2013). Automatic and human evaluation on English-Croatian legislative test set. *Computer Science* 7816: 311-378.
- Castilho, S., Moorkens, J., Gaspari F., Calixto, I., Tinsley, J., and Waya, A. (2017). Is neural machine translation the new state of the art? *The Prague Bulletin of Mathematical Linguistics* 108: 109-120.
- Castilho, S., Doherty, S., Gaspari, F., and Moorkens, J. (2018). Approaches to human and machine

-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In Moorkens, J., Castilho, S., Gaspari, F., and Doherty, S. (eds.),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From Principles to Practice*. New York: Springer, 9-38.
- Chatzikoumi, E. (2020). How to evaluate machine translation: A review of automated and human metrics. *Natural Language Engineering* 26: 137-161.
- Costa A., Ling W., Luís T., Correia R., and Coheur L. (2015). A linguistically motivated taxonomy for Machine Translation error analysis. *Machine Translation* 29: 127-161
- Coughlin, D. (2003, September). Correlating automated and human assessments of machine translation quality. Paper presented at MT Summit IX. New Orleans, US.
- Doherty, S. (2017). Issues in human and automatic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In Kenny, D. (ed.), *Human Issues in Translation Technology*. London & New York: Routledge, 131-148.
- Doherty, S. (2019). Translation technology evaluation research. In O'Hagan, M.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and technology*. London: Routledge, 339-353.
- Dorr, B., Snober, M., and Madnami, N. (2011). Machine translation evaluation and optimization. In Olive, J., Christianson, C., and McCary, J. (eds.), *Handbook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nd Machine Translation*. New York: Springer, 745-843.
- González, M. and Giménez, J. (2014). An open toolkit for automatic machine translation (meta-)evaluation. *Technical Manual*, version 3.0. TALP Research Center, LSI Department, Universitat Politècnica de Catalunya.
- Giménez, J and Márquez, L. (2010). Linguistic measures for automatic machine translation evaluation. *Machine Translation* 24: 209-240
- Klubička, F., Toral A., and Sánchez-Cartagena, V. M.(2018). Quantitative fine-grained human evaluation of machine translation systems: A case study on English to Croatian. *Machine Translation* 32: 195-215
- Kuczmariski, J. (2018). A new look for Google Translate on the web. Retrieved from <https://www.blog.google/products/translate/new-look-google-translate-web/> on 20 May 2022.
- Lavie, A. (2013). Automated metrics for mt evaluation. *Machine Translation*, 11: 731.
- Lavie, A. and Argawal, A. (2007 June). Meteor, m-bleu and m-ter: Evaluation metrics for high-correlation with human rankings of machine translation output.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Workshop on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Ohio, USA.
- Läubli, S., Sennrich, R. and Volk, M. (2018). Has machine translation achieved human parity? A case for document-level evaluation. Paper presented at the 2018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Brussels, Belgium.
- Lommel, A. (2018). Metrics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case for standardising error typologies. In Castilho, S., Doherty, S., Gaspari, F., and Moorkens, J. (eds.),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From Principles to Practice*. New York: Springer, 109-128.
- Nurminen, M. (2020). Raw machine translation use by patent professionals: A case of distributed

- cognition. *Translation, Cognition & Behavior* 3(1): 100–121.
- Olohan, M. (2015). *Scientific and Technical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Papineni, K., Roukos, S., Ward, T., and Zhu, W. J. (2002). BLEU: A method for automatic evaluation of machine translation. Paper presented at the 40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ennsylvania, USA.
- Poliquen, B. (2015). Full-text patent translation at WIPO: Scalability, quality and usability. Paper presented at MT Summit XV: The Sixth Workshop on Patent and Scientific Literature Translation (PSLT6). Miami and Florida, US.
- Poliquen, B. (2017). WIPO Translate: Patent neural machine translation publicly available in 10 languages. Paper presented at the Seventh Workshop on Patent and Scientific Literature Translation. Nagoya, Japan.
- Popovic, M. (2018). Error classification and analysis for machine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In Castilho, S., Doherty, S., Gaspari, F., and Moorkens, J. (eds.),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From Principles to Practice*. New York: Springer, 129-158.
- Premoli, V., Murgolo, E., and Cresceri, D. (2019 August). MTPE in patents: A successful business story. Paper presented at the MT Summit XVII. Dublin, Ireland.
- Rossi, L. and Wiggins, D. (2013). Applicability and application of machine translation quality metrics in the patent field. *World Patent Information* 35: 115-125.
- Tsai, Y. (2017). Linguistic evaluation of translation errors in Chinese–English machine translations of patent titles. *Forum* 15(1): 142-156.
- USPTO. (2018).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Retrieved from <https://mpep.uspto.gov/RDMS/MPEP/current#/current/d0e122292.html> on 20 May 2022.
- Wu, Y., Schuster, M., Chen, Z., Quoc, V. Le, Norouzi, M., Macherey, W., Krikun, M., Cao, Y., Gao, Q., Macherey, K., Klingner, J., Shah, A., Johnson, M., Liu, X., Kaiser, L., Gouws, S., Kato, Y., Kudo, T., Kazawa, H., Stevens, K., Kurian, G., Patil, N., Wang, W., Young, C., Smith, J., Riesa, J., Rudnick, A., Vinyals, O., Corrado, G., Hughes, M., and Dean, J. (2016). Google's neural machine translation system: Bridging the gap between human and machine translation. arXiv: 1609.08144. Retrieved from <https://arxiv.org/pdf/1609.08144.pdf>. on 20 May 2022.
- Ying, C., Shuyu, Y., Jing, L., Lin, D., and Qi, Q. (2021). Errors of machine translation of terminology in the patent text from English into Chinese. *ASP Transactions on Computers* 1(1): 12-17.

This paper was received on 31 October 2022; revised on 16 December 2022; and accepted on 20 December 2022.

---

***Authors' email addresses***

jieun.lee@ewha.ac.kr

cutedinojr@naver.com

***About the authors***

Jieun Lee (lead author) is a Professor at GSTI of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egal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community interpreting, machine translation, interpreter and translator education.

Hyoeyun Choi (co-author) is an Adjunct Professor at GSTI of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legal translation, patent translation, machine translation, interpreter and translator education.

# Applying Pym's Typology Of Translation Solutions To Korean-English Text Analysis: A Preliminary Study To Use The Typology In An Undergraduate Translation Class

Sukyong An\* · Hyemin Roh\*\* · Seolim Chung\*\*\*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Pym's typology of translation solutions and identifies some points to be considered when applying the categories to translations from Korean into English. The study tracks a full-text translation produced by a professional translator with the aim of drawing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undergraduate translation classes. As the definitions and explanations of the typology are sometimes confusing, and the examples are insufficient to comprehend the terminology, it has been essential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typology. This study tries to improve translation teachers' understating and application of the typology, given that they may struggle to implement the strategies while using the typology as the basis of their teaching methods. Based on the results, which were established after five rotations of text analysis by three co-researchers, the study suggests that teachers refer to a frequency chart and a modified typology of translation solutions for Korean-English translation. This study ultimately seeks to effectively guide translation teachers through the typolog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words:** Pym's typology, translation solutions, undergraduate translation education, text analysis, Korean-English translation

---

\* Department of English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hD candidate, first author

\*\* Department of English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 co-author

\*\*\* Department of English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 student, co-author

# 1. Introduction

The process of selecting a proper strategy, in order to reach an advanced translation level, should be routine and the ability to choose from an array of translation strategies is required to be taught for undergraduate students (Nam, 2009). To simply define a translation strategy, it is any well-established way of solving a translation problem (Chesterman, 2000).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on Korean to English translation strategies, many studies often focus on translation errors or a few specific translation problems (Kim, 2010; Lee, 2012; Oh, 2010; Park, 2019). There are not enough guides or examples for a translation teacher to better educate on translation strategy: which translation solutions can be most frequently applied, which ones are needed, and what difficulties students might encounter when applying the solutions.

The general consensus among researchers has been that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one full translated story to understand a professional translator's translation process, see what translation problems are faced, and how they are solved. In doing so, students can learn how to apply each solution to their own translation problems. Consequently, translation trainees can acquire translator competence which consists of two distinguished abilities: i) the ability to produce several target text outcomes for one source text and ii) the ability to select one final target text from those candidates (Pym, 1992).

This study analyzes Korean-English translation based on Pym's typology of translation solution types which he emphasized could be applied to multiple language pairs. The typology suggests translation solutions which can help translators determine a proper selection when encountering a translation problem, especially, when there is not an equivalent target expression while mediating texts.

Pym put forward that the typology was designed to educate trainee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s opposed to focusing on understanding the actual cognitive process of translators, which means the trainees learn the terminology and allows them to extend their conceptions of the translator's tasks (Pym 2016: 233). Even if it is mentioned that the typology is pedagogical,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found that it would be too early to adopt it straight into the translation class and teach translation trainees because there

are sparse documented examples of Korean-English translation. Furthermore, as with other scholars' previous translation solutions, Pym's explanation on the typology may not seem clear enough to enable the researchers' understanding of how such solutions should be applied for the definitions of the terms.

As texts were analyzed, the researchers found some inconsistencies in the application of the typology in Korean-English translation. There needed to be a discussion about the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the typology during its application. It would therefore be preferable to suggest changes for more practical use of the typology for translation education.

The second section introduces Pym's typology with literature reviews. The third section shows how textual analysis was conducted by three researchers. In the fourth section, the data analysis and the modified typology are detailed, and the last section provides a conclusion. Ultimately, this research suggests more specific typology for Korean-English language pairing and demonstrat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typology into Korean-English translation pedagogy.

## **2. Literature Review**

### **2.1. *Translation Solutions***

*Translation solutions* is a term used by Pym so as to collectively refer to translation strategies, translation techniques and translation methods of other scholars. Although those terms are interpreted with subtle differences according to each scholar's definitions, such terms are used to propose translation solutions when translators cannot find a proper equivalent expression. Before taking a look at Pym's typology, it would be beneficial to study prior research by some other scholars who suggested translation solutions.

Vinay and Darbelnet's (1958) translation strategies and procedures provide one of the most frequently quoted solutions. There are seven solutions from borrowing to

adaptation: *borrowing* which means translating foreign words as they are; *calque* which corresponds to literal translations of each of the elements in the foreign phrase; *literal translation* translating source language to the target one without any change; *transposition* indicating grammatical change; *modulation* altering the point of view of the source text; *équivalence* representing the translation of idioms and proverbs; and *adaptation* replacing cultural elements (Munday 2016: 89-91).

Some other scholars referred to translation solutions by calling them strategies, techniques or methods, and each proposal has its own strengths. To briefly review some scholars' works mentioned by Pym, Torop's model of translation solutions (1995/2000) is meaningful in that he attempts to systematize the translation solutions in a top-down approach. Schreiber's model of translation procedures (1993/1998) depends on Skopos theory, which categorizes not only other scholars' previous solution types but also suggests translation solutions that extend the scope of editing, revision, post-editing and probably more. It is also noteworthy that translation procedures are placed as a subcategory of translation methods in Schreiber's model. Newmark's (1981) list of solutions is basically similar to Vinay and Darbelnet's categories but consists of seventeen solutions with some additions of *prosodic effects* to their seven representative categories. Chesterman (1997) distinguishes three classes of solution types and organizes translation shifts in terms of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Chinese translation scholar Loh's (1958) translation solutions was published in the same year as Vinay and Darbelnet, and Ye and Shi (2009) influenced by Loh's work, developed twelve solution types. In Japan, given the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Japanese, some scholars supposed and modified their own translation solutions. For instance, in addition to Vinay and Darbelnet's translation strategies, resegmentation is discussed (Anzai, 1983; Sakamoto, 2014) as well as the translation of polite language. Developing Vinay and Darbelnet's work, Hasegawa (2011) summarizes by adding omission, addition, modes of re-organization, etc.

Although several scholars have suggested solution types since Vinay and Darbelnet's translation strategies, in many cases, the researchers found som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ranslation solutions; each distinction was either unclear or explanations and examples were often only applicable to some language pairs, and most of the

solutions focused on translation behavior, so it was difficult to employ such offerings in the field of translation pedagogy.

## 2.2. Pym's Typology

As mentioned above, Pym summarizes the translation solutions that have previously been discussed in Translation Studies<sup>1)</sup>, and proposes a new tentative typology of translation by integrating and clarifying the various advantages of translation solutions in previous theories.

Since each language reflects its own culture and develops different language expressions, there can be difficulties for a translator to mediate between languages. Pym describes that translators select an appropriate solution amidst diverse translation solutions to solve those translation problems they face during the translating process.

At present, the degree of difficulty in each translation problem may vary from what is an immediate resolution to the extent of a few hours/days of careful consideration. In other words, there may be a case where a translator can create a target expression without much effort, normally using their own experience or intuition; Pym classifies the situation of this simple solution as *cruise mode*. On the other hand, there can be more complicated translation problems in which a translator needs their own research from diverse resources such as a dictionary, internet, parallel texts, etc., or even a discussion is needed with some other professionals. Pym distinguished such cases as *bump mode*, and this specifically refers to a situation where a translator can think of more than one translation, in which case the translator should be able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translation to effectively deliver the intention of the source text. Bump mode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which contain the seven solutions in the second column of Table 1. The seven solutions have various sub-solutions, which can be identified in the third column. The proposed typology is as shown in the table below.

---

1)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each scholar's translation solution is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Table 1. Pym's typology (2016: 220)

Cruise mode	<i>normal use of language skills, reference resources, parallel texts, intuition – anything prior to bump mode – so no special solutions are needed)</i>		
Bump mode	Copying	Copying words	Copying Sounds Copying Morphology Copying Script ...
		Copying Structure	Copying Prosodic Features Copying Fixed Phrases Copying Text Structure ...
	Expression Change	Perspective Change	Changing Sentence Focus Changing Semantic Focus Changing Voice ...
		Density Change	Generalization/Specification Explicitation/Implication Multiple Translation Resegmentation ...
		Compensation	New Level of Expression New Place in Text ...
		Cultural Correspondence	Corresponding Idioms Corresponding C.S.I ...
Content Change	Text Tailoring	Correction/Censorship/Updating Omission of Content Addition of Content ...	

Among the translation solutions of many scholars, there are four main reasons why Pym's typology was chosen as the text analysis tool. First, it integrates other scholars' solutions and simultaneously improves clarity of the terms. Because the terms are quite intuitive, this typology can be advantageous for translation teachers to reduce time in explaining each solution's meaning. Second, the typology is devised to be applied to multiple language pairs while previous translation solutions were focused on a

comparison of European languages. Because the two languages, Korean and English, are not close to one another, Pym's intention to apply the typology for multiple language pairs can be a benefit. Third, it is used for pedagogical purposes rather than text analysis (232-233). The typology based on features of former scholars' solutions has been developed by compiling a history of instances of students with different backgrounds in languages he taught. The most prominent of the table above is in that the third column and open-ended list (221) can be adjusted or extend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anguage. The researchers are expected to develop a modified typology for Korean-English pair.

This study will conduct a text analysis of Korean-English translation using the typology, and add or adjust lists applicable to Korean-English translation in the third column via the researchers' repeated discussions.

### 3. Method

Text analysis is an important method in the translation field while studying product-oriented texts (Bell, 1991). By analyzing texts, it is possible to examine not only how translators solve translation problems, but also in what condition they use certain strategies (William & Chesterman 2014: 6).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goal of deconstructing and understanding translation solutions completed by a professional translator in advance of applying them to the undergraduate translation class. It is supposed that some categories can be directly applied to Korean-English translation without any modification, while others need adjustment. By identifying the translation solutions used by a professional translator in her translation, this study intends to minimize teachers' reliance on trial and error in translation education classes, exemplifying how Pym's typology can be better utilized in translation pedagogy.

Text selection for translation education should be carefully made after considering genre, content, easiness, length, and other factors, so as not to discourage students with elementary translation skills (Choi, 2015).

The texts analyzed in this study are from a short story, 'City of Specters', from *The*

*Accusation: Forbidden Stories from Inside North Korea* written by Bandi (2017) and translated by Deborah Smith (2017). She has been one of the well known translators for Korean to English translation since she won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which made her translation attractive for undergraduate students to study and learn from, regardless of some criticism on her translation (Kim, 2016; Kim, 2017). Among her translations, an excerpt from the book *The Accusation* was chosen to reduce the burden that students might have to scrutinize one full story. This study used the following texts:

**ST: 「유령의 도시」 in 『고발』 written by Bandi (Dasan Books)<sup>2)</sup>**

**TT: ‘City of Specters’ in *The Accusation* translated by Deborah Smith (Serpent’s Tail)**

Three co-researchers performed the textual analysis. To maintain objectivity and increase the validity of this study, the textual analysis was performed five times in total with a number of discussions and debates. The research cycle contained four stages and the procedure is explained in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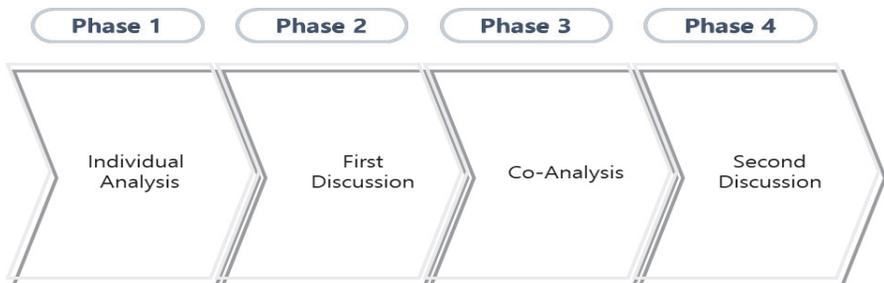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Flow Chart

2) *The Accusation* has been published by two different publishers: Chogabje.com (2014) and Dasan Books (2017). Even though Smith translated *The Accusation* from 『고발』 (which was first published by Chogabje.com), this study selected the Dasan Books edition. The primary reason for this that is by the time we analyzed the text, the Chogabje.com edition was out of print. Since it is not easily accessible for future readers, the researchers believe the Dasan edition is a better option for demonstrating examples. Secondly, when comparing these two editions,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were negligible. Seong (2020) also agrees that the two versions are very close to each other. The Dasan edition contained more North Korean words, and Chogabje.com seemed to substitute these words for South Korean words. By selecting the latter edition, the researchers could reduce variable risks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source text. Notably, some different usages of punctuation were found, but it was assumed that the publishers had different editing styles, which would not affect this study’s analysis result.

Individual analysis was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Each member decided upon which of Pym’s solution types should be used in each sentence. Referring to Pym’s solutions and definitions, the researchers noted the parts that were appropriate to the application of Pym’s typology. In the second step, the discussion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ich solutions gave sufficient or insufficient explanations, and all of the discussions among the researchers were transcribed. The first discussion of phase two was confirmed during the next co-analysis. In the second discussion of the last phase, the typology modification was carried out and the researchers continued examining the subject matter in order to develop their understanding.

## 4. Results

### 4.1. Data Analysis

The source text is composed of 393 sentences in total. The target text has 372 sentences, which is six percent reduction in total sentences from the source text. One unit of text analysis is equivalent to one sentence of the source text. The researchers made a table below to compare ST-TT pairs with Pym’s typology solutions.

No.	Source Text	Target Text	Solutions	
1	국경절 행사를 하루 앞둔 평양은 불쌍하게 알아 있었다.	The day before the National Day celebrations, Pyongyang was decked out in all its finery(+).	Copying Perspective Density	script(평양) sentence focus
2	석 달 전부터 다그쳐오는 행사 준비 비의 마지막 날이니 그럴 만도 했 다.	The past three months of tireless(+) preparation had paid off in spectacular fashion.	Perspective	Sentence focus
3	한경희는 전동차가 ‘풍년역’ 에 멈 었을 때에야 겨우 자리 하나를 얻 어 비집고 앉았다.	When the subway train pulled into Pungnyeon station, Han Gyeong-hee <u>only just managed to jump on(+)</u> , shoulder her way through to the back of the carriage(+), and grab the last available space.	Copying Density	Script(풍년) explicitation

Figure 2. Text analysis units and examples

#### 4.1.1. *Cruise mode*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text analysis with Pym’s typology, the researchers faced a problem with distinguishing cruise mode from bump mode. Discussion was needed to avoid any confusion as to what extent cruise mode could be applied. Pym mentioned that cruise mode is a translator’s thinking mode when there is one clear solution, and accordingly, the translator does not need any special help (2016: 220). In this research, cruise mode is applied to two different cases below.

##### *Cruise mode #1*

In the case that there is one clear solution a translator is able to make a decision intuitively, and there is no need for them to consider alternatives. This corresponds to Pym’s cruise mode.

ST: “그런데요[so]?”

TT: “so?”

ST: “아, 예-[Ah, yeah]”

TT: “Ah, yes.”

##### *Cruise mode #2*

This cruise mode has been detailed in this research. One translator’s selection can affect the rest of the translation while mediating a whole text. Once a translator faces a translation obstacle, and makes the decision to transition from bump mode, the same issue would not arise when it is again confronted. Here is an example.

ST: “육층[sixth floor] 삼호!”

TT: “fifth floor, apartment no. 3!”

A translator recogniz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urce culture and the target culture. In Korea, when you enter a building, the floor numbers begin at the first floor without ‘0’. In accordance with the target culture, 육층(sixth floor) is translated to fifth

floor. For example, the first time Smith encounters the translation problem of building floor numbers, she might choose a solution using cultural correspondence, one of the bump mode solutions. The second time she notices 육층( sixth floor), she could translate it without hesitation because there is one clear solution; this is why the second choice was made using the cruise mode.

In the story, the problem of floor numbers was repeated 6 times in total. To keep the statistical consistency on the frequency chart (see Figure 3), the first solution using the bump mode was counted as bump mode in the statistics. After the initial bump mode, the next solution was identified using cruise mode, and the last four instances were not included in the statistics.

#### **4.1.2. *Bump mode***

All other sentences beyond cruise mode are analyzed using the bump mode. Bump mode is composed of three categories: copying, expression change and content change, and those three categories have their own sub-solutions. When those sub-solutions can be understood by examples, the researchers shortened their explanations in their discussion of this study. It should be noted that expression change shows remarkable features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it occurs frequently and has a meaningful implication for translation students.

##### **4.1.2.1. *Copying***<sup>3)</sup>

###### *Copying words*

Copying script and copying sounds both result in phonetic spellings. The former one represents the foreign sound using the target language alphabet and it can explain how Korean is Romanized. The latter one is limited to a few language pairs, and it usually becomes a loanword as time goes by. The translation processes of those two copying solutions are very close to one another, even Pym mentioned that copying script and copying sounds could be combined (222). The researchers also decided to divide copying words into two sub-solutions: copying morphology which is based on meanings

---

3) Since literal translation is close to the copying solutions, back translation of ST is not offered for copying solutions.

and copying script which copies sounds while neglecting copying sounds.

Copying Sounds	(Combined with Copying Script)
Copying Morphology	ST: 소년 궁전 (72) TT: Children's palace (55)
Copying Script	ST: 평양 (51) → TT: Pyongyang (35) ST: 30리 (75) → TT: 30ri (57)

### *Copying structure*

This solution type is very close to word-for-word literalism (223). Among three sub-categories, copying fixed phrases was the only copying structure solution type that was found in the target text. Two other solution types are not present.

Copying Prosodic Features	Not found
Copying Fixed Phrases	ST: <u>자라 보고 놀란 애 슬뚜경 보고도 놀란다는...</u> TT: <u>The child who fears turtles will flinch at a manhole cover.</u>  ST: <u>토영삼굴</u> TT: <u>Rabbit with Three Burrows</u>
Copying Text structure	Not found

### **4.1.2.2. Expression change**

#### *Perspective change*

Perspective change is a sub-solution of expression change that corresponds to classical Modulation (224). While keeping the original meaning during translation, a way for a professional translator to deliver the meaning can vary depending on different points of view. Undergraduate students, however, tend to stick to the source text while translating. The examples below show the sub-categories of perspective change. Since sentence focus changing is frequently used by the professional translator, the researchers assume that this one would be a useful and worthy translation method to teach.

Changing Sentence Focus	ST: 그러나 오늘은 <u>그럴 수가 없었다</u> [she couldn't do it]. (53) TT: Today, though, <u>this wasn't an option</u> . (37)  ST: 지금 <u>명식의 눈에는 그 초상화들이 보이지 말아야 했다</u> [Now, Myeong-shik's eyes should be kept from seeing...]. (55) TT: <u>Gyeong-hee had to keep Myeong-shik from seeing</u> those portraits. (39)
Changing Semantic Focus	ST: 남편의 <u>유일한</u> [only] 구제책이었다. (54) TT: This was <u>all</u> Gyeong-hee's husband had to offer ... (38)  ST: ... 너무도 <u>천진스레</u> [naively] 살고 있소. (66) TT: But you go about <u>without a care</u> in the world, ...  ST: ... <u>무조건</u> [absolutely] 도착하라! (71) TT: All participants must, <u>without exception</u> , present themselves (54)
Changing Voice	Not found

### *Density change*

To help readers with their understanding, some necessary information is specified or added while some extraneous information is reduced or omitted during translation. All of these changes belong to density change. During the discussion among the researchers, it was quite easy to figure out if the information density of each sentence had been changed or not. However, after categorizing the translation as a density change, it was very challenging to make a consensus on which sub-category of density was clearly used in each sentence. It was found that opinions can vary according to the source text understanding of each reader. Consequently, more time was spent on understanding the source and deciding which sub-category of the solutions was applied while the researchers discussed this category.

Generalization	ST: <u>단순한 커튼 문제가 아니라</u> [not simply about the problem of curtains] (64) TT: <u>over home furnishings</u> . (47)
Specification	ST: 그 <u>차림새와 갖춤새</u> [outfit and belongings]로 보아 (51) TT: <u>Their appearance, and particularly the things they were carrying</u> (35)

Implication	ST: <u>당신은 전설 속의 어비는 알아도 현실 속의 어비는 너무도 모르며 살고 있던 말이오</u> [You know Eobi of the myth but you live without knowing Eobi in the reality]. (66) TT: <u>You think the Eobi is just a fairy tale?</u> (49)
Explication	ST: <u>내 그리 말했는데두</u> [I told you many times] <u>귀에 안 먹어드오?</u> (65) TT: <u>I've told you time and time again to get rid of those damned curtains. As far as I can see, it just goes in one ear and out the other.</u> (48)

Some omissions and additions of expression were also found in the text, and it became a sub-category of density change in the typology revision. Since these changes do not affect the flow of the whole story, this category was not considered content change, which is one of the three main categories of bump mode. Instead, the researchers adjusted the density change category to include omissions and additions of expression.

Omission of Expression	ST: <u>그런 말 말구 내 말을 듣소</u> [Don't say that, you'd better listen to me] (65) TT: -
Addition of Expression	ST: - TT: <u>The secretary frowned.</u> (46)

Unlike the other expression change solutions, two or more sub-types of density changes can occur in one sentence, and it is named multiple translation.

Multiple Translation	ST: <u>오호동 육층 삼호집에서는 날마다 퇴근녘인 저녁 여섯시</u> [every day from six, around the time to leave the office, in the evening] <u>부터 다음날 출근시간 전까지</u> [until the office-going hour the next day] <u>창문들에 청색 덧커튼을 치곤 하는데 이상하다</u> [it is suspicious]. (60) TT: In apartment 3 on the fifth floor of Building 5, <u>every day from around six in the evening until the next morning</u> , blue double curtains are drawn in both windows. I find this extremely suspicious. (44)
----------------------	---

In addition, there are sentences re-assembled; one sentence breaks to two or more, on the contrary, two or more sentences combines to one.

Resegmentation	<p>ST: 자기의 안전을 위해 세 개의 굴을 가지고 산다는 토끼처럼 돌다리도 항상 두드려보며 건너야 하는 것이 이 평양이라는 도시의 생리라는 걸 말 요[Like the rabbit which has three burrows for the safety, we should always stamp on a stone bridge before crossing it, and this is the nature of this city, Pyongyang]. (65)</p> <p>TT: Like the rabbit who keeps three burrows to hurry into as needed, you can never be too careful. // That's the moral of the story. // Always stamp on a stone bridge before crossing, to check that it will bear your weight. // Those are the rules for living in Pyongyang. (48)</p>
----------------	--

The researchers needed to discuss if it would be more ideal to reposition these two categories, multiple change and resegmentation, after completing the text analysis and checking their frequency. The researchers' discussion result can be found on the modified typology of Table 2.

### Compensation

There are times a translator faces a challenge due to a lack of culturally relevant equivalent word; they have to find a good alternative, and it becomes a new level of expression. As target readers do not have enough understanding of the source culture, it would behoove a translator to find an alternative phrase from the target culture. In this case, a direct comparison between source and target sentences would be useless because target readers cannot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the source text. However, this new level of expression can create a similar understanding for both reader groups.

Pym's new place of expression (e.g., footnotes, endnotes, paratexts) was not found.

New level of expression	<p>ST: … (중략) 솥뚜껑[a caldron lid] 보고도 놀란다는… (63)</p> <p>TT: … (중략) will flinch at a <u>manhole cover</u>. (46)</p> <p>ST: 답답하오. 답답해[I am repressed and pent-up]. (64)</p> <p>TT: <u>Answer me!</u> (48)</p>
New place of expression	Not found <sup>4)</sup>

4) Two Korean texts show different style of footnotes. No footnotes were found in the English version. It could be the result of a translator's style or the publisher's policy.

After part of the source text is omitted or downsized through generalization, implicitation, or omission of expression, the disappeared content is relocated to somewhere else in the text. This is a very classical compensation strategy but Pym did not include it in the typology. To avoid any confusion, this research named this sub-category relocation and added it under the compensation category.

Relocation	ST: 수산물 상점 지배인[ <u>manager of a marine products shop</u> ]! (52) TT: Ah, Comrade Manager! (36)
	ST: 서른여섯 나이에 통 크고 배짱 센 여자 지배인으로 소문난 한경희였지만 부모가 ‘어비’라는 말로 정통을 찌르고 드는 데는 어지간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52) TT: Though something of a celebrity when compared with the other mothers— <u>manager of a marine products shop</u> at the age of thirty-six, with a forceful personality that matched her strapping frame—she couldn’t help being unsettled by the mention of Eobi. (36-37)

### Cultural correspondence

Cultural correspondence is when an idiom in the source language is translated to an idiom in the target language.

Corresponding idioms	ST: 그러며 <u>궁여지책</u> 으로 증얼거렸다. TT: Glancing around her, as <u>a last resort</u> she’d brought her face close to his.
Corresponding C.S.I.	ST: 세 살잡이[ <u>three-year-old</u> ] <sup>5)</sup> 아들애는 풀로 붙인 듯 TT: The <u>two-year-old</u> boy was practically glued to her,

Another cultural correspondence is when different punctuation marks are used. The researchers went through the text analysis in order to suggest a modified typology as a translation teaching material for undergraduate students, and decided to add this sub-category of punctuation marks to increase novice translators’ awareness about the differences of each language’s punctuation marks.

5) Koreans include 40 weeks of pregnancy to count their age. When a baby is born, he/she becomes one year old.

Punctuation marks	ST: ‘보모가 무슨 눈치라도 챜 것이 아닐까?’[single quotation marks] TT: <i>Has the governess picked up on something?</i> [italics]
-------------------	---

#### 4.1.2.3. Content Change

Sub-solution types of content change were not found. There have been many expression changes, but it seems that most of the source text writer’s intentions are maintained in the target text.

#### 4.1.2.4. Unclassified

There are some changes between the source and target sentences, for which the researchers could not explain or classify. Those inexplicable changes did not match the translator’s typical patterns. Here is an example: Typically, the translator appropriately translated 100 만[million] to million. All of the sudden, the translator translated the same number to a hundred thousand people, which the researchers labeled as an unclassified change. Another example is one of the Romanized locations is switched from *창전* [Changjeon] to Yangcheon crossroads without a clear reason. Additionally, in the source text the main character, Gyeong-hee, gives a speech, which in the translation is given by her husband. The original meaning is maintained throughout the speech, but the character giving the speech is switched. Therefore, unexpected chang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translator’s intention or the reason, are regarded as unclassified.

## 4.2. Discussion

Theory teaching and learning are important but it is not always easy to apply theories to practice. Undergraduate students may often struggle in applying theories they learned to their practical translation.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t is the teacher’s role to help students with enough data and examples. However, many theoretical books focus on European language translation rather than Korean, as a result, teachers need to compile Korean-English translation examples themselves. This study exemplifies each translation solution with Korean to English translation examples which many textbooks or articles about translation strategies do not suggest.

Furthermore, the research result can reveal pedagogical implications via a frequency chart of bump mode solutions in Figure 3 below. Even after the cruise mode was detailed in this research, it only occupied less than 5% of the total solutions and was excluded from the frequency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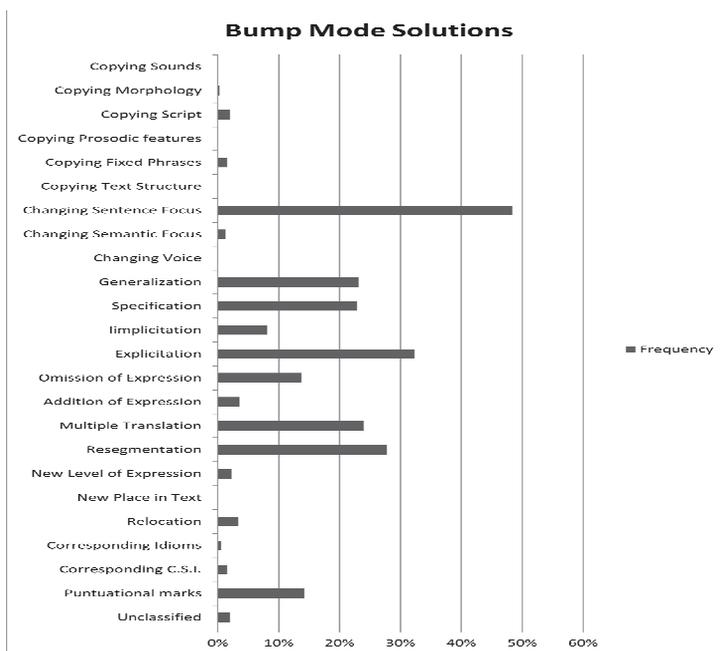


Figure 3. Frequently used bump mode solutions in *The Accusation*

Many translation trainers have found that trainee translators tend to work from the source text as it is written. Most students apply the copying strategy to be as accurate as possible since translators are required to be literal, accurate and faithful to the original text (Pym 2016: 242). This study, however, shows that the professional translator changes expressions and selects diverse solutions. In other words, there are many ways to be faithful to the text, other than copying. Sentences can be approached with different perspectives; the quantity of information in sentences can be adjusted; the sentence location can be changed, or even combined and separated.

As Figure 3 shows, changing sentence focus is the most frequently used translation

solution. In addition, density change by generalization, specification, implicitation, explicitation, or even multiple translation is the second most utilized. Resegmentation to reorganize a phrase, a sentence, or a paragraph is commonly employed as well.

If these various translation solutions are applied to translation tasks or activities in the translation classes, it would likely be more effective to help students acquire different translation solutions and skills.

In addition, the research can propose the revised typology for Korean-English language pairs. The modified typology is suggested as follows, based on the frequency chart of the text analysis. Even though the modification was slight, the researchers think it can still help translation teachers to reduce their trial and error while using the typology in the classroom. To maximize its benefits, the researchers added the reasons as to why and how the modification was created.

Table 2. A modified typology for Korean-English Translation

Cruise mode	1) No special solutions are needed 2) <b>Repeated translation problem</b>			
Bump Mode	Copying	Copying words	Copying Morphology Copying Script (≡ <b>Copying Sounds</b> )	
		Copying Structure	Copying Prosodic Features Copying Fixed Phrases Copying Text Structure	
	Expression Change	Perspective Change	Changing Sentence Focus Changing Semantic Focus Changing Voice	
		Density Change	Generalization/Specification Explicitation/Implicitation <b>Addition/Omission of expression</b>	<b>Multiple Translation</b>
		Compensation	New Level of Expression New Place in Text (notes, paratexts) <b>Relocation</b>	
		Cultural Correspondence	Corresponding Idioms Corresponding C.S.I <b>Punctuation marks</b>	
		<b>Resegmentation</b>	Changing sentences or clause breaks	
	Content Change	Text Tailoring	Correction/Censorship/Updating Omission of Content Addition of Content	

One of the difficulties while applying the topology is to define cruise mode. The original typology explains that a translator does not need any help with translation solutions for a very simple problem. However, another case was found during the text analysis where cruise mode is applied when the same translation problem is repeated and a translator already made a decision for it. Cruise mode is more precisely defined by detailing the second case of the mode.

For bump mode, some sub-solutions are added or deleted, or even positions of sub-category moved, etc. Primarily, the copying solution is simplified. Copying sounds is integrated with copying script within the category of copying words including the romanization of Korea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copying script seems to include sounds as well. Secondly, the density change solution in the expression change category is more specified; the addition or omission of expression is added, and the location of multiple translation is re-designated as an overall label of density change in order to make sure it allows several translation solutions to be used at the same time. Thirdly, a few new solutions are added. Relocation is added in compensation, likewise punctuation marks are added in cultural correspondence. Finally, resegmentation is moved from the third column to the second column of the typology since it occurs often with perspective change or density change. This corresponds with Pym's approach later on (Pym, 2018: 45). The revised typology may be referred to as the Korean-English specific version.

While having a discussion on bump mode, the researchers found that the second column such as copying words, copying structure, perspective change, etc. can help teachers guide students. It was easy for three individuals to reach an agreement in one specific instance, while significant discussions were needed for the final sub-solutions. It seems that those categories in the second column of the typology can be a practical educational guide in the translation classes. For example, students can try to add or reduce the amount of information by simply identifying density change even though they do not understand every detailed sub-solution.

## 5.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s Korean-English translation text analysis based on Pym's typology to indicate that a professional translator employs diverse translation solutions. The frequency chart of Figure 3 from the study can help undergraduate students visualize various translation solutions when they encounter a translation problem, which is an essential competence to become a capable translator.

Before its application to the classroom for translation training, this study conducted a text analysis to identify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the typology. It aimed to seek ways to use the typology in Korean to English translation pedagogy.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suggests the revised typology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results and discussions among researchers. Even though the researchers are not professional literary translators, their background would be a minor problem to have this text analysis because this study focuses on the typology instead of the translation quality evaluation.

However, the researchers recognize this study has its limitations in that it analyzed only one short story translated by one professional translator. The result, therefore, cannot be generalized for all Korean to English translation, though the researchers think the typology is still worth teaching in undergraduate translation classes to increase students' awareness of diverse translation solutions. In addition, there is still a risk of subjectivity even though three researchers participated in the text analysis.

Regardless of limitations, the study has positive aspects. The study analyzed a text using Pym's typology, and then examined its effectiveness. By suggesting frequency data and rigid typology for Korean-English pair, this research tried to help translation teachers reduce trial and error as the typology is applied in the classroom. Thus, it is hoped various experimental research will directly apply the results to translation pedagogy.

---

## References

- Anzai, T. (1983). 英語の発想 [Conceptualization of English]. Tokyo: Chikuma Gakugei Bunko.
- Bandi. (2014). *Go-bal (The Accusation)*. Seoul: Chogabje.com.
- Bell, R. T. (1991).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London: Longman.
- Chesterman, A. (1997). *Memes of Translation: The Spread of Ideas in Translation Theory*.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Chesterman, A. (2000). Memetics and translation strategies. *Synapse* 5(17).
- Choi, M. (2015). Training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Theory and practice. *T&I Review* 5: 121-136.
- Hasegawa, Y. (2011). *The Routledge Course in Japanese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oh, D. Y. (陆殿扬). (1958). 『英汉翻译的理论与技巧』. *Translation: Its Principles and Techniques (Book One)*. Beijing: Times Publishing.
- Munday, J. (2016).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Milton Park and New York: Routledge.
- Nam, W. J. (2009). Translation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ranslation & English pedagogy. *The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7(1): 5-36.
- Newmark, P. (1981). *Approaches to Translation*. Oxford: Pergamon Press.
- Pym, A. (1992). Translation error analysis and the interface with language teaching. *The teaching of translation*. 279-288.
- Pym, A. (2016). *Translation Solutions for Many Languages: Histories of a Flawed Dream*.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 Pym, A. (2018). Typology of translation solutions.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30: 41-65.
- Sakamoto, A. (2014). *Translators theorising translation: A study of Japanese/English translators' accounts of dispute situ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translation pedagogy*. Ph.D thesis. University of Leicester.
- Schreiber, M. (1993). *Übersetzung und Bearbeitung, Zur Differenzierung und Abgrenzung des Übersetzungsbegriffs*. Tübingen: Narr.
- Schreiber, M. (1998). *Übersetzungstypen und Übersetzungsverfahren*. In M. Snell-Hornby, H. G. Hönl, P. Kussmaul & P. A. Schmitt (Eds), *Handbuch Translation*. pp. 151-154. Tübingen: Stauffenburg.
- Torop, P. (2000 [1995]). *Тотальный перевод*. Tartu: Tartu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Osimo, B. *La traduzione totale*. Modena: Guaraldi Logos)
- Vinay, J. P. and Darbelnet, J. (1989 [1958]). *Translation procedures*. (Original work published: Chesterman, A.) In Chesterman, A. (dd.), *Readings in Translation Theory*. Helsinki: Oy Finn Lectura. 61-69
- Vinay, J. P. and Darbelnet, J. (1995 [1958]). *Comparative Stylistics of French and English: A Methodology for translation*. (Original work published: Sager, J. C. & Hamel, M. J.).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Williams, J. and Chesterman, A. (2011/2014). *The Map*. New York: Routledge.
- Ye, Z. and Shi L. X. (2009). *Introduction to Chinese-English Translation*. New York: Hippocrene Books.
- 김대중. (2016).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 연구」. 『인문과학연구』 51: 31-59.
- 김도훈. (2010). 「한영 번역에 있어서의 관용구의 번역전략」. 『통번역학연구』 13(2): 29-44.
- 김번. (2017). 「[채식주의자] 와 *The Vegetarian*: 원작과 번역의 경계」. 『영미문학연구』 32: 5-34.
- 박헌일. (2019). 「한영 소설 제목의 시대별·번역사별 번역 전략 양상 연구」. 『번역학연구』 20(5): 35-52.
- 성승은. (2020).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에서 중역과 저본의 영향」. 『동서비교문학저널』 53: 149-174.
- 오미형. (2010). 「언어유희 한영자막번역 전략의 다양성」. 『통번역교육연구』 8(2): 151-177.
- 이승아. (2012). 「‘Be being+ 서술 형용사’ 구문의 영한번역전략: 영한 병렬 코퍼스를 활용한 분석」. 『번역학연구』 13(4): 159-183.

[Analyzed Texts]

- Bandi. (2017). 「유령의 도시(City of Specters)」. 『고발(The Accusation)』. Seoul: Dasan Books.
- Smith, D. (2018). *City of Specters. The Accusation*. London: Serpent's Tail.

This paper was received on 24 October 2022; revised on 8 December 2022, and accepted on 14 December.

---

*Author's email address*

haengbok20@naver.com

noh6420@hanmail.net

elkeens@daum.net

*About the authors*

Sukyong An (first author) is a PhD candidate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a lecturer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undergraduate translation pedagogy and children literature translation.

Hyemin Roh (co-author) obtained her master's degree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queer and feminist translation.

Seolim Chung (co-author) is a master's student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gender translation.

# PhD Thesis Abstract

## K-POP 가창 가사의 한일·일한 번역 전략 연구

- 음절수, 압운, 의미를 중심으로 -

박세리(Seri Park)

한국외국어대학교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BTS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그래미 어워드에 수상 후보로 연이어 이름을 올리면서 K-POP의 세계적인 인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제 K-POP은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한국을 알리는 수단으로 문화 현상의 전파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파급력은 커지고 있다(이승연·장민호, 2019). 이러한 가운데, K-POP 가수들의 일본 진출 성공사례도 늘고 있다. K-POP 분야에서 일본은 중요한 시장으로 가수들의 일본 진출이 활발하여 번역곡들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K-POP의 한국어-일본어 언어쌍의 번역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K-POP 가창 가사의 한일·일한 번역 양상을 분석하여 가창 가사가 가진 제약과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번역 전략을 도출하고, 번역 언어의 방향에 따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 (1) ST와 TT의 음절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TT의 가창성을 달성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 (2) ST의 압운을 TT에서 구현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 (3) ST의 의미를 TT에서 구현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 (4) 상기 음절수, 압운, 의미 번역 전략의 분석을 토대로 한일 번역곡과 일한 번역곡에서 나타나는 번역 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일본에 진출하여 성과를 거둔 K-POP 가수들이 해당 기간 동안 일본과 한국에서 발매한 곡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 곡수는 한일 번역곡 129곡과 일한 번역곡 61곡으로 총 190곡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로는 Franzon(2008)이 가창 가사 번역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던 ‘운율적 합치’, ‘시적 합치’, ‘의미적 합치’를 기본틀로 삼았다. 분석의 범위로는 각각의 조건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텍스트 구현 요소 중, 운율적 합치에서는 ‘음절수’, 시적 합치에서는 ‘압운(rhyme)’, 의미적 합치에서는 ‘묘사’, 즉 가사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음절수’에서는 ST와 TT의 음절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TT에서 어떠한 음절수 합치 전략을 구사했는지 살펴보았다. ‘압운’에서는 ST의 압운을 TT에서 구현하는 전략에 대해 각각의 섹션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의미’에서는 ST의 의미를 TT에서 구현하는 전략에 대해 각각의 행과 섹션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 3. 분석 결과

첫째, ST와 TT의 음절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①음운적 층위에서 일어나는 음절 합치 전략과 ②음악적 층위에서 일어나는 음절 합치 전략을 구사하여 가창성을 달성하였다.

음운적 층위의 음절 합치 전략은 ‘TT 음절 축약’, ‘영어 음절·일본어 음절 혼용 가창(한일번역)’ 및 ‘영어 음절·한국어 음절 혼용 가창(일한번역)’이 있었고, TT축약은 ‘이중모음화’, ‘후행 동일 모음 탈락’, ‘중성 모음 ʉ(/u/)탈락’, ‘모음의 무성화’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음악적 층위의 음절 합치 전략은 ‘원곡 리듬 변경’, ‘원곡 음표 유지’가 있었으며, 원곡 리듬 변경 방식에는 ‘음표 쪼개기’, ‘음표 합치기’, ‘음표 추가’, ‘음표 삭제’가 있었고, 원곡 음표 유지 방식은 원곡 음표에 맞추어 TT의 음절을 삽입하거나 TT의 음절을 늘어 부르는 전략이 있었다.

둘째, ST의 압운이 TT에서 구현되는 전략으로는 압운의 ‘유지’, ‘소실’, ‘추가’,

‘변경’이 나타났다. 또한 압운의 효과와도 관련이 있는 압운의 운량은 TT에서 증가하기도 하고, 동일하게 유지되기도 하며,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압운 번역에서 특기할 만한 점으로 음운의 재구조화를 통한 ‘가창 발음’이 나타나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압운을 형성하는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ST의 의미가 TT에서 번역되는 전략으로는 크게 ‘의미 유지’와 ‘의미 일탈’이 나타났다. ST의 의미를 TT에서 높은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 ‘의미 유지’는 ST의 의미 모두가 TT에 반영된 ‘전체 유지’와 ST의 일부 요소가 TT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 일탈’로 구분되었다. ‘부분 일탈’은 의미의 ‘추가’, ‘변경’, ‘생략’, ‘구체화’, ‘일반화’라는 세부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TT가 새로운 텍스트로 대체된 ‘의미 일탈’은 전체의 의미가 새로 쓰여진 ‘전체 일탈’과 ST의 일부 표현만을 TT에서 참조한 ‘부분 유지’로 구분되었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 K-POP 가창 가사 번역곡의 범주 분류를 위해 시도한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확인된 점은 K-POP 가창 가사 번역곡에서는 번역곡(ST의 의미를 TT가 80% 이상 유지한 곡), 각색곡(20%이상~80%미만 유지한 곡), 대체곡(의미 유지 비율이 20% 미만인 곡) 모두 혼재한다는 사실이다.

넷째, 한일 번역곡과 일한 번역곡에서 나타난 번역 전략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음절수’에서는 ‘원곡 리듬 변경’ 전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음절 혼용 가창’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압운’에서는 ‘유지 > 소실 > 추가 > 변경’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운량은 감소 > 증가 > 동일의 순서로 나타났다.

‘의미’에서는 ‘의미 유지(전체 유지+부분 일탈)’가 ‘의미 일탈(전체 일탈+부분 유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의미 보존의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 TT를 일정 부분 조정하는 ‘부분 일탈(추가+변경+생략+구체화+일반화)’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ST의 영어 가사가 번역되지 않고 TT에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노래에서 ST 의미의 TT 반영도가 20% 이상~80% 미만인 각색곡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일 번역곡과 일한 번역곡에서 나타난 번역 전략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음절수’에서는 한일 번역곡에서는 ‘TT 음절 축약’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일한 번역곡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압운’에서는 한일 번역곡에 비해 일한 번역곡에서 압운 ‘추가’ 비율이 두 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으며, 운량의 증가가 한일 번역곡보다 일한 번역곡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의미’에서는 한일 번역곡에서의 의미 일탈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한일 번역곡에서 한국어 가사를 TT에 그대로 보존하는 사례가 나타난 데 반해, 일한 번역곡에서 일본어 가사를 TT에 보존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한일 번역곡은 ‘생략’과 ‘일반화’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추가’와 ‘구체화’가 낮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일한 번역곡에서는 ‘추가’가 높은 비율로, ‘생략’과 ‘일반화’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일 번역곡이 일한 번역곡에 비해 ‘대체곡’의 비중이 높고, 일한 번역곡은 한일 번역곡에 비해 ‘번역곡’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4. 결론

K-POP 가창 가사의 한일·일한 번역에서는 음절수 불합치 시, 가창성 달성을 위해 원곡 리듬 변경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오페라, 뮤지컬과 같은 장르와 달리 K-POP 장르에서 가창 가사의 최우선 목표는 가사 전달이 아니며, 원곡의 리듬에 대해서도 비교적 유연하게 접근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압운 번역에서는 ST의 압운을 TT에서도 구현하려는 경향이 비교적 강하지만, 운량은 감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압운은 유지하되 운량에 대한 고려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의미 번역에서는 ST의 의미를 TT에서도 보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의미 번역 전략의 범주 구분을 시도한 바, 한일·일한 번역에서 ‘각색곡’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페라, 뮤지컬과 같은 장르의 가창 가사 번역과 다소 다른 점으로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첫째, K-POP 가창 가사를 음절수, 압운, 의미 번역의 양상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둘째, K-POP 가창 가사의 번역 양상을 의미 번역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측면, 즉 음절수와 압운 측면에서도 조망해 볼 수 있었다는 점, 셋째, 오페라, 뮤지컬 가창 가사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K-POP 가창 가사의 번역에서 장르적 특성에 기인한 차이점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넷째,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의미적 충실도에 따른 번역, 각색, 대체라는 범주 구분에 조작적 정의를 내려 한일 번역곡과 일한 번역곡의 번역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음절수, 압운, 의미를 연계하여 각각의 요소 간의 관계를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점, 번역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의 고려, 가창 가사 번역 전략에 대한 팬덤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

## 참고문헌

- 이승연·장민호(2019). 「K-POP 음악의 글로벌 성공 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4): 1-15.
- Franzon, J.(2008). Choices in song translation. *The Translator* 14(2): 373-399.

본 초록은 ‘박세리. (2022). K-POP 가창 가사의 한일·일한 번역 전략 연구-음절 수, 압운, 의미를 중심으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 *Author's email address*

parkseri77@hotmail.com

### *About the author*

Seri Park is a lecturer at GSIT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song translation and education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 PhD Thesis Abstract

## 한일/일한 동시통역에 나타난 비유창성 요소에 관한 연구

이선화(Seonhwa Lee)

중앙대학교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제회의 통역사가 뉴스를 보도하는 아나운서와 같이 완벽한 발화를 수행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동시통역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아내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시통역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역사는 동시통역하는 중간중간에 발화를 수정·반복하기도 하고, 머뭇거림이나 휴지 등을 두기도 한다.

Garnham(1985: 206)은 통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비유창성(disfluency)’이라고 말하며, “가장 흔히 나타나는 비유창성에는 망설임(hesitations), 휴지(pauses), 머뭇거림(ums and ahs), 수정(corrections), 잘못된 시작(false starts), 반복(repetitions), 삽입(interjections) 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통역 시 통역사의 발화에서 유창한 통역을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비유창성 요소’라고 명명하고, 이들 요소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항목으로 ‘수정’과 ‘반복’, ‘머뭇거림’, ‘휴지’를 선정하였다. 이 네 가지 비유창성 요소가 통역 현장에서 전문통역사에게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실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방법

### 2.1. 분석 대상연구 참여자 및 원천텍스트 정보

본 연구에서는 동시통역의 비유창성 요소를 수정과 머뭇거림(간투사와 장음화), 휴지, 반복, 네 가지로 선정하여 언어방향 및 발표형태, 발화속도로 유형화하고, 각 요소에 대한 발생 빈도와 발현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자가 ‘비유창성 요소’로 정의하고 설정한 네 가지 분석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비유창성 요소와 정의

비유창성 요소	정의	
수정	통역사가 발화 도중 특정 단계에서 정보처리에 실패하였거나 각 단계에서 정보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상위 단계로 되돌아가는 과정 (Gerver, 1975) 통역사가 자신의 발화에서 오류나 부적절함을 감지한 후 원래 발화의 구조적 속성을 '전이하는 행위 (Levelt, 1983)	
반복	음소 혹은 음절, 낱말, 낱말군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 (심현섭, 2003)	
머뭇거림	간투사	발화속도의 변동, 휴지 출현 현상, 통역 시 사이를 메우기 위한 ‘에-’, ‘아’ 등과 같은 소리 (遠山, 2007)
	장음화	새로 발화할 부분을 처리하는 동안 단어의 마지막 모음이나 자음 등 특정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것 (Martellini, 2013)
휴지	조음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최문선, 2015)	

### 2.2. 연구 참여자 및 원천텍스트 정보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국제회의 모습을 반영하여 국제회의 통역사에게 온라인 회의 플랫폼 Zoom을 이용하여 동시통역을 의뢰하고, 연구자는 이들의 통역을 녹음하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통역을 녹음한 이후에는 녹음한 음성파일을

연구자가 모두 전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문의 음성파일과 대조하면서 통역 시 발생한 비유창성 요소를 모두 표기하여 각 요소를 분석하였다.

실제 동시통역에서는 통역의 경험이 없거나 짧은 경우 통역 스킬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비유창성 요소가 다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실험에 참여시킨 통역사는 모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평균 16.4년)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한 원천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 2. 원천텍스트 정보

구분	ST	제목	분야/ 발표형태	발표 시간	발표자	발표 일
한국어 ST	A1	제75차 유엔총회 문재인 전 대통령 기조연설	외교/ 원고 있는 ST	15분 54초	문재인 전 대통령	2020. 09.21
	A2	한중일 스마트시티 웹세미나	경제/ 원고 없는 ST	08분 27초	이정훈 서울시 대표	2020. 08.19
일본어 ST	B1	第75回国連総会におけ る菅総理大臣 一般討論	외교/ 원고 있는 ST	11분 06초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2020. 09.26
	B2	日中韓スマートシティ ーウェブセミナー	경제/ 원고 없는 ST	08분 00초	요나쓰 마사후미 도쿄도 대표	2020. 08.19

### 3. 분석 결과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언어방향별 비유창성 요소의 발생 빈도와 발표형태별 비유창성 요소의 발생 빈도, 발화속도별 비유창성 요소의 발생 빈도, 크게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언어방향별 비유창성 요소의 발생 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 언어방향별 비유창성 요소

비유창성 요소		언어방향		언어방향별 차이	언어방향별 합계	
		AB동시통역	BA동시통역			
수정		194	172	22	366	
반복		67	56	11	123	
머뭇거림	간투사	529	543	14	1,072	1,731
	장음화	320	339	19	659	
휴지		148	172	24	320	
합계		1,258	1,282	24	2,540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본 실험에서 통역사들은 AB동시통역과 BA동시통역에서 큰 차이가 없이 양방향 균형 잡힌 통역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발표형태별 비유창성 요소의 발생 빈도이다.

표 4. 발표형태별 비유창성 요소

비유창성 요소		발표형태		발표형태별 차이	발표형태별 합계	
		원고 있는 ST	원고 없는 ST			
수정		236	130	106	366	
반복		90	33	57	123	
머뭇거림	간투사	612	460	152	1,072	1,731
	장음화	345	314	31	659	
휴지		196	124	72	320	
합계		1,479	1,061	418	2,540	

발표형태별로 살펴본 비유창성 요소도 언어방향별 결과와 마찬가지로 머뭇거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수정, 휴지, 반복의 순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발표형태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간투사로 152회의 차이가 발생했고, 가장 적은 차이는 31회 차이가 나는 장음화였다.

전체적으로는 비유창성 요소가 원고 있는 ST에서 1,479회, 원고 없는 ST에서 1,061회 발생하여 약 40% 더 많이 발현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동시통역시 통역사가 원고 없는 ST를 더 유창하게 통역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발화속도별로 살펴본 비유창성 요소 중 수정에서는 발화속도와 뚜렷한 관계성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연사의 발표형태에 따라 부분적으로 연사의 발화속도가 빨라지면 통역사의 수정이 발생했다. 특히 모국어로의 통역에서는 연사의 발화속도가 느린 구간에서 적합성 수정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반복에서는 다섯 명의 통역사를 모두 합한 빈도 자체가 낮아 연사의 발화속도와 비교할만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다. 머뭇거림에서도 직접적인 관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휴지의 경우, 원고 있는 ST에서 일부 연사와 통역사의 발화속도가 느린 구간에 휴지가 다수 존재했으나 나머지 원천텍스트에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서는 통역사의 통제권 밖에 있으면서 동시통역의 비유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간적 요소로는 총 발화시간을 비롯하여 연사의 발화속도를 기초로 산출한 평균 발화속도 및 발화율, 상대적 발화속도, 그리고 연사의 발화를 1분 단위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발화속도의 구간별 변화이다. 이들 요소에 따른 통역사의 대응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통역사의 수행 능력 및 텍스트의 퍼포먼스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발화시간은 네 명의 연사와 모든 통역사가 거의 비슷하였고, 평균 발화속도는 한국어 통역에서 일본인 연사의 평균 발화속도가 상당히 빨랐음에도 통역사 모두가 동시통역에 적합한 안정적인 한국어 발화속도를 유지하며 통역했다. 발화속도의 최고구간과 최저구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한국인 통역사들이 균형 잡힌 양방향 동시통역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BA동시통역에서 연사의 발화속도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통역사의 정보처리 지표가 되는 발화율은 통역사 평균이 92%로 모든 통역사가 높은 발화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대적 발화속도비에서는 연사를 1로 보았을 때 전체 통역사의 평균 비율이 A1에서 1.4, A2에서 1.04로 일부 통역사에게 과밀하게 정보가 들어갔거나 생략이 많은 경우가 있었다. B1과 B2에서는 모든 통역사가 전 구간에서 대동소이하여 모든 통역사가 안정적인 동시통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결론

통역사가 비유창성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통역한다면 아나운서와 같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발화를 구사한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으나 인간의 인지 활동 중에서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동시통역 영역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통역사가 기계가 아닌 이상 거의 실시간으로 연사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전환하며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정이나 반복, 머뭇거림, 휴지와 같은 비창성 요소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연사의 발화에도 이와 같은 비유창성 요소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Susan & Michael (2001: 292)은 ‘Uh, um’과 같은 담화 표지가 있을 때 오히려 목표 단어를 더 잘 인식하므로 담화 표지의 사용과 반복은 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하였으며, 남길임(2011: 115-116)도 비유창성 현상은 구어를 구어답게 만들어주는 요소이며 구어에 자연스러움을 부여하는 요소라고 한 바 있다.

따라서 동시통역에서는 비유창성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다기보다는 통역사 각자가 스스로의 비유창성 요소를 점검하고, 가장 취약한 요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훈련 및 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유창성 요소에는 연사의 발화속도 및 원천텍스트의 난이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문통역사뿐만 아니라 통역 학습자에게도 적용된다. 통역 학습자들은 통역 훈련 단계에서부터 비유창성 요소를 의식하고, 각자의 발화 습관 및 통역 기술을 점검하고, 학습자 간 상호 피드백을 통하여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통역 교수자에게도 통역 교육 시 원천텍스트의 발화속도, 텍스트의 난이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학습자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비유창성 요소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한 네 가지 비유창성 요소는 통역 평가자의 입장에서조차 아직까지는 통역사의 유창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러한 실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책정되고 나아가 자동평가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동시통역의 유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남길임. (2011). 「담화유형에 따른 한국어 비유창성 연구」. 『담화와 인지』 18(3): 115-138.
- 최문선. (2015). 「학습자의 통역에서 나타나는 휴지(pause) 분석」. 『한국통번역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1): 3-9.
- Garnham, A. (1985). *Psycholinguistics: Central Topics*, London/New York: Routledge.
- Gerver, D. (1975). A psychological approach to simultaneous interpretation. *Meta* 20(2): 119-128.
- Levett, W. J. M. (1983). Monitoring and self-repair in speech. *Cognition*, 14: 41-104.
- Martellini, S. (2013). Prosody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case study for the German-Italian language pair. *The Interpreters' Newsletter* 18: 61-79.
- Brennan, S. E. and Schober, M. F. (2001). How listeners compensate for disfluencies in spontaneous speech.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44: 274-296.
- 遠山仁美・松原茂樹. (2007). 「英日同時通訳者発話におけるフィラーの出現と聴きやすさとの関係」. 『通訳翻訳研究』 7: 39-50.

### [인터넷 자료]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第75回国連総会における菅総理大臣一般討論演説 2021.09.26. [https://www.mofa.go.jp/mofaj/fp/unp\\_a/page4\\_005200.html](https://www.mofa.go.jp/mofaj/fp/unp_a/page4_005200.html) (2021.10.20. 검색)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t.hufs.ac.kr/>
- 한국 청와대 홈페이지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2021.09.22.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213> (2021.10.20. 검색)
-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주최 한중일 스마트시티 웹세미나 2021.08.19. <https://tcs-asia.org/en/main/> (2021.06.02. 검색)

본 초록은 ‘이선화. (2022). 한일/일한 동시통역에 나타난 비유창성 요소에 관한 연구’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Author's email address***

snada@hanmail.net

sna1004@cau.ac.kr

***About the author***

Seonhwa Lee earned her Ph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especially simultaneous interpreting and machine translation.

## Book Review

**Reception Studies and Audiovisual Translation**, by Elena Di Giovanni/Yves Gambier (eds.), 2018, Benjamins Translation Library Vol. 141.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353+xii pages. ISBN 9789027263933.

**Saeed Ameri**

University of Birjand

Without a shred of doubt, reception has been receiving ever-growing attention from audiovisual translation (AVT) researchers in the last twenty years or so and it has contributed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udience’s behaviour and attitudes towards the consumption of translated audiovisual productions” (Díaz Cintas, 2020, p. 221). Particularly relevant is the 2020 special issue of the journal *JoSTrans* devoted to AVT reception studies edited by Díaz Cintas and Szarkowska (2020). Moving forward, the time has come for a scholarly volume to offer an updated panorama of the existing studies and take stock of research approaches employed to study audiences. In this clearly-written and extremely readable volume, Elena Di Giovanni and Yves Gambier, two prominent AVT scholars, have attempted to gather a select group of media studies and AVT scholars to outline theoretical underpinning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together with a critical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and a number of recommendations for future directions. The 15 chapters of the edited volume are divided into four sections, serving various functions. Each chapter begins with an abstract, summarizing the main content.

In the introductory chapter, the editors contextualize reception and audience within the field of AVT and present a well-thought map of AVT development. Yet, the map is not well discussed and needs more elaboration. For example, the “Process” branch is problematic; at least what I understood from the brief list of topics included in it is that it

less deals with cognitive processes in the creation of AVT. The map, therefore, merits an in-depth discussion to avoid any likely confusion. The editors' chapter then ends with a brief introduction to each chapter.

Part I (Chapters 1-3), "Defining Reception Studies", opens with a chapter by Annette Hill who introduces a multi-method and pragmatic approach to studying transnational media audience. This multi-method approach incorporates interviewing fans, audience and film crews, and analyzing published data, such as film statistics and reports, to offer more insights into the reception of the program under investigation. To make her chapter meaningful and understandable, she presents it with one case study; the popular TV show *The Bridge*. There seems to be a missing link in Annette Hill's chapter; it is not obvious how this chapter contributes to the field of AVT. In their chapter on film audience research, Daniel Biltereyst and Philippe Meers offer an interesting historical development of film audience research, which was initially part of the field of social sciences than film studies. The historical account is followed by an engaging discussion of contemporary trends in film audience studies where reception and audience are approached from both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The diverse strands of historically- and contemporarily-oriented studies addressing audience and reception, as discussed by the authors, can definitely benefit AVT researchers. Yves Gambier's chapter, which closes the first section, presents a critical but fascinating overview of past and recent development of AVT reception studies. It tries to summarize the early attempts made by translation studies scholars, including Nida and Chesterman in understanding audience as well as pinpointing different approaches in other disciplines for studying audience. The hallmark of this chapter is the introduction of a strong analytical framework that presents three kinds of reception (3 Rs): "Response", "Reaction" and "Repercussion", very useful for operationalizing reception studies.

It is Part II (Chapters 4-7) which focuses on research methods in reception studies. In her chapter, Tiina Tuominen discusses reception experience, understood here as the audience reaction to translated programs and their expectations of and attitudes about translation. Researchers, as she argues, can harnes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ools, including interviews, focus groups, observation and questionnaires to understand audience reception. For the next chapter, Jan-Louis Kruger and Stephen Doherty discuss

offline measures (e.g. questionnaires, interviews and comprehension tests) and online measures (e.g. eye trackers, heart rate monitors and electroencephalogram) for investigating audience in AVT. The authors rightly recommend a triangulation of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to achieve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he translated program is received by its audience. For his chapter, Roberto A. Valdeón presents an overview of the existing reception studies as far as “the linguistic, pragmatic and multimodal aspects of audiovisual texts” are concerned (p. 124) and reviews the methodological approaches. Serenella Zanotti explores historical reception studies in the last chapter of the second section. After an in-depth survey of past research concerning audiences in early cinema, she dwells on relevant approaches, such as archival methods and oral history for examining reception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s the name of Part III (Chapters 8-11), “AVT Modalities and Reception Studies”, suggests, it aims to map the evolution of reception and outline strands of research in mainstream AVT modalities; dubbing and voice-over by Elena Di Giovanni, standard subtitling by Kristijan Nikolić, subtitling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by Pablo Romero-Fresco, and audio description by Elena Di Giovanni. Although the authors try to offer an exhaustive overview of the existing research strands in each modality, there are important references, which have not been included. For example, Perego’s studies on standard subtitling effectiveness (Perego et al., 2010; Perego et al., 2015), Kruger’s works on cognitive load in subtitling (Kruger et al., 2014; Kruger et al., 2016) or even the important work by Wissmath et al. (2009) on immersion in dubbing and subtitling cannot be found this chapter. This second part is an essential read for those looking for a survey of state-of-the-art research in reception in mainstream AVT modalities.

The last part (Chapters 12-15), rightly named “Hybrid Media and New Audiences”, deals with more multi-faceted areas, including media interpreting, game localization, translation for mobile content and amateur translation. Reception-oriented studies in media interpreting are reviewed by Franz Pöchhacker who initially introduces media interpreting and then engages in a critical discussion of the relevant past research. While Carme Mangiron’s chapter is intended to present an overview of game localization reception, David Orrego-Carmona’s chapter turns the readers’ attention to non-professional subtitling reception. The chapter authored by Alberto Fernández-Costale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researching AVT in mobile content and examining how it is received by users.

At the intersection of AVT and reception, this timely edited book serves as an important and reliable source for new researchers who are thinking of conducting reception studies. It will also be of use and value for researchers who are already involved in reception studies. It represents a rich and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the field and offers ample research opportunities for researchers. To me, one chapter which is missing is how to design surveys for reception studies; in other words, how to build, develop and validate questionnaires for survey-based reception studies, like the work by Orero et al. (2018) on experimental AVT studies.

As could be construed from the chapters, as far as reception studies go, subtitling led the way, followed by subtitling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and audio description, with dubbing, game localization, non-professional subtitling bringing up the rear.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according to the chapters, a few attempts have been made to address the reception of AVT in Asia, Africa or Latin America; therefore, more studies would be required outside Europe. Iranian researchers, for example, have been pretty active in this matter; dubbing (Ameri & Khoshsaligheh, 2018, 2020; Ameri et al., 2018; Mehdizadkhani & Khoshsaligheh, 2021), subtitling (Ameri & Khoshsaligheh, 2022; Khoshsaligheh et al., 2019; Zahedi & Khoshsaligheh, 2021), subtitling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Shokoohmand & Khoshsaligheh, 2019) and game localization (Khoshsaligheh & Ameri, 2020).

Overall, this remarkable edited collection offers an interesting synthesis of strands of scholarship and cutting-edge research on AVT reception studies and it is a key source in promoting reception studies in both AVT and the mother discipline Translation Studies. Given the fast rise of publications in this area and to strengthen empirical investigations in the years to come, an up-to-date version of the book is of necessity in the near future.

## [국문 번역]

의심의 여지없이 수용이라는 주제에 대한 시청각 번역(AVT) 연구자들의 관심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번역된 시청각 제작물을 소비하는 관객의 행동과 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Díaz Cintas, 2020, p. 221). 관련 예로 *JoSTrans*의 2020년 특별호를 들 수 있다. 시청각번역 수용 연구만을 집중 조명한 이 특별호에는 디아즈 신타스(Díaz Cintas)와 자르코브스카(Szarkowska, 2020)가 편저자로 참여했다. 이제 기존 연구에 대한 포괄적 시각을 제공하고 관객 연구에 사용된 연구 접근법들을 검토한 학술서가 필요한 시점이다. 명료한 설명과 가독성을 자랑하는 이 책에서 두 명의 저명한 시청각 번역 학자인 엘레나 디조반니(Elena Di Giovanni)와 이브 갬비어(Yves Gambier)는 미디어 연구와 시청각 번역 학자들의 선별된 집단을 한데 모아 이론적 토대 및 방법론적 고찰에 따른 견해들의 개요를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더불어 기존 문헌에 대한 비평적 시각과 향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총 15개 장으로 이루어진 이 편집 도서는 크게 4 부로 나누어지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각 장의 앞 부분에는 주요 내용을 요약한 초록이 제시되어 있다.

서론에서 두 편저자는 시청각번역 분야라는 맥락 안에서 수용과 관객이라는 주제를 조명하고, 시청각번역의 발전 과정을 면밀하게 고찰한 트리맵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빠져 있어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정(Process)’ 가지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적어도 서론에 포함된 주제들의 간략한 목록을 통해 이해한 바에 따르면 시청각번역 생성에서의 인지 과정을 미흡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혼동을 피하려면 서론의 트리맵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편저자들의 서론은 각 장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1부(1~3장) ‘수용 연구 정의(Defining Reception Studies)’는 아네트 힐(Annette Hill)의 1장으로 시작되며 초(超)국적 미디어 관객 연구를 위한 다중 방법 및 실용주의 접근법을 소개한다. 다중 방법 접근법은 팬, 관객, 영화 제작진에 대한 인터뷰와 영화 통계 및 보고서 등의 공개 데이터 분석을 접근법에 통합함으로써 연구 중인 프로그램의 수용에 대한 보다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아네트 힐은 의미 전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인기있는 TV 프로그램 *더 브릿지(The Bridge)*를 조명한 사례 연구를 제시한다. 그러나 아네트 힐의 1장에는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 장이 시청각번역 분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영화 관객 연구에 관한 2장에서 다니엘 빌터레이스트(Daniel Biltereyst)와 필립 메르스(Philippe Meers)는 영화 관객 연구의 흥미로운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초기 영화의 관객 연구는 영화 연구가 아닌 사회과학 분야의 일부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대한 설명 후에는 흥미진진한 토론이 이어지며 수용과 관객을 역사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 모두에서 접근하는 영화 관객 연구의 현대적 경향을 다룬다. 두 저자가 논의한 바와 같이 역사적 연구와 동시대적 연구 모두를 통해 관객과 수용을 다루는 다양한 갈래의 연구들은 분명 시청각번역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1부를 마무리하는 이브 갬비어(Yves Gambier)의 3장은 시청각번역 수용 연구의 과거 및 최근 발전에 대한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개요를 제공한다. 나이다(Nida)와 체스터맨(Chesterman) 등 번역학 연구자들의 관객 이해를 위한 초기 시도를 요약하는 한편, 다른 분야 학문에서의 관객 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정확히 집어내어 설명한다. 3장의 특징은 수용의 세 가지 유형인 ‘응답(Response)’, ‘반응(Reaction)’, ‘반향(Repercussion)’을 제시한 강력한 분석 틀을 소개한 것이며, 이 분석 틀은 수용 연구의 조작화(operationalization)에 매우 유용하다.

2부(4~7장)에서는 수용 연구의 연구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티나 투오미넨(Tiina Tuominen)은 4장에서 수용 경험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용 경험이란 번역된 프로그램에 대한 관객의 반응 및 번역에 대한 관객의 기대와 태도를 말한다. 투오미넨의 주장대로 연구자는 인터뷰, 포커스 그룹, 관찰, 설문지 등의 질적, 양적 도구를 활용하여 관객 수용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얀 루이스 크루저(Jan-Louis Kruger)와 스티븐 도허티(Stephen Doherty)는 시청각번역에서의 관객 연구를 위한 오프라인 측정 방법(예: 설문지, 인터뷰, 이해도 테스트)과 온라인 측정 방법(예: 시선추적장치, 심박수 모니터, 뇌파기록장치)에 대해 논의한다. 두 저자는 번역된 프로그램이 관객에게 어떻게 수용되는지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주관적 측정과 객관적 측정을 조합한 삼각 측량을 권장한다. 로베르토 A. 발데온(Roberto A. Valdeón)은 6장에서 ‘시청각 텍스트의 언어적, 실용주의적, 다중모드적 측면(p. 124)’에 관한 기존 수용 연구의 개요를 제시하고 방법론적 접근법들을 검토한다. 세레넬라 자노티(Serenella Zanotti)는 2부 마지막 장에서 역사적인 수용 연구들을 탐구한다. 초창기 영화 관객을 다룬 과거 연구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후, 역사적 관점에서 수용을 검토하기 위한 기록보관방법(archival methods) 및 구전 역사 등의 관련 접근법들에 대해 길게 설명한다.

‘시청각번역 양식과 수용 연구’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3부(8~11장)에서는 수용의 발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주류 시청각번역 양식의 연구 갈래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류 시청각번역 양식 중 더빙과 보이스오버는 엘레나 디 조반니(Elena Di Giovanni), 일반 자막은 크리스티안 니콜리치(Kristijan Nikolić),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한 자막은 파블로 로메로 프레스코(Pablo Romero-Fresco), 음성 해설은 엘레나 디 조반니가 다룬다. 이 저자들이 각 양식의 기존 연구 갈래에 대한 빈틈없는 개요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 참고문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자막 효과에 대한 페레고의 연구(Perego et al., 2010; Perego et al., 2015), 자막의 인지 부하에 대한 크루거의 연구(Kruger et al., 2014; Kruger et al., 2016), 심지어 비스마트(Wissmath et al., 2009)의 더빙 및 자막에서의 몰입에 대한 중요 연구를 언급하지 않았다. 3부의 두 번째 부분은 주류 시청각번역 양식에서의 수용에 관한 최신 연구 조사를 찾는 사람이라면 필독해야 할 내용이다.

‘하이브리드 미디어와 새로운 관객’이라는 적절한 제목의 마지막 4부(12~15장)에서는 미디어 통역, 게임 현지화 작업, 모바일 콘텐츠 번역, 아마추어 번역 등 보다 다면적인 영역을 다룬다. 미디어 통역에서의 수용 연구를 검토한 프란츠 뢰히하커(Franz Pöchhacker)는 우선 미디어 통역에 대해 소개하고 과거 관련 연구에 대한 비평적 논의를 진행한다. 13장의 카르메 망기론(Carme Mangiron)은 게임 현지화 작업에서의 수용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14장의 데이빗 오레고 카르모나(David Orrego-Carmona)는 아마추어 자막에서의 수용이라는 주제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15장의 저자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코스타레(Alberto Fernández-Costales)는 모바일 콘텐츠에서의 시청각번역 및 콘텐츠 사용자의 수용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시청각번역과 수용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기 적절하게 발간된 이 편집 도서는 수용 연구를 고려중인 새로운 연구자들에게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이미 수용 연구를 진행중인 연구자에게도 유용하고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하고 포괄적인 개론서 역할을 하고 연구자에게는 풍부한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적으로 수용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설계 방법에 대한 장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쉬웠다. 다시 말해 실험적 연구에 관한 오레로 등(Orero et al., 2018)의 견해처럼, 설문조사 기반의 수용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설계, 작성, 검증 방법에 대한 장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책에 제시된 여러 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수용 연구에 관한 한 일반자막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청각 장애인과 난청을 위한 자막, 음성 해설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더빙, 게임 현지화 작업, 아마추어 자막은 뒤쪽에 위치해 있다. 현재 알려진 정보와 책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시청각번역의 수용을 다룬 몇 가지 시도가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유럽 외의 지역에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란 연구자들은 더빙(Ameri & Khoshsaligheh, 2018, 2020; Ameri et al., 2018; Mehdizadkhani & Khoshsaligheh, 2021), 자막(Ameri & Khoshsaligheh, 2022; Khoshsaligheh et al., 2019; Zahedi & Khoshsaligheh, 2021) 청각 장애인과 난청인을 위한 자막(Shokoohmand & Khoshsaligheh, 2019), 게임 현지화 작업(Khoshsaligheh & Ameri, 2020) 등 이 분야에서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주목할 만한 이 편지는 시청각번역 수용 연구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학문과 최신 연구의 흥미로운 조합을 제시하고 시청각 번역과 모체 학문인 번역 연구 전반에 걸쳐 수용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이 분야의 출간물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실증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까운 미래에 최신 동향을 반영한 개정판이 요구된다 하겠다.

---

## References

- Ameri, S., & Khoshsaligheh, M. (2018). Exploring the attitudes and expectations of Iranian audiences in terms of professional dubbing into Persian. *Hermes* 57: 175-193. <https://doi.org/10.7146/hjlc.v0i57.106206>
- Ameri, S., & Khoshsaligheh, M. (2020). Dubbing viewers in cyberspaces: A netnographic investigation of the attitudes of a Persian-language online community. *KOME* 8(1): 23-43. <https://doi.org/10.17646/KOME.75672.45>
- Ameri, S., & Khoshsaligheh, M. (2022). Insights into Iranian younger audiences of Persian amateur subtitling: A reception studies. *Onomázein*, 56, 144-166. <https://doi.org/10.7764/onomaz.ein.56.07>
- Ameri, S., Khoshsaligheh, M., & Khazae Farid, A. (2018). The Reception of Persian Dubbing: A Survey on Preferences and Perception of Quality Standards in Iran.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26(3): 435-451. <https://doi.org/10.1080/0907676X.2017.1359323>
- Díaz Cintas, J. (2020). Audiovisual translation In Angelone, E., Ehrensberger-Dow, M. & Massey, G. (eds.), *The Bloomsbury Companion to Language Industry Studies*. Bloomsbury, 209-230.
- Díaz Cintas, J., & Szarkowska, A. (2020). Experimental Research in Audiovisual Translation – Cognition, Reception, Production. *JoSTrans*, 33: 3-16.
- Khoshsaligheh, M., & Ameri, S. (2020). Video game localisation in Iran: a survey of users' profile, gaming habits and preferences. *The Translator* 26(2): 190-208. <https://doi.org/10.1080/13556509.2020.1724046>
- Khoshsaligheh, M., Ameri, S., Khajepour, B., & Shokoozmand, F. (2019). Amateur subtitling in a dubbing country: The reception of Iranian audience. *Observatorio* 13(3): 71-94.
- Kruger, J.-L., Hefer, E., & Matthew, G. (2014). Attention distribution and cognitive load in a subtitled academic lecture: L1 vs. L2. 7(5): 1-15.
- Kruger, J.-L., Sanfel, M. T. S., Doherty, S., & Ibrahim, R. (2016). Towards a cognitive audiovisual translatology: Subtitles and embodied cognition. In R. M. Martín (Ed.), *Reembedding translation process research* (pp. 171-193). John Benjamins
- Mehdizadkhani, M., & Khoshsaligheh, M. (2021). Insertion or voice-off in rendition of graphic codes: an experiment in Persian dubbing. *Visual Communication* 20(1): 81-99. <https://doi.org/10.1177/1470357219838599>
- Orero, P., Doherty, S., Kruger, J.-L., Matamala, A., Pedersen, J., Perego, E., Romero-Fresco, P., Rovira -Esteva, S., Soler-Vilageliu, O., & Szarkowska, A. (2018). Conducting experimental research in audiovisual translation (AVT): A position paper.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30: 105-126.
- Perego, E., Del Missier, F., Porta, M., & Mosconi, M. (2010). The cognitive effectiveness of subtitle processing. *Media Psychology* 13(3): 243-272. <https://doi.org/10.1080/15213269.2010.502873>

- Perego, E., Missier, F. D., & Bottiroli, S. (2015). Dubbing versus subtitling in young and older adults: Cognitive and evaluative aspects.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23(1): 1-21. <https://doi.org/10.1080/0907676X.2014.912343>
- Shokooohmand, F., & Khoshsaligheh, M. (2019). Audiovisual accessibility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in Iran. *New Voices in Translation Studies* 21: 62-92.
- Wissmath, B., Weibel, D., & Groner, R. (2009). Dubbing or subtitling? Effects on spatial presence, transportation, flow, and enjoyment. *Journal of Media Psychology* 21(3): 114-125. <https://doi.org/10.1027/1864-1105.21.3.114>
- Zahedi, S., & Khoshsaligheh, M. (2021). Eyetracking the impact of subtitle length and line number on viewers' allocation of visual attention. *Translation, Cognition & Behavior* 4(2): 331-352. <https://doi.org/https://doi.org/10.1075/tcb.00058.zah>
- 

### ***Author's email address***

saeed.ameri.avt@gmail.com

### ***About the author***

**Saeed Ameri** (ORCID: <https://orcid.org/0000-0001-7706-0552>) has a PhD in Translation Studies from Ferdowsi University of Mashhad. 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of Audiovisual Translation Studies at University of Birjand, Iran. His areas of research include audiovisual translation, translation pedagogy, reception studies and fandom studies. His publications have appeared in highly prestigious journals of *Perspectives*, *Babel*, *Translator*, *Translator and Interpreter Trainer*, etc. He has also been the recipient of several awards from Iran's National Elites Foundation.

# 통역번역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및 연구윤리위원회 내규

제정 2014. 3. 2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구소 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 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역번역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연구소의 연구학술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본교의 생명윤리규정은 연구의 질 자체와 무관한 연구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부정행위와 구분하나 본 위원회는 일괄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또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⑥ 기타 통번역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7.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IRB 승인)**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관계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투고자는 소속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연구 승인을 받고 승인된 연구계획안에 따라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할 때 편집인은 서면 동의서 및 IRB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이해상충)** 투고자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경제적 이익 등 잠재적인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이를 논문의 표제지(title page)에 밝혀야 하며 관련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공동투고의 경우, 공동투고자 상호가 “특수관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일 때,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이를 밝히고 해당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 처리한다. 또한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소의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및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에 명시된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에 따른다.

**제7조(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대회와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등과 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윤리규정 관련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다.

1. 연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결정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대한 사항
3. 예비조사위원 및 본조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재심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 중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 및 위원장)**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고 동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단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 위원 및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③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연구윤리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2조(전문위원)** 조사나 검증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위촉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4조(접수)** 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소장에게 실명으로 제보된 건만 접수한다.

**제15조(예비조사)**

1. 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연구소장이 담당하되, 예비조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④ 관련 증거 자료
  - ⑤ 제보 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제16조(본조사)**

1.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조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2명 이상 위촉한다.
3.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 정보(익명 제보인 경우 예외)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 ③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 ⑤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⑥ 본조사위원회 명단
4. 조사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본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6.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권고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 시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연구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4. 1항, 3항의 징계 및 상당한 제재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재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장 조사의 원칙**

**제20조(절차적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

### **제21조(출석 및 자료요구)**

1.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의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2조(비밀의 유지 등)**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며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각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관계 위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하다.

**제23조(제보자 보호)**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위원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부 칙(2014. 3. 24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Principles for Research Ethics and Bylaws of the Academic Integrity Committee of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Adopted on March 24, 2014

## Section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bylaws is the regulation of matters regarding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Academic Integrity Committee (hereinafter “Committee”) of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hereinafter “Institute”) and their research ethics, whose objectives are to establish academic integrity, to prevent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and to implement the tasks of identifying, determining and enforcing compliance issues in accordance to Article 14 of the Institute Regulations.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These bylaws shall apply to all who conduct academic research in direct or indirect connection to the Institute's research activities.

### **Article 3 (Definitions)**

1.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hereinafter “misconduct”) refers to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and the like in regards to the proposal and the execution of the research as well as the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the research findings. The university's code of ethics classifies acts that violate research ethics but do not affect the quality of the research as inappropriate acts in academic research and distinguishes such acts from the classification of misconduct. However, the Committee shall classify all acts of dishonesty as misconduct, setting out the following definitions.

- ① “Fabrication” refers to the act of falsely making up data or research findings that do not exist.
- ② “Falsification” refers to the act of intentionally manipulating the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processes and the like or arbitrarily changing or deleting data to distort the research contents or findings.

- ③ “Plagiarism” refers to the act of copying others’ papers, patents, ideas and other intellectual creation or research contents and findings without proper consent or citation.
  - ④ “Unfair authorship” refers to the act of either not listing an individual who mad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as an author for no justifiable reason, or granting authorship to those who played no significant role in the work for reasons such as expressing gratitude or deference.
  - ⑤ The act of proposing to or pressuring another to commit one or more of the misconducts described above shall also be considered misconduct.
  - ⑥ Misconduct also refers to any and all acts of serious deviation from the generally accepted extents of the academic field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 ⑦ Misconduct also refers to the act of urging, pressuring or threatening someone to commit one or more of the misconducts described above.
2. Conflict of interest refers to any circumstances in which an individual or an institution participating in the publication of papers has a financial stake or is involved in personal connections with a certain paper.
  3. “Informant” refers to the person or persons who first notifies the university or research-supporting institute of the fact that an act of misconduct has come to his or her knowledge or who provides evidence of someone's misconduct.
  4. “Subject under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erson or persons under investigation for suspicions of misconduct that had either been reported or come to the university or research-supporting institute's knowledge, or to the person or persons who have come under investigation because their potential involvement in an act of misconduct was uncovered during the process of conducting investigation. The term does not refer to the witnesse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5. “Preliminary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whether an official investigation needs to be launched on particular allegations of misconduct.
  6. “Main investigation” refers to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whether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are true or not.
  7. “Decision” refers to the procedure of concluding the investigation findings and notifying the informant and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of the findings.

**Article 4 (IRB approval)** In the case where research is conducted on human subjects, and therefore, an approval from the relevant institution is required, the contributor shall obtain approval for research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the affiliated institution and faithfully conduct research according to an approved

research plan. In addition, the editor may request submission of a written agreement or IRB approval, if necessary.

**Article 5 (Conflict of interest)** If the contributor has any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such as certain financial benefits, with regard to the topic of a paper, they shall specify this on the title page and notify the editorial board of such matters in a written statement.

**Article 6 (Participation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If the co-author(s) of a research paper is a “specially related person and minor (under the age of 19), or a family member (e.g., any of relatives within the fourth-degree relationship, such as spouse or offspring),” the principal author or corresponding author shall disclos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o-author(s) and explain the reason for which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has joined the research as a co-author. Any violation of this rule by the contributor shall be considered misconduct and be subjected to deliberation. In addition, if the explanation for this reason is not stated clear or reasonable, the editorial board may refuse to accept the paper in question. Additionally, when misconduct aroused from the involvement of a specially related person(s) as a co-author is confirmed, such misconduct shall be informed to affiliated institutions (e.g., college entrance-related institutions or research-related institutes) where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may benefit from participating in research. Disclosure of misconduct is based on prior consent obtained to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pecially related person(s) specified in “Disclosure Form of Research Participation Plan of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Pre-release Form of Co-authoring a Publication with Specially Related Person(s)” provided by the Institute.

**Article 7 (Education on research ethics)** The Committee shall conduct research ethics education via online and offline channels, such as an academic conference, email, or an online forum.

**Article 8 (Function)**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following matters.

1. Matter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cademic integrity policies
2. Matters relating to the decision to launch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s and to the authorization of the investigation findings
3. Matters relating to the appointment of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4. Matters relating to approval of request for a re-investigation

5. Matter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informant and the rehabilitation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6. Matters relating to processing the results of academic integrity validation and the follow-up measures
7. Other matters as submitted by the chairperson

## **Section 2.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Article 9 (Organization, etc.)**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 more than nine members who are recommended by the editorial board from among the head of the editorial board,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board and researchers and who are appointed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from among the members.

**Article 10 (Members and chairperson)**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can also serve as the chairperson and appoint more than three members who are professional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and appoint more than two members from outside the Institute. However, interested parties to the matter under investigation cannot be included. The terms of the chairperson and members shall be two years with consecutive terms allowed. However, in case of a new member who was appointed to fill a vacancy, the term shall last for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Article 11 (Exclusion, recusal, and evasi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1. If any of the following items are applicable, the person shall not be appointed as a member or a chairpers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for the year.
  - ① Anyone who is in a relative relationship defined by Article 777 of the Civil Act with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 ② Anyone who has been in a teacher-pupil relationship or co-authored research with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 ③ Anyone who might compromise the fairness of the investigation
2.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shall inform the informant of the list of members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before the main investigation is initiated and accept the informant's petition for recusal of a member(s)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if their petition is filed on the grounds of reasonable excuse. However, this shall not be applied if the informant is unable to be contacted under circumstances caused by the informant. In this case, such informa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investigation findings report.

3. If a member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has a conflicting interest in the research under investigation, they shall request for evasion voluntarily.

**Article 12 (Specialized committee members)** In cases when necessary because of the specialty of the investigation or validation, the Committee can appoint specialized committee members.

**Article 13 (Meetings)**

1.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Committee meetings and preside over the meetings.
2. The quorum for a meeting shall be attended by at least one-half of the registered members and a resolution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two-thirds of those attending.
3. When the agenda under review is acknowledged by the chairperson to be a minor matter, it can be reviewed in writing.
4. When acknowledged by the Committee to be needed, a related party can be summoned for opinion.

### **Section 3. Validation of Academic Integrity**

**Article 14 (Receipt of report)** Reports of misconduct shall only be received when using one's real name and addressed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Article 15 (Preliminary investigation)**

1. The Committee shall form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three members within 10 days of receiving the report.
2.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but the Committee shall appoint the member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3.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report its findings to the Committee within 30 days of launching an investigation and the findings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① The specifics of the report received and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 ②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being investigated and the relevant research project
  - ③ The decision to whether launch a main investigation and the grounds for such

a decision

- ④ Relevant evidence material
- ⑤ Confirmation of whether five years have passed from the initial date of the prescription period

**Article 16 (Main investigation)**

1. Should the Committee decide based upon the finding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a main investigation is necessary, it shall form a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within 30 days of approving the findings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2.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consist of at least seven members, including at least four professional experts with considerabl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and at least two outside members for the sake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3.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report its findings to the Committee within 90 days of launching its investigation and the findings repor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 ① The specifics of the report received and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except in cases of anonymous reports)
  - ② The allegations of misconduct being investigated and the relevant research project
  - ③ The role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in the research project and whether the allegations are true
  - ④ Evidence material and list of witnesses
  - ⑤ Objections or arguments either by the informant o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regarding the investigation findings and the results of processing such objections or arguments
  - ⑥ List of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4. Should the need to extend the investigation arise, the investigation period can be extend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hairperson.
5. Specific guidelines needed for individual investigation activities by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Committee approval.
6. Records related to the main investigation shall be stored for five years after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 **Article 17 (Measures following investigation findings)**

1. Should the Committee approve the investigation findings by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the actions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correspond to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it shall recommend disciplinary measures to be taken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2. Should the Committee approve the investigation findings by the main investigation committee that the actions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does not correspond to misconduct in academic research, it shall take measures to rehabilitate the reputation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3. The Committee can recommend to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o take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a member of the Institute who, as an informant, had made a report against the truth, disregarding facts that went against his or her statement or testimony, whether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4. The specifics of the disciplinary measures as mentioned in clauses 1 and 3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An author who is found to be violating research ethics shall not submit their papers to this journal for five years and not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reviewing the submitted papers as a reviewer for the corresponding period.

**Article 18 (Notification of the results)** The chairperson shall, without undue delay, notify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and the informant of the Committee's decision on the investigation findings in writing.

**Article 19 (Re-investigation)** Should either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or the informant appeal the Committee's decision, he or she can request a re-investigation by presenting the reasons in writing to the Committee 30 days within having received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 **Chapter 4. Principles of investigation**

**Article 20 (Guarantee of procedural rights)** Both the informant and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must be guaranteed equal rights and opportunities of statement, objection and argument and be informed of the related process in advance.

#### **Article 21 (Attendance and request for evidence)**

1. According to what is needed in the investigation, the informant,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witnesses and the like may be requested to attend a meeting to give

a testimony to the investigation committee.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must accede to such a request.

2. During investigation,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could be required to submit relevant data and in order to preserve the evidence data, substantial measures could be taken such as restricting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from entering the research lab or seizing and keeping relevant research data.

#### **Article 22 (Confidentiality)**

1. The Committee under no circumstance shall expose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and ensure that the reputation of the subject under investigation is protected until the investigation findings are concluded.
2. Any and all matters related to reports, investigations, reviews and deliberations as well as actions proposed are to be confidential. However, when a considerable ne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arises, such as a request from a government entity, the matter could be disclosed after a Committee resolution.
3. All committee members and persons who have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related committee members shall keep confidential all the information that was obtained during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reviewing, voting and executing tasks and the duty to hold confidential information in confidence shall remain in effect even after the individual is no longer in the position.

**Article 23 (Protection of the informant)** The Committee shall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any possible acts of retaliation against the informant and when such an act of retaliation occurs, shall inform the chairperson of such fact and recommend the chairperson to take disciplinary measures.

#### **Addendum (Adopted on March 24, 2014)**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immediately upon their official announcement.

#### **Addendum (Revised on April 20, 2021)**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20, 2021.

# 논문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내규

제정 2014. 3. 24.

## 제1장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조(명칭과 구성)

1. 연구소 규정 제13조에 따라 논문집, 도서 등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 투고, 논문의 심사 및 선정된 논문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는 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 제2조(기능)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및 심사 기준을 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하되 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장 심사 규정

### 제3조(접수)

1. 논문접수는 공지된 마감일까지 논문을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접수를 명기하고 접수 확인을 투고자에게 보낸다.
2.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3. 접수 시 연구윤리서약(온라인 투고 시는 시스템 상에서 동의함)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 논문 유사도 검사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논문유사도 검사가 15% 이하임을 확인한다.
4.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거나 공동투고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의 양식에 기입하여 반드시 보고하도록 한다.



- ② 논리성: 논문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 ③ 적절성: 통역·번역학 연구에 관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판, 분석,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며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하며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④ 학문적 기여도: 논문의 내용은 통역·번역학 연구를 선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술지에 투고된 영문 초록 감수 시 적용되는 평가 항목은 크게 영어 텍스트로서의 기본적인 품질, 내용 품질, 형식 품질이며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영어 텍스트로서의 기본적인 품질: 기본적인 문법 준수, 영어로서의 자연스러움, 적절한 학술영어 및 정확한 영문 용어 구사 여부, 영문 텍스트의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cohesion) 측면
  - ② 내용 품질: 논문의 영문 제목의 적절성, 초록 본문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압축적이면서도 빠짐없이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 연구 배경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결과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여부
  - ③ 형식 품질: 적절한 영문 폰트, 글자 크기, 줄간격 등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형식 준수, 키워드의 개수와 형식 준수, 영문 초록의 분량 기준 준수

**제6조(부리부 및 박사논문초록)**

1. 본 논문집에는 통역·번역학 연구 성과를 알리고 신진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부리부와 박사논문 요약 및 초록을 실을 수 있다.

### 제3장 발행 규정

**제7조(명칭)** 이 규정은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T&I Review」 발행 규정이라 한다.

**제8조(목적)** 이 규정은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T&I Review」의 발행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발행시기)**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에 연 2회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늘린다.

**제10조(발행인)**

논문집 「T&I Review」의 발행인은 통역번역연구소장 명의로 한다.

**제11조(저작권)**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며,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 판권 및 게재 권한은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가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동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형식)** 논문집의 형식은 다음을 따른다.

1. 논문집 앞면 표지에 논문집명, 발행년도 및 발행권호수, 발행처명 및 로고를 명기한다.
2. 논문집에는 목차, 주제어 목록, 학술논문, 논문규정(편집위원회 및 논문 심사규정, 투고규정, 연구윤리규정), 편집위원 명단 등을 수록한다.
3. 수록 논문 맨 뒤에 논문투고일, 심사통보 후 수정논문 접수일, 게재확정일을 밝힌다.

## 제4장 기타 규정

**제13조(책임)**

1. 저자의 책임: 원고 작성 시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자가 책임을 진다. 논문심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저자의 인적 정보를 드러 내지 않도록 한다.
2. 심사자의 책임: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에 대하여 학술적 가치 판단 및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며, 결함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 심사자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편집위원회와 심사자는 원고에 대한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전체 및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심사평가 시 저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부 칙(2014. 3. 24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3. 20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 6. 20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4. 20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25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nd for Publication Review

Adopted on March 24, 2014

## Section 1.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 Article 1 (Name and composition)

1. According to Article 13 of the Institute Regulations, the Editorial Board (hereinafter “Board”) is organized to review matters related to the editing and publication of journals and books; to chart the course of the academic journal that is periodically published by the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hereinafter “Institute”), in addition to submitting and reviewing papers for the journal and; to implement tasks related to the editing and publishing of selected articles. The Board shall consist of at least five members both from within and out of the university appointed by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among the members.
2. The term of the Board members shall be two years and with consecutive terms allowed. However, in case of a new member who was appointed to fill a vacancy, the term shall last for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In order to take care of administrative matters for the Board, a secretary shall be designated to take and keep minutes of the Board.

### Article 2 (Function)

1. The Board shall determine the criteria for article submission and review.
2. The chairperson shall request the selection of reviewers for papers submitted. The Board shall refer to the review results and make the final decision on whether to publish the paper. The Board shall meet periodically but members can submit a written letter to count as attendance. Resolutions shall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from over the majority of the attending members.

## **Section 2. Bylaws for Publication Review**

### **Article 3 (Submission of paper)**

1. Submission of papers is possible until the last day that was announced. The chairperson shall immediately upon arrival of the submitted paper, confirm the receipt of the paper and send confirmation to the submitter.
2. Papers that do not adhere to rules regarding submission or composition shall not be accepted.
3. Pledge of Compliance for Research Ethics (obtained through the online system if the paper is submitted online), Consent to the Use of Copyrighted Content, and the dissertation plagiarism checker report shall be submitted upon paper submission. A similarity of 15 percent or below is acceptable.
4. In the case where there is a possible conflict of interest or a specially related person(s) may participate in research as a co-author, such information shall be reported by indicating in a prescribed form.

### **Article 4 (Procedures)**

1. The reviewers are selected primarily from Board members who are professional experts with outstanding academic records in the relevant field of study. Contributors to the journal for which papers are currently being evaluated shall be excluded from the pool of reviewers.
2. Mutual evasion in kinship as reviewers  
Once the paper is submitted, the contributor may suggest a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with a reasonable excuse. If any of the reviewers selected by the Board corresponds to the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presented by the contributor, the Board shall exclude them in the selection of reviewers. In the case where none of the reviewers corresponds to the list of ‘reviewers to be excluded’, those who are selected by the Board are appointed as reviewers.
3. Each paper submitted shall be given to at least two undisclosed reviewers to be evaluated. Only when two or more reviewers decide to accept the paper, either unconditionally or upon condition of revision, shall the paper be published based upon the final decision by the Board. The rating scale is as follows:  
Publish: 90 points or higher; Publish after revision (minor revision): 70 to less than 90 points; Re-review after revision (major revision): 60 to less than 70 points; Reject publication: less than 60 points
4. The paper rated as “publish after revision” shall be re-submitted after revising the paper by taking into account reviewers’ comments along with a revision response

letter. The paper rated as “re-review after revision” shall be re-submitted to the Editorial Board with a revised manuscript and written responses to reviewers’ comments by a deadline set by the Editorial Board, and the contributor shall put forth a request for re-review. If the result of the re-review is “re-review after revision” again, the paper will be treated as unpublishable. It should be noted that re-review may not be offered in consideration of the review results of all contributors and the submission to publication ratio. In this case, the contributor may re-submit the revised manuscript to the next issue of this journal after taking account of all comments by the reviewers. The paper rated as “reject publication” may be re-submitted for publication in the next issue of this journal after revision.

5. Each reviewer shall evaluate the papers following the guidelines for filling out an evaluation form included in the request form for review. He or she shall describe in detail the grounds for his or her evaluation.
6.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authors immediately by the Institute under its name.
7. In the case where the author disagrees with the evaluation results, they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appeal” and publication shall be determined through discussions by the Board.
8. Abstracts in English shall be published only when the editors appointed by the Institute have reviewed them.

#### **Article 5 (Criteria for evaluation)**

1. Submitted papers shall be evaluated in a fair and strict manner with the following criteria.
  - ① Originality: The contents and subject of the paper must be new and original, not having been published elsewhere either domestically or abroad.
  - ② Logic: The composition and flow of the paper must be logical and clear.
  - ③ Appropriacy: The paper must contain creative and new critique, analysis and proposal regarding the field of research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be appropriate for the research methods and in accordance with the submission rules.
  - ④ Academic contribution: The paper must be able to contribute to guiding and developing the research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2. An abstract in English submitted to the journal is largely evaluated based on basic quality as an English text, content quality, and format quality. Detailed criteria for evaluation are as follows:

- ① Basic quality as an English text: Conformity to grammatical rules, idiomatic English usage, adoption of appropriate English academic terms, and coherence and cohesion of the English text
- ② Content quality: Appropriateness of the paper title in English, whether the abstract describes the gist of the paper in a compressed manner without omission, and whether research findings are precisely stated rather than simply describing the background of research
- ③ Format quality: Conformity to a specific format specified by the journal including English font, text size, and spacing, the number of keywords and format conformity, and conformity to a word limit for the abstract in English

**Article 6 (Book Review and PhD Thesis Abstract)**

1. For the purpose of disseminating T&I research results and encouraging research efforts by young researchers, book reviews and PhD thesis abstracts may be published in the journal without being subjected to any official review process.

### **Section 3. Publication Rules**

**Article 7 (Name)** These provisions are the publication rules for the Institute's journal, 「T&I Review」.

**Article 8 (Purpose)** These provisions determine the publication process of the Institute's journal, 「T&I Review」and regulate related tasks.

**Article 9 (Publication date)** 「T&I Review」is published once annually on 30 June, but the number of publication can be increased depending on need.

**Article 10 (Publisher)** The publisher of the journal 「T&I Review」shall be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Article 11 (Copyrights)** Submitted papers shall not be return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been published or not. Copyrights to the articles published in this journal are shared by the author and the Institute. Copyrights include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the right of transmission. Therefore, should anyone intend to republish the paper in its entirety or in part, he or she should obtain the consent of the author and the Institute in advance.

**Article 12 (Format)** The format of the journal is as follows.

1. On the front cover of the journal, the title should be stated in Korean and in English. The issue number, publishing entity and its logo, the date and the month and year of publication and the ISSN should also be marked.
2. The journal must contain a table of contents, a list of keywords, academic papers, guidelines for papers (Bylaws of the Editorial Board and for Peer Review, submission rules, academic research ethic rules) and the list of editors.
3. At the end of each published paper, the date of contribution, the date of submission of an amended version after notification of evaluation results and the date of acceptance should be stated.

## **Section 4 Other Provisions**

**Article 13 (Responsibilities)**

1. Author's responsibilitie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any issues that occurred while writing the paper lies with the author. The evaluation is to be done anonymously so any personal information of the author should not be revealed.
2. Reviewer's responsibilities: The reviewer needs to put forth a judgment on the academic value of the paper being reviewed along with the evidence for such judgment, as well as point out any errors or issues and suggest points of improvements. When needed, the reviewer can consult other experts for advice. The Board and the reviewer acknowledges the author's copyrights on the paper and cannot use the paper in its entirety or in part without the consent of the author in advance. Also, when evaluating a paper, the reviewer shall not make any personal attacks on the author or use insulting expressions.

### **Addendum (Adopted on March 24, 2014)**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immediately upon their official announcement.

### **Addendum (Revised on March 20, 2017)**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March 20, 2017.

**Addendum (Revised on June 20, 2019)**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June 20, 2019.

**Addendum (Revised on April 20, 2021)**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20, 2021.

**Addendum (Revised on October 25, 2022)**

These by-laws shall enter into force on October 25, 2022.

## 원고 작성 및 투고 방법

1. 기고문은 논문 서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2. 논문은 한국어,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할 수 있다.
3. 영문초록은 약 150 단어 내외로 영어로 작성하고, 초록 하단에 키워드를 영어와 한국어 (또는 논문 작성 언어)로 각각 5 개 표기한다.
4. 글자모양: 한글은 HY 신명조, 단 영문 및 불문텍스트는 Times New Roman, 중국어텍스트는 SimSun, 일본어텍스트는 MS Mincho 로 한다.
5. 문자모양: 본문과 초록은 양쪽 맞춤으로, 논문 제목과 최상위 단락의 제목은 가운데 정렬하며, 초록 상단 저자명과 소속은 오른쪽 맞춤으로 한다.
6. 줄 간격 및 여백: 줄 간격은 1.5 로 한다. 마침표나 콜론 다음에 한 칸 띄운다.
7. 들여쓰기: 새로운 문단 시작은 10pt 들여쓰기 한다.
8.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 등으로 단락 구분을 하고, 필요하다면 세부 단락으로 나눈다. 상하위 제목을 아래와 같이 한다.  
논문 제목 = 14pt bold 체로 가운데 정렬하고 제목 아래 한 줄 띄운다.  
최상위 제목 = 11pt bold 체로 가운데 정렬하고, 위 단락과 두 줄 띄우고 아래 단락과 한 줄 띄운다. (예, 1., 2. )  
두 번째 제목 = 10pt 로 굵게 한다. 왼쪽정렬하고 아래 위 각 한 줄씩 띄운다. (예, 1.1., 1.2.)  
세 번째 제목 = 10pt 로 굵게 한다. 왼쪽정렬하고 위 단락과 한 줄 띄우고, 한 줄 띄우기 없이 본문을 시작한다. (예, 1.1.1., 1.1.2.)  
본문 = 10pt
9. 초록= 영문으로 작성하며, Times New Roman 10point. 이탤릭체로 양쪽 맞춤하고, 아래 단락과 한 줄 띄운다.
10. 인용문은 한글로 40 단어 이상인 경우, 좌우 1cm 들여쓰기 하고, 영문으로 된 인용문은 동일한 방식으로 들여쓰기 하고 이탤릭체로 한다. 짧은 인용문은 본문 내에서 인용 부호로 구분한다. 글씨크기는 8pt 로 한다.
11. 표와 그림은 차례로 번호를 붙이고 간략한 제목을 단다. 본문에서 반드시 표와 그림을 지칭해야 한다. 표는 표 1.의 형태로 표 위에 위치시키고, 그림은 그림 1.의 형태로 그림 아래에 위치시키며 본문 내에 관련 단락에 가깝게 위치시킨다. 표와 그림 아래 한 줄 띄운다.
12. 각주는 차례대로 번호를 매기고 8pt 로 한다.

13. 본문에 언급된 모든 문헌을 빠짐없이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시키되 미출판물과 개인서신 등은 제외한다. 참고문헌은 국내논문의 경우 국내문헌을 먼저 기재하고 외국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참고문헌 예시>

이지은. (2015). 「경찰통역 실태와 경찰관의 인식 조사」. 『T&I Review』 5: 93-120.

김혜림·장애리·강려영. (2016). 「문화용어의 중국어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T&I Review』 6: 49-73.

이향. (2008). 『번역이란 무엇인가』 경기: 살림출판사.

14. 국문으로 작성하는 논문에서 외국 저자명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1) 본문 중에 인용되는 경우: 처음 등장 시 저자명을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며, 두 번째 등장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예 1) 질(Gile 1994)의 노력 모델에 따르면.....이다. 이와 함께 질(1994)은 동시통역 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서.....를 언급하였다.

예 2) 2019 년에 발표된 왕샹링(王湘玲)과 양옌샤(杨艳霞)의 중국의 기계번역 연구에 따르면...임을 알 수 있다 ... 선행연구는 왕샹링과 양옌샤가 2019 년에 발표한 2 편의 논문으로...

예 3) 와타나베(渡辺 2018)는....라고 주장하였다. 와타나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 (2) 직접 인용 아닌 경우(괄호 안에 들어가는 경우): 원어로 표기하고 3 명 이상 복수 저자의 경우 ‘et al.’ 혹은 ‘외’로 표시한다.

예) 이미 다수의 번역학 및 기계번역학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메타 연구(袁良平, 汤建民 2007; 赵云龙 외 2017; 杨艳霞, 王湘玲 2019a; 杨艳霞, 王湘玲 2019b)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학술 지로서....

15.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나 자료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해당기관에서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T&I Review 저자는 논문의 저작권 소유자이지만 초판 발행 및 전자출판을 본 학술지에 허가한다.

16. 이전에 출판된 원고나 다른 학술지 심사 중인 원고는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 출판물의 수정본일 경우 세부사항을 밝히고 게재할 수 있다.

17. 모든 투고는 상호심사를 받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자의 코멘트와 수정에 관한 제안을 투고자에게 송달하여 마감기한까지 저자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게재 가능하다.

18. 투고문 첫 페이지에는 제목, 저자명과 소속, 직위, 영문저자명, 영문 제목, 영문 초록, 영문 키워드, 한글 주제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9. 투고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메일 연락처와 약력 및 연구활동, 관심분야 등을 기재한다.

20. 투고와 심사와 관련된 교신은 이화여대 통역번역연구소 이메일(crits@ewha.ac.kr)로 한다.

21. 투고지는 논문을 제출할 때 원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22.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 1 편당 대학(원)생은 10 만원, 강사는 15 만원, 그 외의 투고자(독립연구자 등 일반인 포함)는 20 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공동논문의 경우에는 제 1 저자의 신분에 기준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은 10 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23. 논문집(pdf)에 인쇄된 상태로 30 면 이상인 경우부터 1 면당 1 만원의 추가 게재료가 청구된다. 40 면 이상인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등에서 조정(게재 거부 등의 조치)을 요청할 수 있다.

---

## Guidelines for Contributors

1. Manuscript format: Microsoft Word
2. Languages: English, Korean, Chinese, French, Japanese
3. Length: Approximately 7,000 words in English and French; approximately 15 pages (A4 size)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bstracts should be approx. 150 words in English. Five keywords in English should be provided.
4. Font: 12pt English, French: Times New Roman, Chinese: 10pt SimSun, Japanese: 10pt MS Mincho
5. Justification: Title, section headings, including references and appendix, should be center-aligned. Author's name and affiliation, which should be placed between the title and the abstract, must be right-aligned. Abstract, keywords, and the text must be aligned at both the left and right margins (full justification). All new paragraphs must be indented 1cm.
6. Spacing: Single line spacing throughout. Use a single space following a period or colon.
7. Title: 14pt bold, one line space below.
8. Articles should be divided into sections and subsections as necessary. Please mark the hierarchy of subheadings as follows:
  - Heading A** = bold, center-aligned, two lines space above and one line space below.
  - Heading B** = Italics, bold, left-aligned, one line space above and one line space below.
  - Heading C** = Italics, left-aligned, one line space above, text on new line, no line space below.
  - Abstract** = Italic: left 1cm, right 1cm, one line space above and one line space below.
9. Quotations over 40 words should be indented (left and right 1cm) and italicized without quotation marks. Short quotations in the text itself should be marked with quotation marks.
10. Spelling conventions should be consistent (either American English or British English). Proofreading is required before submission.
11. The first page of the manuscript should include the title, author's name and affiliation, position, abstract, and text.
12. The last page of the manuscript should include a brief biographical sketch of the author or authors. Email addresses for each author should also be provided.
13.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provided with brief captions. Tables and figures should be referred to in the main text. All illustrations, figures, and tables should be placed within the text rather than at the end of it. Titles for tables and figures should precede the tables and figures and one line spacing is required between the table or figure and the following paragraph.
14. Footnot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and should be kept to a minimum.

15. Referencing style: APA (see examples in “Referencing style” section below). References should list all references cited in the article. All references must be included in the reference list except for unpublished items such as correspondence. References should be listed alphabetically and chronologically.
16. The author should obtain any necessary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s and/or ethical clearance necessary for the publication of their papers. The author(s) retains copyright of articles but grants T&I Review right of first print and electronic publication
17. The manuscript should not have been previously published nor be under review by another journal. However, a revised version of a previous publication will be considered if accompanied with proper acknowledgment.
18. All contributions will be subjected to a double blind peer-review process. Reviewers will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manuscript is ready for publication with/without revisions. Comments and suggestions for revisions, if needed, will be sent to the author and the author will be requested to provide a final draft of the manuscript by the due date.
19. Manuscripts and all editorial correspondence should be sent electronically to:  
erits@ewha.ac.kr

---

## Referencing Style

### References in the text (Provide page references where necessary)

Gile's (1995) Effort Model for translation...

Goffman (1981: 8) states that ...

According to Kiraly (1995: 7),...

이범수와 김민영(2006: 23)에 따르면

Gonzalez et al. 1991: 100) demonstrate that...

... (Denton and Hahn 1986; Dorsey 2008), (이창수 2000; 김순미 2002; 김순영 2005 등)

### End-text referencing (English references followed by non-English references)

**Hanging indent (1 cm):** The first line of each reference is fully left justified while subsequent lines are indented to the right. The width of the hanging indent should be 1cm.

#### Single author:

Gile, D. (2010).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2<sup>nd</sup> ed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Hale, S. B. (2007). *Community Interpreting*.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Lee, J. (2009a). Conflicting views on court interpreting: examined through surveys of legal professionals and interpreters. *Interpreting* 11(1): 35-56.

Lee, J. (2009b). Interpreting inexplicit language during courtroom examination. *Applied Linguistics* 30(1): 93-114.

王华树. (2009). 『翻译技术实践』. 北京: 外文出版社.

原子郎. (2013). 『定本宮澤賢治語彙辭典』. 筑摩書房.

#### Multiple authors:

Lakoff, G. and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dited volumes:

Gile, D. (1994). Methodological aspects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research. In Lambert, S. and B. Moser-Mercer (eds.), *Bridging the Gap: Empirical Research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39-56.

Hale, S., Ozolins, U. and Stern, L. (eds.) (2009). *The Critical Link 5: Quality in Interpreting- A Shared Responsibilit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Articles in journals:

Chang, C. and Schallert, D. L. (2007). The impact of directionality on Chinese/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ing* 9(2): 137-176.

王湘玲, 杨艳霞. (2019a). 「国内60年机器翻译研究探索——基于外语类核心期刊的分析」.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33(4): 90-96.

藤井章雄. (1972). 「ニュース翻訳の一考察」. 『時事英語学研究』第11号: 99-112. 時事英学研究会.

**Unpublished thesis:**

Kim, M. (2007). *Discourse-based Study on Theme in Korean and Textual Meaning in Translat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acquarie University.

**Conference papers:**

Anderson, V. (1991, April). Training teachers to foster active reading strategies in reading-disabled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Electronic sources:**

AUSIT (n.d.). AUSIT Guidelines for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with Interpreters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ausit.org/pics/HealthGuide08.pdf> on date month yyyy.

**Articles in newspapers & magazines:**

Delaney, K. J., Karnitschnig, M., and Guth, R. A. (2008, May 5). Microsoft ends pursuit of Yahoo, reassesses its online options. *The Wall Street Journal*, pp. A1, A12.

**Translated books:**

Freud, S. (1970).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J. Strachey, Trans.). New York: Norton.

**Proceedings:**

Nicholson, N. S. (2008). Court interpreting in the United States: Past, present and future. The 8<sup>th</s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Proceedings.

**Non-English references:**

Lee, W. (2000). *Discourse Analysis*. Seoul: Hankukmunhwasa.

Lee, H. (1999). Efficient methods for vocabulary teaching. In Lee, H. (eds.),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eoul: Hankukmunhwasa, 185-204.

Won, J. (2010). Directionality in Korean-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ing strategie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12(1): 131-156.

Lee, B. and Kim, M. (2006). A Rhetorical Analysis of President Roh Moo-Hyun's Inaugural Address. *Korean Journal of Rhetoric* 4: 179-209.

Shin, J. (2006). *A Study on 'Norm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Yang, C. (2007). *Interpreting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J. Son, Y. Kim, and H. Ahn, Trans.). Seoul: Hankukmunhwasa.

Lactorin-Inoue, K. (1991). Kokusaikajidai no tsuyakukyoku - totaaru komiyunikeeshion no susume (Interpreter training in the era of internationalization - Towards total communication). *Kiyou* 25: 23-61.

**T&I Review** is a refereed journal published by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ERITS), which seek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effective T&I education and excellence in professional practice by sharing the results of systemic and innovative research.

Published on December 31, 2022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odaegil, Seo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03760

Tel: +82 2 3277 3704 or 3705 or 4087 Fax: +82 2 3277 4017

E-mail: [erits@ewha.ac.kr](mailto:erits@ewha.ac.kr)

Website: <http://cms.ewha.ac.kr/>

### **Submission**

[erits@ewha.ac.kr](mailto:erits@ewha.ac.kr)

[tnirvw@kakao.com](mailto:tnirvw@kakao.com)

<https://erits.jams.or.kr>

Subject: contribution to T&I Review

### **Photocopying and reprint permission**

Photocopies of extracts from this journal may be made without charge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purposes, provided that full acknowledgement is made of the source. Reprints in any form of publications should obtai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T&I Review**는 통번역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올바른 통번역을 실천하고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Tel: 02 3277 3704-5 or 4087, Fax: 02 3277 4017

이메일: [erits@ewha.ac.kr](mailto:erits@ewha.ac.kr)

홈페이지 <http://cms.ewha.ac.kr/>

투고:

<https://erits.jams.or.kr> 에 회원가입 후 투고하거나 [erits@ewha.ac.kr](mailto:erits@ewha.ac.kr) 혹은 [tnirvw@kakao.com](mailto:tnirvw@kakao.com) 으로 이메일을 통해 투고한다. 이메일 제목은 [T&I Review 투고] 라고 명기한다.

저작권 및 재출판: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학술지 일부를 복사할 경우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무료로 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재출판은 발행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ISSN 2233-9221**

Copyright© 2022 by ERITS

All rights reserved. Published by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Designed by **JeilMunWhaSa**